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5월 17일(음력 4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578 호

‘종교인에 과세’ 웬말?

종교비판시민련 국세청장 고발 … 정부 사실상 ‘반대’
불교계 “과표 기준가 이하 · 이중과세로 현실성 없어”

수행자와 성직자의 수입을 후원금으로 봐야 할까, 급여로 봐야 할까?

정부가 오랫동안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성직자들의 과세문제를 집중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5월 8일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이하 종비련)’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종교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를 재정경제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였다. 관계당국도 해묵은 조세 현안의 하나인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짓고 넘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9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의 활동은 직업이냐, 아니면 봉사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직업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겠지만 종교인 수입을 활동에 대한 후원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스님, 목사, 신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은 물론이고 역술인과 무속인 등에게도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물론, 근로 외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세에 나설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일부 중대형교회 목사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으며 뭐라고 말하기도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목사나 신부들과 스님들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기에 앞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법무전문팀장 김봉석 변호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를 ‘근로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교계에서 근로조직의 개념을 가진 곳은 극히 드물다”며 “가톨릭처럼 상징적이라도 일부 교역직 스님들 위주로 납세에 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교의 경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시주 받은 재화는 사회와 신도들을 포교하기 위해 모두 회향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이미 신도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 남은 것으로 스님들에게 보시한 것을 다시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종교인 납세문제’에 대한 원칙은 확고해 보인다.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납세의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월 평균 시주가 3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독신 수행승들에게 어떤 근거로 납세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천태종 재무부장 도제 스님은 “타 종단과 달리 철저하게 개인적 소유라는 개념이 없는 천태종 스님들의 시주에 대한 과세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진각종도 일반적 개념의 급여 없이 최소한의 ‘이공(시주)’으로 생활하는 형편에 과세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종비련의 문제제기가 당장은 스님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소득세 문제로 국한되겠지만, 차후 종교단체가 가진 모든 재화와 수익에 대해 과세 여론이 확대될 것이 분명한 만큼, 불교계 차원의 원칙과 대응논리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조사관문을 뚫어라

병술년 하안거가 5월 12일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조계종 100여개 선원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결제에 든 2200여 수행자들은 앞으로 90일간 화두타파에 매진하게 된다. 사진은 결제현장을 공개한 백담사 무금선원의 기본선원에서 좌선에 든 납자들. (각 총림 방장 결제법어 5면) 백담사=고영배 기자

공원 입장료 폐지 ‘한 목소리’ 확인

지관 스님 · 김재규 이사장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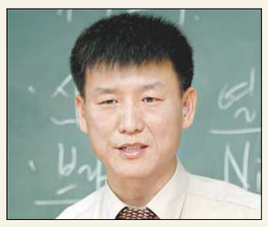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5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하고, 입장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등을 설득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조계종과 공단의 대표가 만나 입장료 폐지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 한 것이다.

이날 지관 스님은 “종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좀더 강력하게 입장료 폐지 입장을 밀어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공원내 산재한 수많은 사찰 문화재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소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자들을 선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의 이해복 행정지원처장은 “우선은 문화재 관련 교육을 종단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명상지도하는 최시선 선생님

‘불교금강영관’의 세계 4면
사찰도 생산성 시대 10면

감포서 띄운 ‘발원 풍선’ 日 다카치호 마을서 발견

이렇게 가까운 이웃인데…

경주시 감포 나정리 앞바다에서 띄운 한 불자의 ‘발원풍선’이 현해탄을 건너 일본 미야자키 현의 작은 마을 다카치호에 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풍선을 띄운 주인공은 대구 심원사(주지 정효) 신도 진삼임(54, 대구 용산동)불자. 지난 2월 12일 정월 대보름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주최로 열린 방생대법회에 참석해 딸 서수정(28)양의 취업성취를 발원하며 풍선을 띄웠었다.

지난 3월 초, 진삼임 불자는 일본에서 온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미야자키 현청에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 박영주씨가 다카치호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신해 보낸 편지에는 진삼임 불자의 주소와


일본 다카치호에서 온 편지를 들고 기뻐하는 진삼임(오른쪽) 서수정 모녀.

이름이 선명히 적힌 꼬리표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또 꼬리표를 달고 날아온 풍선을 보고 신기해하는 다카치호의 마을 사람들과 어린이들의 마음도 자세히 묘사돼 있었다. 박영주씨는 “다카치호는 전교생 11명의 고카쇼 초등학교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은 밭에서 발견한 풍선이 언제 어디서 날려진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진삼임 불자 가족은 “공기를 품은 작은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간 사실이 놀랍고 기쁘다”며 작은 풍선하나를 눈여겨봐 준 다카치호 마을 주민과 고카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과 편지를 다시 일본으로 보냈다. 진삼임 불자의 딸 서수정 양은 한국전통인형 캐릭터 열쇠고리와 함께 보낸 편지글을 통해 “풍선 하나가 다다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나라이기에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마음을 전했다.

선물과 편지를 받은 다카치호 고카쇼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 편지를 마을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학교측은 이 ‘풍선으로 맺어진 인연’을 한일 양국의 화합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방생법회를 주최한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 관계자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불교를 일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 · 사진/대구=배지선 기자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마감임박 …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 · 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 280만원(여권 ·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 **주최** : 현대불교신문
- **협찬** :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 어학연수– 원어민 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빅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땀서린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 해양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5. 31 지방선거에 즈음한 한국종교지도자 대 국민 호소문

화합과 축제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 31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유권자들의 의견이 서로 소통되고 반영되어 화합과 발전의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무관심은 바로 자신의 세금과 삶의 터전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는 4년에 한번 지역주민이 함께 대화하고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며, 지역발전을 통한 경제 · 사회 · 문화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축제의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하나된 힘은 국가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환경문제, 전쟁과 기아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입니다.

우리 7대종교 지도자들은 5. 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첫째,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화합과 축제, 아름다운 선거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 **둘째, 주인의식을 갖고 훌륭한 지도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함께 합시다.**
- **셋째,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민주사회 발전과 국가화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2006. 5.

불 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 관
천 주 교 (천 주 교 주 교) 김희중
유 교 (성 균 관 장) 최근덕
민족종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양원
기 독 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원 불 교 (원 불 교 교 정 원 장) 이혜정
천 도 교 (천 도 교 교 령) 한광도

상설행자교육원·선학연수원 설립 급선무

조계종 교육원 '승가교육' 제6집서 지난 10년 평가

간화선 대중화 방안 연구 확대
연수 프로그램 '전문화'도 필요

1994년 종단 개혁으로 출범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 '전통과 시대의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최상의 승가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인가'를 화두로 출범한 교육원이 지난 10년간을 정리하고 이후 과제를 점검했다.

교육원은 최근 발간한 〈승가교육〉 제6집에서 '교육원 10년의 사업보고 및 총평'을 통해 기초(행자)교육의 경우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을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봤다. 이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뛰어넘어 '어떻게'까지의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기본교육과정 과제는 '공통 교과목 도입과 시행'이다.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기본선원 등 다양한 성격의 교육기관에서 최소한의 공통 교과목을 시행해 기본교육과정의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심화를 통한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특수학교 등의 교육기관 증설도 필요하며 학림, 율원에 이어 '선학연수원 설립' 추진도 과제로 삼았다.

종단 차원의 교직자 자격 인정과 임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비 지급 등 신분 보장을 통한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단 수행체계 연구와 간화선 대중화 방안 연구는 종단 정체성 확립과 종교적 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되는 핵심사안이기 때문에, 종단 내 유일한 연구소인 불학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특히 연수교육과 관련, 현장 스님들이 원하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앞서가는 질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고, 중앙의 소집교육에서 자발적이며 소규모 단위의 현장교육 중심으로,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체험과 실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수교육 정책 기조가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봤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교육대상)의 교육 요구에 기초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으로서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과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연수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원에서 실시한 각종 연수에 참여한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및 각종 교육기관 교역직 스님, 강원 학인 등 총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도 실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수 프로그램의 시대적 변화와 요구 반영도를 측정한 결과, 약 55% 정도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보적 평가는 32%, 부정적 평가는 13%로 학인이나 승랍 10년 미만에 속하는 젊은 스님 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연수교육의 개선점으로는 △이론과 지식 중심의 교육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 △전문성을 갖춘 교수사 부족 △연수 시설의 결여 순으로 꼽았다.

연수교육 분야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포교 및 신도교육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설법 및 의사소통 △참선 등 제반 수행 △사찰관리 및 종무행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스님들이 긍정적(78%)으로 생각했지만, 약 30% 정도의 스님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른다고 답했다.

인터넷 연수교육 참여 욕구를 묻는 질문에도 60% 정도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향후 연수교육 방향과 기조에 대해서는 △포교, 문화, 사회, 복지 영역 확대 △체계적이고 질 높은 연수과정 개발 △소규모 현장 위주의 교육 △강의, 토론, 체험의 조화 △전문 교수사 확보 △수요자 중심의 교육 △내전 교육의 확대 강화 △자세, 지식, 기술의 조화 순으로 요구가 높았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태고종 봉원사 주지 환우스님 21일 취임식

태고종 봉원사는 5월 21일 오전 11시 환우 스님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의 영산재 시연과 운산 총무원장 스님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5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7대 종단대표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아름다운 선거실현을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최근덕 성균관장, 이혜정 원불교 교정원장, 손지열 선관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한광도 천도교 교령, 박종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창진 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총무.
사진=박봉영 기자

"5·31선거 국민화합 계기로"

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 호소문 발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9일 '화합과 축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5·31 지방선거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사회발전의 중요한 기회"라며 "국가 내외적으로 막중한 정세속에서 민족적 단합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 △훌륭한 지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만들기 동참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국가화합 등을 제안했다.

앞서 7대 종교지도자들은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박봉영 기자

이정호 신임시민사회수석 지관스님 예방

청와대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이 신임인사차 5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지관 스님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그곳에서 수십년동안 살아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처리를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현법 스님 문제 '각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법 스님 자격 문제와 관련해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가 제기한 심판이 '각하'됐다.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5월 9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37차 회의를 열고 교단자정센터가 제기한 '심판청구 요청에 대한 적격여부의 건'을 다룬 결과 "법규위원회법 제22조 2항의 심판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교단자정센터는 법규위원회의 결정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중앙신도회 등을 통해 대리심판청구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평택사태 평화적 해결"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면 민군이 충돌을 빚고 있는 평택 대추분교터에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5월 11일 공동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공동기도회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스님, 문규현 신부, 정상덕 교무, 백창욱 목사 등 4대 종단 종교인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하며, 군은 즉각 철수하라"는 대정부 촉구문을 발표했다.

조용수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촉구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44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월 11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개최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참석을 응낙한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미륵선종 창종

내달 원주 용화사서 법회

대한호국불교 미륵선종이 6월 창종된다. 미륵선종 덕산 총무원장은 중국 상해 용화고사 조성 방장 스님을 명예종정으로 추대하며, 원주 용화사에 총무원을 건립해 창종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륵선종은 6월말 원주 용화사에서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태국, 네팔, 미국 등 세계 7개국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세계평화기원 대법회와 창종기념법회를 함께 봉행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봉축법요식에 정치인 발길 분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를 찾는 정치인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5월 5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는 정계 주요 인사들과 각 정당 대표들의 참석이 이어졌다. 이날 조계사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김병준 청와대불자회장, 권영기 2군사령관, 탤런트 김용림 등이 참석했다. 고건 前 총리도 같은 날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법정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사진 오른쪽부터 법정 스님, 고건 前 총리 부부)

사진=박재완 기자

<자세한 기사는 buddhanews.com에>

靑昊堂 兩翼大禪師 永訣 · 茶毘式 봉행에 대한 인사 말씀

歸依 三寶 하옵고,
지난 5월 6일 涅槃하신 靑昊堂 兩翼大禪師의 永訣式 및 茶毘式을 5월 10일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큰 스님들과 제방의 여러 스님들 그리고 사부 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證 明 법전 지유 지백 능가 지혜 지관 지원 정관 고산 대정 일미 백운 무진장
선용 홍원 향운 선래 성현 흥교 도근 혜운 창도 법윤 여현
葬儀委員長 대성
葬儀副委員長 혜관 담연 계전 반월 영환 명선 성오 몽산
護 喪 흥교
執行委員長 경선
都 監 석공 성중 묵화
秉 法 원공 무용 현오 도원
儀 典 인각 무비 지오 범산 원정 상운 종훈 법안
知 賓 정만 화랑 무관 해문 길상 공마 선원대중
財 務 원범 목종
弘 報 혜수
書 記 지선
接 受 정한 용학 대혜 적인 공마 / 범어사 합창단
護 法 혜성
原 主 원범 서상 혜일
別 座 담산
門徒代表 정경
恩法上座 고봉 의정 정산 대일 무구 철암 법찬 목종 서현 강하 월도 안도 응현 탄욱 약연 광원 송음 구도 성인 가영 행인 훈암 의신 도관 유신 영우 혜현
法 上 座 인걸 지연 무착 법성 원우 원욱 지문 명궁 광탄 보일 대암 석호 적운 원명 적연 각현 각명 임하 관일
行 者 추암(이경재)

靑昊堂 兩翼大禪師 49재 일정

49재	일 시	장 소	연락처
초재	5월 12일 (음 4월 15일)오전 10시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2재	5월 19일 (음 4월 22일)오전 10시	성암사	051)635-3744
3재	5월 26일 (음 4월 29일)오전 10시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4재	6월 2일 (음 5월 7일)오전 10시	대원사 (영도)	051)403-9695
5재	6월 9일 (음 5월 14일)오전 10시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6재	6월 16일 (음 5월 21일)오전 10시	불승사	052)254-5127, 2427
7재	6월 23일 (음 5월 28일)오전 10시	범어사	051)508-3122

※문의 :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5, 3636
범어사 청련암 051)508-5164

梵魚寺 元老 靑昊堂 兩翼大禪師 山中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大成 · 護喪 興敎 · 門徒代表 定慶

상담전문가 양성 본격화

불교상담개발원, 21일부터 전국 무료 기초상담교육

21세기 포교는 '상담포교'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불교계 상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5월 한 달 동안 경주, 부산, 광주 등을 순회하며 전국의 불자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제1회 기초상담교육'을 실시한다. 기초교육에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불교계 전문상담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상담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기초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전문상담인력을 파악하고 추후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이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상담위원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혼상담법제화 세미나'에 참가하면서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 전문상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혼상담법제화' 법안이 상정돼있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시한 이혼 전 상담제도의 성공과 더불어 전국 법원으로 이혼상담제도가 확대운영될 추세에 있는 등 상담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뜨겁다. 또 올해 4월 28일에는 육군 제2군사령부 내에도 시범적으로 군상담위원 117명이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125명의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중 불교계 상담위원 참여현황은 12명, 수원가정법원 상담위원은 6명이다. 군상담위원 중 불교계 상담전문가는 겨우 10명. 전체의 8%에 불과한 셈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기초상담교육'을 통해 불교적 소양을 지닌 상담전문인력이 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수료증이 발급되며 교육받은 기간은 조계종이 운영하는 '불교상담심리사' 수련과정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또 관련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28세 이상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갖고 있는 상담가의 경우 한국상담전문가협회 3차 교육대회 교육 참가자로 추천해준다.

5월 20~21일 대구 경북지역 상담가 50여명을 대상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1차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2차는 27~28일 광주 (사)자비신행회 강당에서, 3차는 6월 3~4일 부산지역(장소미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02)737-7378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파라미타 10주년 지회 늘리기 박차

5월 13일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스님, 이하 파라미타)가 10주년을 맞았다.

1996년 창립한 파라미타는 10년 동안 전국 10개 지부 15개 지회 350분회에 걸쳐 2만여 명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며 청소년 포교에 새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창립 당시 전국 535개에 달했던 학교 및 사찰 분회가 10년 만에 350여개로 줄어드는 등 조직 규모가 현저하게 축소됐다. 이에 파라미타는 올해 안에 미 설립 지부를 정비해 창립에 박차를 가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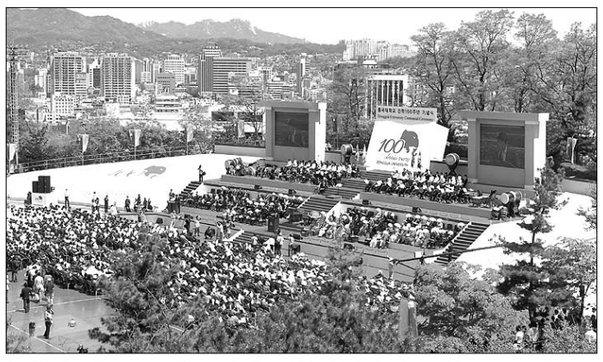
현재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이 미설립 지부로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 6월 경남지부 창립을 시작으로 인천과 강원 등이 하반기 안에 지부 창립을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파라미타의 존재 의미 중 가장 큰 것은 조계종단 차원에서 청소년 포교를 위해 정기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뒷받침이 있었기에 파라미타는 현재 결코 타 청소년 동아리에 뒤떨어지지 않는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이제는 일선 학교에서 명실공히 인기 동아리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착에는 어느 정도 성공 했지만 이제는 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이 제기되고 있다. 파라미타가 창립할 당시 이미 활동중이던 청소년교화연합회와 지역분회의 활동 범위가 겹치는 것도 파라미타의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청소년 포교 전문가들은 두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경쟁관계가 아닌 협조체제를 갖춰 타종교에 비해 조직력이 뒤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선 전략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해 포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주일 기자



5월8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15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 마음에 희망이 있다"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식

"눈 밝은 선지식들의 혜안은 1906년 5월 8일에 거사(擧事)하여/도성(都城)의 안산(案山)인 남산골 영명(靈明)한 자리에/배움터의 당기(幢旗)를 지주(支柱) 높이 내걸고/인재의 요람인 명진학교(明進學校)를 출범시키니…."(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의 기념 법어 중)

동국대 건학 100주년 기념식이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 조계종원로의원 고산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8일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거행됐다.

기념식에서 법전 스님의 기념법어에 이어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은 "동국대학이 이처럼 한 세기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올바르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안으로는 불교계의 근대화에 노력하고 밖으로는 민족의 자주정신을 선양하는데 앞장섰던 여러 선배 선각자 불교인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식을 아끼듯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마음속에,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마음속에, 밤새워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 마음속에,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문들의 마음속에" 건학 100주년의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국대 10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국 백년비' 제막식이 정각원 앞에서 봉행됐다.

한편 기념식에서 법전 스님이 동국대 로스쿨 유치를 직접 언급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사리는 신앙 대상…제자리로"

조계종, 국립중앙박물관 불사리展 반대

국립중앙박물관이 5월 3일부터 21일까지 '불꽃속에 피어나는 숭고한 정신 불사리와 장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며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달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5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공문을 보내 "불교의 상징인 사리를 전시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숭고한 예배의 대상인 불사리가 전시나 보관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즉각 반환해 여법하게 봉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이 조계종 현등사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3층석탑 사리함 일체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사리는 죽은자의 신체 일부이며 종교적인 신앙대상으로 사고 팔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문화활동의 소산이 문화재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여서 조계종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문화부 박종학 팀장은 "사리가 전시 유물로 둔갑한 것은 국가기관에서 종교적 무지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며 "문화재청의 유권해석처럼 사리구는 문화재가 될 수 있어도 사리는 신앙의 대상인 만큼 출토된 탑에 다시 봉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공직자 종교편향 법으로 막자"

종평위, 제도마련 촉구 포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존립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

5 ·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교분리와 사회공직자들의 종교편향에 대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공개포럼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주최로 5월 10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간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교분리원칙이 엄격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힌 김상겸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은 전체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에는 자신의 발언이나 행위에 대해 종교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면서 "최근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제어할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상겸 교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범죄행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때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로 인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원철 서울대 교수와 박희택 위덕대 교수도 김상겸 교수의 발제에 동의하고, 법률제정을 통해 종교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5 · 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종교평화위원회는 입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 실현, 정교분리와 종교적 중립 준수 등을 촉구했다.

박봉영 기자



5월9일 병실을 찾은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사진 왼쪽)이 아빠 품에 안겨 있는 카우서 아델 후팀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모성애

KCRP, 이라크 어린이환자 초청 치료
불교여성개발원 봉사자 석달간 보살펴

노래 부르기와 인형을 좋아하는 카우서 아델 후팀(4). 유달리 아빠와 노는 것을 좋아했던 아델은 어느 날 전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다. 바로 바그다드 폭탄 테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카우서는 전신 화상을 입었고, 이라크 의료진들도 치료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카우서의 아버지 아델(40)은 당시를 "내 딸인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했고, 병원 의료진들의 부정적인 진료 결과에 또 한 번 좌절했다"고 회고한다.

하지만 이들에게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들이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백도웅, 이하 KCRP)다. 한국종교계의 7대 종단 연합기구인 KCRP는 이라크에서 전쟁과 테러로 부상당한 어린이들을 한국으로 초청 치료하는 사업을 벌였고,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이 혜택을 카우서가 받게 된 것이다.

5월 7일, 생면부지의 한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카우서와 아버지 아델을 반긴 사람은 다름 아닌 KCRP 여성위원회의 '국경을 초월한 모성애' 회원들. 그 중에서도 3개월간 카이서를 보살피게 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여성개발원 봉사자들이었다.

혈액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마친 카우서는 다음 주 중으로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되며, 3개월 간 4차례에 걸쳐 수술이 진행된다.

아델씨는 "의사도 절망적이라고 했던 수술을 한국에서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며 "딸아이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니 한국 관계자들이 말할 수 없이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9일 병실을 찾은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은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어린 생명을 살리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심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사진= 여수령 기자

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불교전래 및 준공식 원만봉행 축



장소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좌우두 일원

1,600여년 전의 불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영광 법성포

백제 침류왕 원년 서기 384년 인도 고승 마라난타 존자께서 옛 백제국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최초로 당도하셨던 영광 법성포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불사를 추진하여 5월13일에 그 준공식과 불교전래재현식을 봉행하였습니다. 여러 대덕큰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동참하여주셔서 성황리에 원만히 봉행하게 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만불전 원불 봉안 불사 동참 권선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간다라양식으로 조성된 가람으로서, 석굴형 사면대불과 부용루 , 탑원, 간다라 유물관 등 대승불교의 본고장인 간다라 불교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가람입니다.
이곳 만불전에 지혜와 자비라는 진리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혀줄 일만의 부처님을 봉안합니다. 이 뜻 깊은 원불 봉안불사에 불자님들께서 정성과 기쁨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 원불 봉안금 : 50만원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기념사업회

전화 : 061)352-8097, FAX : 061)353-1909

E-mail manndang@hanmail.net / http://www.maranantha.org

온라인 계좌번호 : 농협 679-01-187701 [예금주 : (사)백제불교기념회]

몸 · 마음 · 호흡 조화로 포교의 블루오션 개척

양익 스님 입적 계기로 본
'불교금강영관'의 현재와 미래

불교무술의 산 역사로 불리던 청호당 양익 스님이 5월 6일 범어사 청련암에서 입적하면서 '불교금강영관(佛敎金剛靈觀. 금강승불무도, 선관무, 선무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무술'로뿐 아니라 불교 수행법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 불교금강영관은 마음공부와 함께 이를 위한 신체 수련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자는 물론 외국인들에게까지 각광 받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주 골굴사의 경우 선무도 템플스테이의 대표 도량으로서 수련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익 스님의 발자취와 함께 국내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금강영관'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1976년 범어사 극락암 서지전에서 열린 금강영관 수련원 1기 졸업식 사진.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양익 스님이다.
사진제공=범어사 청련암

'선관무 · 선무도 · 금강승불무도'로 불려
웰빙 시대 흐름타고 국 · 내외서 큰 인기

수행적 실천법 '깨달음' 지향

양익 스님이 체계를 잡은 불교무도는 정확히 '불교금강영관'이라고 해야 한다. 현재 선무도, 금강승불무도, 선관무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모두 대중화를 위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

'불교금강영관'은 부처님으로부터 2500여년을 면면히 이어온 승가의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로 작게는 심신의 평화로운 안정과 크게는 깨달음을 향한 구도적 수행법이다. 신라의 원광법사나 원효대사는 신라화랑들의 신심수련과 호국무술로 세속에 전파했으며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호국무술로 정착돼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금강승들을 중심으로 비전돼 왔다. 조선시대 승병을 이끌었던 스님들도 불교무도의 명인들이었다고 전해지나 일제 강점기를 맞으며 맥이 끊긴 것을 1950년대 양익 스님이 많은 부분을 발굴, 복원, 체계화시킨 것이다.

수련법은 정적 수련을 위주로 하는 영정관법(靈靜觀法), 선체조, 선요가에 해당되는 영중관법(靈中觀法), 동적인 수련에 해당되는 영동관법(靈動觀法)으로 나눠진다. 다시 세부적으로 입관(立觀), 좌관(坐觀), 행관(行觀)으로 영정입관과 영동입관, 영정좌관과 영동좌관, 영정행관과 영동행관으로 나뉘는 것이다.

모든 수련에서 몸과 마음, 호흡의 일치를 중요시하며 선체조와 팔, 다리, 머리, 배, 등판 등의 다섯 부위를 부드럽게 한다고 하여 오체유법이라 통하는 선요가 등의 기본 수련이 바탕이 돼야 영정관법이나 영동관법을 수련할 수 있다.

특히 영정행관은 10개의 동작으로 이뤄져 영동행관의 승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행(行), 주(住), 좌(座), 와(臥), 어(語), 묵(默), 동(動), 정(靜), 반(返), 공(空)의 10개 동작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몸 전체에 안정과 활력을 주는 동작이다. 또 영동행관은 일반무예의 형, 즉 품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1승형에서 10승형까지 있다. 다른 무술의 경우, 초단의 수련 경력을 가진 사람이 6단의 품세를 흉내 낼 수 있는 것과 달리 1승형을 수련한 사람이라도 2승형이나 3승형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만큼 호흡을 통한 내공이 연마돼야 하는 수련법인 셈이다. 이어 10승형 다음 단계로 1지에서 10지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수련내용을 좌관, 입관, 행관의 밀교적 관법수행에 비추어 보면 불교금강영관의 동작이 거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무도의 수련내용 중 앉아서 하는 좌관법만 보더라도 가부좌를 취하고 깊은 호흡의 조화와 더불어 여러 형태의 수인을 연결해 움직여 심리적인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삼매에 들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금강영관은 철저하게 수행적 실천법으로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하고 있다.

원욱 · 적운 · 안도 스님 등 보급 앞장

불교금강영관의 대중화에는 서울 호압사의 원욱 스님과 적운 스님, 안도 스님이 앞장서고 있다.

원욱 스님(호압사 주지)은 선관무가 무술이 아닌 수행법임을 강조하며, 서울 방배동의 중앙총본원과 성남의 경기본원, 전주의 전북본원을 축으로 선관무 수행법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선관무는 서울과 고양 등지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보급돼 있으며, 이스라엘에도 분원이 마련돼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도 선관무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7년간 양익 스님에게 사사 받은 적운 스님은 1985년 불교금강영관을 '참선과 무도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으로 '선무도'로 칭하며 대중화에 나섰다. 이후 선무도 총본산인 경주 골굴사를 중심으로 서울, 안산, 부산, 양산 등 국내 8개 지원과 미국 플로리다 지원, 캐나다 토론토 지원, 호주 살즈버그 지원, 프랑스 토루스 지원 등 해외 4개 지원에서 선무도를 보급, 홍보하고 있다.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총재인 안도 스님도 부산 금강선원을 중심으로 부산 시내, 양산, 기장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부산경상대학교 경찰행정과 무술교수로 활동하며 저변확대에 나서고 있다.

범어사에서는 불무도 템플스테이를 열어 청소년, 일반인 등에게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선무도협회 정현표 회장은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로 심신의 안정과 깨달음을 향한 구도 수행법인 선무도는 정신건강이 화두가 된 웰빙 시대에 적합하다"며 "불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가톨릭 신자 선무도 인구도 약 2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등 '국민무예'로 발돋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천미희 · 노병철 · 유철주 기자

일제 때 끊긴 무술수행법 복원해 맥 이어

양익 스님은 누구

양익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물론 무술인들에게도 '전설'같은 존재다. 이는 일생을 통해 '불교금강영관'이라는 수행법을 체계화하고 전수해온 스님의 삶이 수행자로서뿐 아니라 무도인으로도 대중의 지표가 돼 왔다는 방증이다.

1962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부산 범어사에서 입산출가한 양익 스님은 <법화경>과 <화엄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을 실천적으로 수행해 번뇌를 여의토록 하는 불교금강영관의 체계를 정립하고 출 · 재가 제자들에게 전수해 왔다.

'금강영관' '신심일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제자들에게 일렀던 양익 스님은 몸의 극한에서 정신적인 초월을 이끌어내는 수행법으로서 불교금강영관을 중요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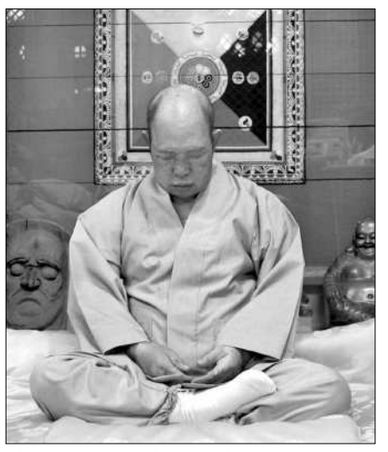
그래서 양익 스님은 검술, 창술을 배제하고 공격이나 방어의 목적이 아닌 심신의 조화로운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법으로서 틀을 잡았다.

양익 스님은 갖가지 일화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37세이던 1971년에는 함께 공부하던 도반 스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 높이 4m에 이르는 범어사 일주문을 뛰어 넘었다거나, 스님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청련암까지 찾아온 검도 고수를 나뭇가지 하나로 제압했다는 등의 '전설'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양익 스님이 결과부좌한 채로 공중부양하여 천장의 못을 빼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익 스님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극히 싫어해 제자들이 일반에게 불교금강영관을 보급하는 것을 반대하다 나중에는 수행법으로서 내실 있게 가르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양익 스님을 은사로 12년간 선무도를 수련한 안도 스님은 "지난해 범어사 개산대재에서 금강승불무도를 선보였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맞았다"며 "수행자답게 겸손하지 못하고 섣부른 잡기를 대중 앞에 선보인다는 게 몽둥이의 이유였는데 그때 매를 든 스승에게서 제자를 아끼는 자비심을 절실히 느꼈다"고 회고했다.

양익 스님은 원적 직전까지도 홍천의 불사와, 은사인 동산 스님 생가복원 불사에 매진했다. 입적 하루 전인 5월 5일, 상좌 약연 스님을 불러 불사를 맡기겠다고 전하고 오후에 통도사 적멸보궁을 참배한 후 다음날 새벽 가부좌한 채 고요히 입적에 들었다. 다비식은 5월 10일 범어사 다비장에서 엄수됐다.



5월 6일 새벽, 가부좌한 채 입적한 양익 스님.

우리나라 금강영관 계보

양익 스님은 1971년 불교금강영관 관주로서 범어사 극락암 서지전에 대금강승문을 열어 선무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1978년 범어사 청련암 주지를 맡아 불교금강영관 연수원을 개관하여 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정경 스님을 비롯한 고봉, 의정, 정산, 대일, 법찬, 안도, 광원 스님 등 28명의 은법 상좌를 두었는데 은법 상좌들도 불교금강영관 수련이 생활화돼 있다. 또한 원욱, 인걸, 지연, 적운, 원명, 각현 스님 등 19명은 연수원에서 무도를 지도하며 법상좌의 인연을 맺었다. 이 밖에도 박정현 범어사 신도회장을 비롯 수 백 명에 달하는 재가자들도 제자로 길러내며 불교수행법으로서의 금강영관 대중화에 불씨를 지폈다. 국내외로 90여 곳에서 스님에게 무도를 배웠던 제자들이 불교금강영관을 통해 불법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호압사 원욱 스님의 관선무, 경주 골굴사 적운 스님의 선무도, 부산 금강선원 안도 스님의 금강승불무도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도 스님은" 불교금강영관을 배운 제자들이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며 계보가 달라지고 있지만 각각의 계보마다 이렇다 할 특징이나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모두 양익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으로 정착시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 고

(사)한국불교 미륵종

■ 사찰등록증 재발급 및 승려증 갱신

금번 본 종단 행정정비와 관련하여 사찰등록증 재발급 및 승려증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본 종단 전 종도분들은 이번 기간내에 한분도 빠짐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6년 5월 15일 ~ 6월 15일(1개월간)
- 접 수 처 : 해당지역 각 교구원장
  - 서울지역 교구원장 : 붓다마을 영탄스님(02-953-8780, 010-7192-3653)
  - 경기 · 강원지역 교구원장 : 천도사 천명스님(031-565-4620, 011-686-1116)
  - 충청 · 대전지역 교구원장 : 목련사 혜초스님(043-832-5164, 011-463-5164)
  - 경북지역 교구원장 : 도성사 도성스님(010-9163-0998)
  - 대구지역 교구원장 : 원각사 혜운스님(053-626-2328, 010-2808-7071)
  - 경남지역 교구원장 : 구민정사 혜문스님(010-3329-5478 총무:혜인)
  - 울산 · 부산지역 교구원장 : 성불암 도신스님 052-295-2986, 011-845-3596
  - 전라도, 제주도 지역 (총무원 055-345-4741)

▶ 제출서류

- 사찰등록증, 승려증, 사진 8매(대가사, 크기 3×4)

※ 참고사항 : 상기 기간에 사찰 등록증및 승려증을 갱신 하지 않을시 제적 처리되오니 갱신업무가 원할히 회향할수 있도록 종도스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식 삼십송 강좌 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덕망 높은 선지식을 모시고 경전강좌를 통하여 서로를 경책하고 탁마해가는 "경전연구회"가 1차 육조단경, 2차 선요에 이어 **3차 "유식삼십송"**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강 주 : 혜거 큰스님
■과 정 : 5 ~ 6개월
■일 시 : 6월 9일 개강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3시 ~ 6시
■장 소 : 서울 옥수동 미타사 內 대승암
■수 강 료 : 30만원 (교재 무료 제공)
■수강신청 : 5월 30일까지 (선착순 15명 내외) 입금후 전화
■계좌번호 : 국민은행 458701-04-155072(예금주:김영희)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지장)
총무 011-9038-9594(법정)
재무 010-4500-3142(승지)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으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
※종단의 중징계를 받은 스님은 입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3번이상 불참시 수료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날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사진 1매(반명함)를 꼭 제출바랍니다.

경 전 연 구 회 일 동

무엇이 진짜 말후구인가?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덕산 스님이 어느 날 공양이 늦어지자 손수 발우를 들고서 법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공양주 소임을 살고 있던 설봉스님은 이 광경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종도 치지 않고 북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발우를 들고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덕산 스님은 머리를 푹 숙이고서 곧장 방장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설봉스님과 함께 살던 암두 스님은 이 일을 전해 듣고서 또 한마디를 보태는 것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덕산이 말후구(末後句)도 모르는구나."

그러자 덕산 스님은 그 말을 듣고서 암두스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그대가 노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암두 스님은 은밀히 자신의 뜻을 덕산 스님에게 열어 보였습니다.

이튿날 덕산 스님은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는데 그 전의 법문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자 암두가 큰방 앞에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노장이 이제 겨우 말 후구를 알게 되었구나. 이 이후로는 천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다만 삼년뿐이로다." (중략)

결제대중들이여!

산승의 견처로 점검해보니 최초의 일구를 안다면 최후의 일구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일구나 최초의 일구 모두 궁극적인 일구 즉 말 후구는 아닙니다. 이들 공안을 제방에서 흔히들 여러 가지로 논해왔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덕산 삼부자가 주고받은 문제의 그 말 후구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참으로 그 말 후구(末後句)인가 하는 것을 이번 하안거 결제 한철동안 잘 참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각월중계(斫却月中桂)
달 속의 계수나무 베어내니
청광전갱다(淸光轉更多)
밝은 빛이 더욱 많아짐이로다
호리구병적(狐狸俱屛迹)
여우와 살쾡이는 자취를 감추고
사자분금모(獅子奮金毛)
사자는 황금털을 뽐내는구나

다 못 네 눈앞에 있느니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눈 앞에는 차별된 어떤 법도 없으니, 형상과 마음이 있고 없음의 차별심을 가지고 보면, 어디에 있어도 눈앞의 법을 보지 못하느니라.

안리고산봉연련(眼裏高山峰連連)
눈앞에 높은 산봉우리 첩첩하고
유수부세아장한(流水不洗我長恨)
흐르는 물은 나의 긴 한을 씻지 못하네
홀연춘래고고목(忽然春來故槁木)
홀연히 옛 마른나무에 봄이 오니
화탄홍지성차신(花綻紅枝省此身)
분홍 가지에 꽃망울 터질 때 이 몸을 발견했네

한 납자가 만공노사를 찾아뵙고 여쭙기를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노사께서 이르시기를 "다 못 네 눈앞에 있느니라" 하셨다.

납자는 다시 "눈앞에 있다면 저에게는 어찌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여쭈니, 노사께서는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느니라" 하시니, 납자는 여쭙기를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하니, 노사께서는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하느니라" 하셨다.

납자가 다시 여쭙기를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니, 노사께서는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중들은 이 때를 당하여 무어라 말하겠는가? (후략)

수염 붉은 호인을 보았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오직 일대사를 위해 시방에서 오신 수행납자들이여.

각자 큰 뜻을 가슴에 품고 모였으니 이제부터 한바탕 호쾌하게 지어가 봅시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 누구 있어 나를 대신하겠습니까.

'호인은 수염이 붉다고 하더라.
오늘 수염 붉은 호인을 내가 보았다.'

이 한마디를 잘 살펴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공부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저 정진, 정진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 없습니다.

제가 모신 효봉 스님은 참 우직하게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 분 스스로도 나는 미련하게 그저 밀고 나가는 법 밖에 모르니 너희들은 좀 슬기롭게 공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중 겪어보고 나니 그 분의 공부법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편이었다는 걸 알게 되더군요.

(중략)

여러분 같은 기상과 지혜를 갖추었으면 한 판 멋지게 해치울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오직 간절하고 철저하게 파고들어 한판 멋지게 해치웁시다.

산승은 미력을 다해 시봉을 할 테니 출격 대장부들이여, 이번 철에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기 바랍니다.

병과 약 다할 때 참사람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약욕수행(若欲修行) 만약 수행을 하고자 할진댄
선수돈오(先須頓悟) 모름지기 돈오가 우선이니
수본진심(守本眞心) 본래 참 마음을 지켜야 한다
미심수도(迷心修道) 미혹되게 마음을 닦는 것은
단조무명(但助無明) 단지 무명을 따를 뿐이다
병진약제(病盡藥除) 병과 약이 다할 때에 이르러
환시본인(還是本人) 이를 참사람이라 한다.

백장선사(百丈禪師) 밑에 신찬선사(神贊禪師) 라는 제자가 있었다. 계현(戒賢) 강백의 상좌이다. 신찬선사가 스승인 계현 스님이 참선은 하지 않고 문자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백장선사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그의 스승인 계현 스님의 등을 밀면서 대화한 내용이다. (중략)

신찬 스님은 서슴지 않고 상당하여 설법하였다.
영광독로(靈光獨露) 신령한 광명이 홀로 드러나서
향탈근진(逈脫根塵) 육근육진의 모든 분별을 벗어났네.
체로진상(體露眞常) 그 자체가 항상 참됨을 드러내어
불구문자(不拘文字) 언어문자에 걸리지 않는다.
진성무염(眞性無染) 진성은 더럽혀지지 않고
본자원성(本自圓成) 본래부터 원만히 성취되어 있네.
단리망연(但離妄緣) 다만 허망한 인연만 떨쳐 버려라.
즉여여불(卽如如佛) 곧 그대가 부처이니라.

그리고서 주장자를 굴리자, 계현 스님은 크게 발심하여 다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내 이렇게 늙어서 상좌에게 극치법문을 들을 줄 기대나 했겠는가? 모두 부처님의 은혜이로구나."

골짜기 물소리 따라 가라

태고종 종정 ·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춘색만연창만물(春色漫然蒼萬物) 봄빛 가득하여 만물이 창성하니
준동함령생환희(蠢動咸靈生歡喜) 생명가진 모든 것들 다 함께 기뻐하네
연연세세화상사(年年歲歲花相似)
해마다 피는 꽃은 변함없는 그 꽃인데
세세연연인부동(歲歲年年人不同)
어찌하여 사람만은 세월따라 변하는가 (중략)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승속(僧俗)과 선교(禪敎)를 구분하고 진제(眞諦)와 속제(俗諦)를 나누어 진공(眞空)이니 가유(假有)니 생사니 열반이니 하는 이론에 치우치고 이것을 밝은 지식으로 착각하여 마음의 보배를 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진리는 말을 떠나고(眞理離言) 한쪽에 치우쳐선 통하지 않습니다(一邊不通). 고정관념을 떠나(離思辨) 머무는 곳이 없이(無所住) 얻는바가 없는(無所有) 지혜를 얻는 것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안거에 들어가는 수행 납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쪽으로 나누어 헤아리는 마음의 저울대를 꺾는 일입니다. 이 저울대를 그대로 붙잡고 수행해본들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별심의 저울대를 탁 꺾어버리고 골짜기에 흐르는 물처럼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에서 실상의 법칙에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그러면 봄날의 황사먼지가 천지를 뒤덮다가도 비가 와서 먼지가 씻겨 내려가면 대자연의 청명(淸明)한 본래의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듯 명각(明覺)의 거울에 부처의 경계가 나타납니다.

옛 조사의 금구(金句)를 일러 공부하는 이의 조도(助道)로 삼고자 합니다.

체도본무수 불수자합도(體道本無修 不修自合道)
도는 본래 닦을 것 없어 닦지 않으면 절로 도에 이르나니
약기수도심 차인불합도(若起修道心 此人不合道)
도 닦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는 도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일진성 각입료호호(棄却一眞性 却入闇浩浩)
도리어 참 성품을 버리고 시끄러움에 들게 되나니
홀봉수도인 제일막향도(忽逢修道人 第一莫向道)
혹 도 닦는 이 만나거든 제일 먼저 도를 향하지 말라하라

법어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 백담사 무금선원 결제 현장

문 잠그고 들어가 '문 없는 문' 연다



백담사 무금선원의 하안거 결제법회에서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부처님은 설산수도 6년 만에 깨쳤고 원효 스님은 하루 밤 만에 깨쳤으니 이번 한철 공부 잘해서 설악산의 주인이 되라."

5월 12일 하안거 결제날, 설악산 백담사 무금선원(선원장 신룡)의 결제법회는 간결했다. 신흥사 회주 오현 스님의 결제 법문이 30명의 기본선원 학인들과 무문관 수행 수좌 11명에게 새 힘을 돋워 주었다.

기본선원과 무문관. 아이러니다. 간화선의 기본을 배우는 사미들과 선방 구참들이 '도전' 하는 석달간의 무문관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선적(禪的)이라고나 할까?

이날 무금선원 무문관에 든 수좌 가운데 前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 前 대흥사 주지 보선 스님, 통도사 월파 스님 등 구참 수좌들이 눈에 띄었다. 20안거를 넘겨야 하는 원칙을 감안해도 본사주지 소임을 살던 스님들의 무문관 입방은 보기 드문 일이다.

무문관 수행은 3 개월간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끊고 묵언 수행을 하고,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공양하며 고행 정진을 하게 된다.

조계종 기본선원에서는 사미 스님들이 교선사인 효림(실천승가회 공동의장), 자명 스님에게 지도를 받는다. 일주일에 두 번 진제 스님과 송담 스님의 녹음 법문을 듣고 탁마하게 된다. 기본선원의 하루 일과는 새벽 2시 40분에 일어나 예불을 하고 하루 4 번 10시간 정도 정진한다. 오후 묵언 수행을 하고 매일 1~2 시간 정도 울력도 빼 놓지 않는다.

글 · 사진/백담사=고영배 기자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prayer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치유의 메시지
몸이 아픈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삶이 힘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한다.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신에게 염원하게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른다.
이 책은 종교와 종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구분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모든 현대인에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되짚게 한다.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틱낫한 지음 | 김은희 옮김 | 9,000원
화 100만 독자가 선택한 화제의 베스트셀러
재앙이 흐를수록, 화가 난 때마다 다시 거내 읽게 되는 책!
틱낫한 지음 | 최수민 옮김 | 8,900원
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의 발견
2003년 한국 황문 기념으로 세계 최초 출간된 화제의 책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8,900원
틱낫한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법화경 한 구절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한다
틱낫한 지음 | 박윤정 옮김 | 10,000원
《기도》 블로그 blog.naver.com/myungjinpub
NAVER 틱낫한의 기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6-44 Tel. 02-326-0026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천성산 계곡 물의 양을 측정하는 '유량민간조사단' 활동이 환경운동의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지율스님과 민간조사단의 만남(왼쪽 사진), 조사에 동참한 수녀님(오른쪽).

천성산 '유량민간조사단'의 활동…환경운동의 새 모습

"벌써 물이 줄고 있어요"

스님·수녀·교수·도롱뇽의친구들 매일 3곳서 수량 기록

지금 천성산에는 어른들이 쓰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있다. 지율 스님이 천성산 암자로 돌아간 직후 시작된 천성산 유량 민간조사단 활동은 수녀, 스님, 교수, 도롱뇽의 친구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동화다.

저마다의 일상에 바쁜 어른들이 순번을 정해 천성산에 오르고 대성, 안적, 가사암 세 계곡에 설치된 유량측정기의 눈금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을 한달반 째 이어오고 있다.

세 계곡의 물이 모이는 지점에 시멘트로 설치된 유량측정기는 도롱뇽의 친구들이 시멘트를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직접 만든 것이다. 민간조사단원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때론 친구들과 유량조사를 함께 하면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 천성산 홈피(www.cheonsung.com)의 조사단 일지에 그날의 소감과 함께 올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어도 이 조사는 계속될 것이다.

유량 민간조사단이 꾸려진 이유는 이렇다. 공동조사단 활동에서 유량조사가 의도적으로 제외되었고 고속철도공단에서 2004년부터 진행해왔다며 보내온 유량조사기록이 강우량의 변화와 전혀 맞아 떨어지지 않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유량의 변화를 시민들이 매일 산을 오르는 수고를 해서라도 기록해야 하는 이유였다.

각각의 계곡에는 현재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유량조사의 결과가 적힌 기록판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매일 그곳을 오른 조사단이 그 기록판에 수치를 적고 있다. 터널공사로 인해 생기게 될 천성산의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나서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5월 9일에는 천성산 유량 민간조사단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유량 조사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율 스님은 "지금부터 천성산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유량조사"라며 "현재 터널 공사 건너편 아파트의 식수가 고갈되는 등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천성산의 물이 마르고 늪이 마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까 우려된다"며 민간조사단의 활동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 양산 등의 조사단들도 "유량조사를 위해 산에 가면서 산이 주는 생명력에 새삼 놀라고 단 20분 빨리 가기 위해 이 곳을 망가뜨려야 하나 되묻게 된다"며 "유량조사를 제외시킨 것만 봐도 공법으로 물이 새지 않게 하겠다는 공단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증거이니 유량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율 스님은 "민간조사단은 투쟁으로 일관해왔던 환경운동에 사람의 온기를 더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싸움을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보다는 개발과 자연이 상충될 때 우리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르면 5월말 경 결론이 내려지게 될 도롱뇽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율 스님은 현재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업에 한창 바쁘다. 또한 유량조사가 빠지는 정황과 공법 보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정 등이 담긴 공동조사단 속기록을 토대로 한 연극 공연을 기획중이다. 5월 20일경 그동안 천성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운동에 참여해온 수녀들이 부산 남천동의 북카페에서 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글 · 사진/천성산=천미희 기자



대구봉축위, 대성사에 '대상'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는 5월 10일 대구 프린스호텔 갤럭시홀에서 결산평가회의를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봉축위원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가회의는 장엄등경연대회 우수출품작에 대한 시상과 붕축행사에 공로가 큰 스님과 불자들에 대한 표창, 감사보고, 수지결산, 행사평가에 대한 토의로 이어졌다.

대구봉축위는 회의에서 연등축제 회향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지역시민들의 흥을 돋운 천태종 대성사에 대상을, 한마음선원과 진각종에 금상을 수여하는 등 모두 13개 단체에 대해 시상했다. 배지선 기자

영주장애인복지관 스쿠터 전달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영주법우회의 추천을 통해 국제로타리 클럽3630지구에서 기증받은 전동스쿠터를 최근 재가 장애인 조모씨(지체1급)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통스쿠터를 기증받은 조씨는 지체장애인 중 특히 거동이 불편해 외출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컸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조씨가 운전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행운전을 하며"앞으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배지선 기자

대구BBS, '꿈이 있는…' 개최

대구불교방송(사장 법조)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5월 21일 오전 10시 대구 월드컵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을 개최한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글짓기(산문 · 운문)와 그리기, 디카 사진촬영대회로 진행되며, 굴렁쇠 돌리기, 제기차기, 팽이놀이 등 다양한 우리 전통 전래민속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다.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수상자 발표는 5월 29일 대구불교방송 홈페이지(www.dgbbs.co.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앞산살림 위한 100일기도' 시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회장 고경순)이 5월 11일부터 상인동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천막농성장 앞 생명평화광장에서 앞산터널공사를 반대하는 '앞산살림을 위한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달비골천막농성단,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의 대구시민환경단체들도 5월 11일부터 두 달간 앞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대구시민들의 이름으로 '앞산터널반대 대구시민 25만4천배 이어가기' 운동을 시작했다. 25만4천은 대구시민 254만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

배지선 기자

경주 남산 흙길 달려요

28일 남산산길 마라톤 대회…외국인노동자도 참가예정

경주 남산 산길마라톤대회(대회장 지관 · 조계종 총무원장)가 5월 28일 오전 10시 경주 통일전 앞 광장에서 한국불교마라톤협의회(회장 진오) 주최 주관으로 열린다.

지난해 문화유적 훼손 등의 이유로 일부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경주남산 흙길 코스를 달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시 경주남산을 관통하는 흙길 코스에서 열리게 돼 마라톤 마니아들의 기대가 크다. 하프코스와 10km, 10km 걷기 코스 등 3개 종목이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외국인노동자 100여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회를 개최하는 한국불교마라톤협의회장 진오스님은 "올해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대회개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많은 마라톤 마니아와 일반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외면할 수 없어 지속하게 됐다"며 건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스포츠를 통해 우리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불교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054)775-0408

배지선 기자

주민과 함께 춤추고 가훈 써주고…

부산 용호복지관 장승축제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용호복지관(관장 혜총)이 5월 8일 제3회 용호장승축제와 제11회 어르신 효 큰잔치를 개최해 지역주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사진).

올해로 3회를 맞으며 지역주민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용호장승축제는 지역단체장과 용호복지관 이용 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승제를 올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가족단위로 참여한 주민들은 한국무용, 댄스스포츠, 캐리커쳐, 가훈써주기, 애니메이션 체험, 비누, 열쇠고리 만들기에 참여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제11회 어르신 효 큰잔치 행사에서는 제34회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7명에게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용호복지관장 혜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승이 마을 입구를 지키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듯이 용호복지관이 마을의 복지와 안녕을 기원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펼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호복지관은 이날 칠순, 팔순, 구순을 맞은 독거어르신들 위한 장수잔치를 별도로 마련했는가하면, 용호노천카페를 밤 12시까지 운영하며 복지관을 주민들을 위한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 개방했다.

천미희 기자



봉화 청량사, 차와 빛과 소리의 만남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 청량다회는 5월 11일 영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차와 빛과 소리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운산 스님의 대금연주, 박혜련씨의 가야금 병창, 신영희씨의 국악한마당, 청량다회의 차 나눔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주와 내가 하나되는 성스러운 시간이 아닐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을 다반사(茶飯事)라 하듯 평범속에 비범을 마음에 담아본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청량다회>

배지선 기자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재즈로 찬불가 연주해요

한꽃예술봉사단, 6월1일 첫 공연
무용단·재즈밴드·실내악단 뭉쳐


불교무용단 한꽃예술봉사단이 창단에 앞서 5월5일 부처님오신날 보성 대원사에서 공연하고 있다.

예향 광주에서 불교계 최초의 종합예술단이 창단된다.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 재즈, 실내악 연주자 가운데 불자들이 모여 '한꽃예술봉사단'을 결성하고 6월 1일 오후 7시 광주 KT 대강당에서 창단 공연을 펼친다.

한꽃예술봉사단은 불교무용단(단장 무화 스님), 재즈밴드(단장 유상호), 실내악단(단장 이정아)으로 구성되며 총괄 진행은 현장 스님(대원사 티벳박물관장)이 맡는다.

불교무용단은 불교 영산재에서 펼치는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등 불교무용과 화관무, 한춤 등 전통무용가 10여명으로 결성된다. 불교무용단은 창단에 앞서 5월 26일부터 4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 불교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중음악의 결정판으로 불리는 재즈밴드단은 드럼, 키타, 베이스, 피아노, 섹스폰 등 5인조 밴드로 구성된다.

5년 전부터 광주 재즈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 유상호 단장은 "재즈의 장점인 자유분망함과 즉흥연주의 맛을 살려 찬불가를 재즈로 연주해 대중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악 4중주 앙상블로 구성된 실내악단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 연주가 등 9명이 참여한다.

한꽃 예술봉사단 창단을 주선한 현장 스님은 "예술을 통해 세계가 한 가족임을 구현하고자 한다"며 "국제문화수도 광주에서 불자 예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예술을 세계에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금년중으로 후원회 결성과 법인화를 마치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꽃예술단 창단 기념 공연에는 티베트 나왕케촉 초청 공연이 함께 열려 불교명상음악도 선보인다.

글 · 사진/보성=이준엽 기자


건양대학교가 불교동아리방에 부처님을 모셨다. 사진은 봉불법회 장면. 앞줄 가운데가 관촉사 주지 태진 스님, 왼쪽 옆이 김희수 총장.

학생 학교 사찰 뜻 모아 '점안'
논산 건양대 봉불법회

충남 논산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에 법당이 꾸며졌다.

건양대는 5월 11일 교내 불교 동아리방에서 부처님 봉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불법회는 학생들과 학생 지역 사찰이 함께 뜻을 모아 이뤄졌다. 불교동아리의 불상 봉안 요청을 받은 김희수 총장이 논산 관촉사 신도회와 김성주 김용남 교수(의과대학) 등의 후원을 받아 불상을 조성한 것. 법회에는 관촉사 주지 태진스님 김희수 총장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건양대 불교동아리(회장 김동준)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20분 논산 관촉사 교무 성원 스님을 지도법사로 법회를 연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자비신행회, 불교상담교육

(사)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 스님)는 불교상담개발원과 공동으로 오는 5월 27-28일 양일간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광주전남 불교기초상담교육을 실시한다.

호남지역 불교상담전문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상담기본이론, 상담기법과 원리, 상담 현장 등의 교육이 총 1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062)234-2732

이준엽 기자

법주사 '솔잎차 만들기' 템플스테이

매월 한 차례씩 '주제가 있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는 5월 27~28일 '솔잎차 만들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1박 2일간 사찰에 머물며 직접 속리산의 무공해 솔잎을 채취해 차를 만들어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으며 속리산 생태문화 탐방, 스님과의 차 한잔, 새벽 숲길 산책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참가할 수 있고 참가비는 솔잎차 재료와 용기 구입비를 포함해 5만원. (043)543-2776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참좋은우리절, 외국인노동자 초청
봉축한마당 축제 …무료진료 실시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70여명을 초청해 봉축한마당 축제를 펼쳤다(사진).

'부처님 자비로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봉축행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육법공양을 올리고 외국인 유학생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직접 참여했다.

봉축행사에 이어 한마당 축제에는 지역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무료 양, 한방 진료도 실시했다. 금년 봉축행사에 외국인 노동자를 특별초청한 주지 회일 스님은 "낯설고 물설은 타향살이이지만 부처님에 의지해 힘을 내기바란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온누리안(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이나 혼혈아)을 위한 진료봉사, 산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준엽 기자



광산구복지관, 주민 초청 자비의 날

광주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관장 정민숙)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 주민을 초청해 자비의날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부처님 마음같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어울림 한마당에서 지역주민들은 가요공연, 어린이 댄싱 등 한마당 축제를 펼쳤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섬 속에 절이 있네

청산도 백련암


동백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청산도 백련암 전경. 가운데 3채의 벽돌집이 선방이다.

깨달음 향한 푸른 꿈 넘치네

유일한 암자…700년 역사 간직한 참선도량

완도에서 뱃길로 50여분 거리에 자리한 청산도(靑山島)는 육지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 하는 '꿈의 섬'이다.

관객 100만을 처음으로 넘긴 영화 '서편제', 그 시작은 청산도 청보리밭 사이길이다. 화사한 유채밭에서 사랑을 피우는 TV 드라마 '봄의 왈츠' 무대도 이곳 청산도가 제공했다. 이렇듯 꿈을 그려가는 이들이 하늘, 바다, 산 모두가 푸르다는 청산도에서 푸른 꿈을 노래하곤 한다.

상고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청산도는 불교도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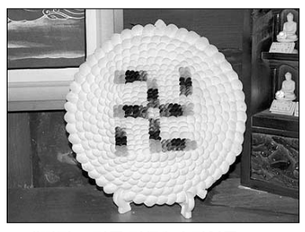
신동국여지승람 강진현 고적조에 따르면 "완도에 귀향 온 이영(1278년)의 숙부이자 출가한 혜일 스님이 청산에 들어와 절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무려 700여년 전 일이다. 첫 가람은 대봉산 중턱 당리마을 뒤편이다. 이후 대선산으로 옮겼으나 화재와 빈대로 살지 못하고 대봉산 남쪽, 오늘의 자리로 옮겨 15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이 청산도 유일의 암자인 백련암(암주 자환) 역사다. 암자에 오르면 가장 먼저 오래된 동백나무숲에 신고를 해야 한다. 숲 사이로 지나다보면 저절로 고개 숙여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웅전과 옛 요사채는 흙과 돌을 섞어 지은 토굴이다.

불단에는 어느 어부가 정성들여 만들었음직한 조개 장신구가 이곳이 섬 속의 절임을 느끼게 한다.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이들에게 사찰은 태풍에 살아남고, 풍어를 기원하는 정신적 지주이다. 얼마 전까지 백련암도 그러했다.

그러나 13년 전 자환 스님이 이곳에 주석하면서 깨침을 위해 정진하는 수행도량으로 탈바꿈했다. 선방을 다니며 정진하던 스님은 산철 없는 결제를 위해 수행터를 찾았다. 우연히 청산도와 인연이 되었고, 이후 어민들과 '번뇌를 녹이고 생사해탈하는 진짜 삶'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조개껍질로 만든 만(卍)자 장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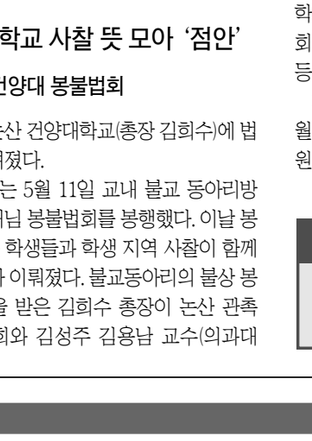
이곳에서 공부의 스승은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이다. 송담 스님에게 화두를 받아 정진하던 자환 스님은 백련암에 주석하면서 대웅전 위쪽에 작은 선방을 건립했다.

이제는 신도들도 '진짜공부'하겠다며 절을 찾아 스스로 참선을 하곤 한다. 바다로 나가기에 앞서 법당에서 다리꼬고 앉았다 가는 이도 있다.

이준엽 기자

▲찾아가기: 완도 선착장에서 청산도행 배 이용(8시, 11시20분, 14시30분, 18시) – 도청리 부두에서 버스이용 부흥리 하차 도보로 30분.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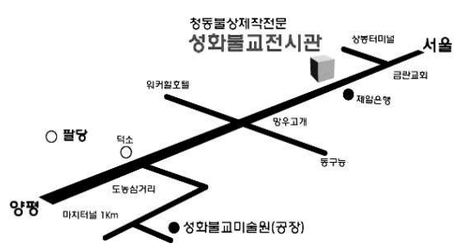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새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한문 배우실분~ 절에 오세요

태고종, 포교수단으로 적극 활용
불자는 물론 지역주민 호응 높아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서울 은평구 백련사 한문학당에서 어린이들이 한문을 배우고 있다.

"노래 부르듯 리듬을 타고 따라 읽어 보세요. 보화(寶貨)는 용지유진(用之有盡)이요 충효(忠孝)는 향지무궁(享之無窮)이니라.

이말은 보화는 쓰면 다함이 있지만 충성과 효성은 누려도 다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태고종 사찰인 서울 홍은동 백련사 구암 스님이 아이들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심보감>의 구절을 선창 하고 있다. 법당에 모인 50여명의 어린이들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한문을 열심히 따라 읽으며 쓴다.

올해 처음 열렸지만 원주 미타사 한문학당에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1백여명이 참여하는등 열기가 뜨겁다.

이런 열기에 힘입어 최근들어 태고종 사찰에 한문학당이 속속 개설 되며 새로운 포교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이나 학교 교육 등에서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사회적인 추세 때문에 한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찰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원주 미타사 정견 스님은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한자쓰기를 두려워 하며 학교 교육에서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도 잘 못느끼는 것 같다"며 "한문학당 교육은 예절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문학당을 열고 있는 사찰은 서울지역에 봉원사를 비롯해 법경사, 백련사, 부천 연흥사, 군산 성흥사, 원주 미타사 등이다. 하지만 한문학당이 의외로 지역주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포교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여름방학을 맞아 7월 충주 동봉사 등 3~4개 사찰이 개설을 준비중이다.

실제로 한문학당 운영 사찰의 대부분이 1백여명이 넘는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청 마감이 빨리돼 수강생을 비교적 많이 받는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고 종단 관계자는 귀띔한다.

지난해부터 한문학당의 교재가 다양해진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기존에는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정도였지만 이제는 <금강경> <법구경> 등의 불교경전을 교재로 사용하는 사찰이 생겨났다.

백련사 교무부장 구암 스님은 "한문교육외에 불교 포교라는 목적달성을 위해선 유교경전 일색의 교재에서 탈피해 소책자라도 불교경전을 재구성해 만들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백련사는 10년째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문 교육을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부터 서대문구청의 지원을 받아 별도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대다수 한문학당이 올해 여름방학을 계기로 청소년 중심에서 탈피해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고 있어 도심 포교의 새 포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한문학당 여는 태고종 사찰

사찰	전화번호
봉원사	(02)392-3007
백련사	(02)302-0288
법경사	(02)3445-8604
연흥사	(032)348-6603
미타사	(033)342-3350
성흥사	(063)453-0050

진각종 회당 대종사 탄생 104주년 기념 법회



"회당 대종사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창종 정신을 이어가자"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 대종사 탄생 104주년 기념법회가 5월 10일 서울 성북구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유가심인당 주교 혜정 정사의 육자진언, 육자진언의 공덕, 심인진리, 자성법신, 은혜경 등 종조법어 봉독에 이어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축사를 통해 "회당 대종사 탄생 104주년을 맞아 세상과 자연이 당체로써 설하는 은혜의 법문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각종 창종의 뜻을 더욱 크게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합창단이 음성공양 한 봉축의 노래로 회향한 기념법회에는 혜일 총인예하를 비롯한 서울교구 스승님과 신행단체장, 종립학교장, 진각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신교도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에서도 기념법회를 봉행했으며, 국내외 각 심인당은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 새터민과 함께 노인잔치



천태종은 5월 12일 단양체육관에서 '제6회 새터민과 함께하는 노인초청 효도 큰잔치'를 봉행했다(사진). 지역노인 1천여명과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 1백여명이 초청된 행사는 한민족예술단 초청 공연을 비롯해 노인 장기자랑, 구인사 참배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일 기자**



'존중과 배려' 병영문화 만들자

interview 군포교 발전기금 기탁한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



5월5일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불자대상을 받은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은 상금 전액을 군포교 발전기금으로 보시했다.

군내 종교활동 여건 개선
신앙 전력화에 힘쓸 계획

"군법사님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법당 시설 등 군포교의 제반 환경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병사들과 상담하거나 위문하기에도 많이 열악한 것을 잘 알기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불기 2550년 불자대상 상금 전액을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포교 발전 기금으로 희사한 2군 사령관 권영기 대장은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 등 군내 종교 활동 여건을 개선해 신앙 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불교의 경우 불자들이 보다 적극성을 갖고 국군불교총신도회 등 신도회에 동참해 군포교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육군 본부 불교회장, 국군불교총신도회장 등을 역임한 권 대장은 군불교 진흥과 포교, 민 · 군 불자 유대강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불자대상으로 선정돼 5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상패와 수상금을 받았다.

권 대장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군법사 확충은 물론 군 불교의 주역인 불자 장병들이 신행활동에 보다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종단 및 불자들의 관심과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권 대장은 지휘관으로서 남의 종교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 나의 종교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는 부대 행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2군 사령관으로 취임할 때도 교회, 성당을 먼저 찾아 인사를 한 다음 법당을 찾았다고 한다. 지금도 타종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신앙 전력화, 사고예방 등을 위해 군내 종교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 가르침은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종교만 강조하지 않고 타 종교도 똑같이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병사들이 종교 시설을 찾아 지난 날을 반성하고 오는 날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질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지휘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권 대장은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병영문화가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한다. 장병들이 전역을 해도 군 생활이 인생에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국민과 하나 되는 군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부하들에게도 간부들이 앞장서서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한다.

"마지막 남은 군 생활동안 장병들에게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 싶어요. 특히 종교가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더라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권 대장은 그동안 군 포교에 헌신해 온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글 · 사진=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 나십시요.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 을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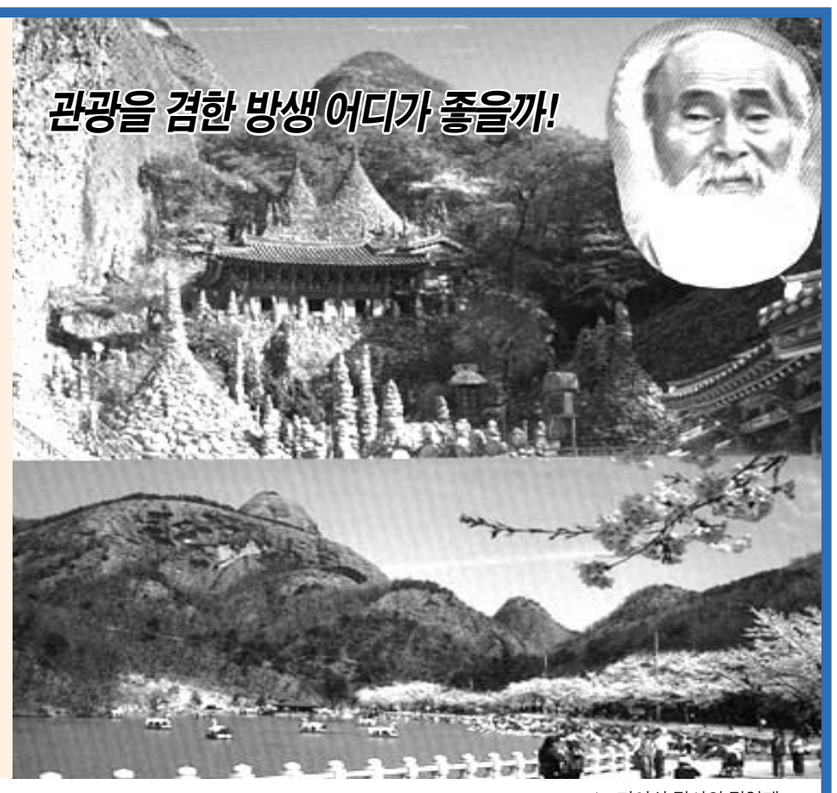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 사 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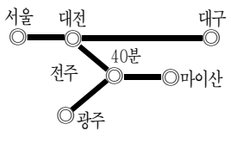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몸 가벼워지고 마음의 문 활짝

“저 앞에 보이는 다리가 동작대교예요” 모처럼의 외출을 만끽하기 위해 한강 유람선 갑판으로 나온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자가 설명하고 있다.

성북구 내 치매·중풍 어르신들 ‘연합 나들이’ 현장

어버이날 맞아 성북구내 치매 · 중풍 시설 4개단체
어르신 50여명 초청 나들이 하며 孝복지 활동 펼쳐

후원금 서로 보태며 행사 준비…부녀회는 자원봉사
기독교계 복지관도 참여 종교 초월한 화합의 場 마련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만이야”

“마 이리 오소. 갑판에 나가봤자 뭐 하노. 춥기만 하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 잘 봐두는 것이 최고야.”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하는 할머니를 붙잡고 할아버지가 갑판으로 나갔다.

뱃전에 서서 탁 트인 하늘, 매끄럽게 넘실거리는 물살을 본 할머니는 이내 기분이 풀린 듯 할아버지의 손을 슬며시 잡았다.

유영배(71)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를 앓은 뒤로 외출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나온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김영복(75) 할아버지는 날짜에 혼동을 느끼는 듯 “예전에 화요일에도 왔었잖아”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부부가 함께 외출한 것은 벌써 수 년 전의 일이다. 그 동안은 할아버지의 치매를 수발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좀처럼 외출을 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김영복, 유영배 부부 뿐만이 아니다. 어버이날 이틀 뒤인 지난 5월 10일, 평소 치매 · 중풍을 앓는 탓에 거동이 힘들어 자주 외출하지 못했던 성북구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청와대를 관람한 뒤 한강 유람선을 타며 단 하루 동안의 특별한 외출을 만끽했다. 지역 복지관들의 조직적인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살가운 보조가 없었더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었다.

어르신들 위해서라면 종교 다른것 쯤이야

이번 행사는 성북구 내 치매 · 중풍 시설인 마하나임주간보호센터, 한마음의원과 진각복지재단 산하 성북노인종합복지관과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가 연합한 덕택에 이루어졌다.

대부분 누워서 지내야 하거나 거동이 가능해도 혼자 외출하기 힘든 치매 · 중풍 어르신을 위해 지역 복지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힘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름 하여 ‘성북구 어르신 연합 프로젝트.’

한 달 전부터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해 행사를 준비하고 후원금도 서로 보탰다. 모자란 예산을 쪼개고 쪼개 버스 3대도 빌렸다. 복지관들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자 성북구 부녀회도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그간 각 단체의 ‘어르신 나들이’는 많았지만 성북구 내 복지관들이 연합해서 행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기독교계 복지관인 마하나임주간보호센터와 불교계 복지관인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가 종교를 초월해 손을 잡고 행사를 주관해 더욱 뜻 깊었다.

행사를 계획한 마하나임노인주간보호센터 이정민 원장은 “처음에는 (기독교와 불교라는) 기관 성격에 차이가 있어 연합 행사를 쉽게 떠올리지 못했다”며 “하지만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개별 복지단체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역적 복지를 펼쳐야 한다는 생각에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윤동인 부장도 “복지단체의 종교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가 가로막혀서야 되겠느냐”며 “종교와 종교가 서로 화합해 더 큰 복지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받았다.

기억도 되살리고 오래만에 몸도 풀고

연합 나들이는 아침 10시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바깥나들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은 청와대를 방문하게 되자 마냥 즐거워했다. 자원봉사자의 손과 휠체어에 의지해 청와대 관람을 시작한 어르신들은 약 1시간 가량 영빈관과 춘추관, 상춘재를 둘러봤다.

김진도(75) 할아버지는 녹지원을 둘러보며 “좋다, 참 좋다”며 연신 웃었고 치매를 앓고 있는 곽정손(78) 할머니는 영빈관을 보고 짧게나마 기억이 되살아난 듯 “젊었을 때 TV에서 청와대를 봤어. 박 대통령이 사는 곳이지”라고 회상했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팀 김재범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치매 병세가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며 “노인성 치매를 앓아 단기 기억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5월 10일이 청와대 가는 날이지?’라고 연신 물어보며 기억을 하는 등, 기대감으로 인해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몇몇 어르신은 행사 며칠 전부터 청와대를 구경하는 동안 지치지 않아야 한다며 조금씩 운동을 하기도 했다고. 단 하루뿐인 나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활력을 얻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셈이다.

이윽고 청와대 관람을 마친 어르신들은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으로 장소를 옮겨 선상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한강을 구경했다.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 밝히고…

한강 유람선에 오른 어르신들은 소년 소녀처럼 활기를 띄었다. 서로 좋은 좌석을 차지하기 위해 작은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점심식사를 하다가 멋진 풍경을 놓칠까봐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의 부축을 받고 갑판에 올라 연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들이 닫아뒀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한희순(70) 할머니가 언제부터인가 자원봉사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쁘다, 참 착하다”라고 연신 말하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의 손을 빌어 움직이는 것이 달갑지 않아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봉사자가 말없이 할머니의 밥 수발까지 정성스럽게 도와주자 감동한 것이다.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우고, 흥에 겨운 나머지 ‘찔레꽃’까지 부르며 즐거운 뱃놀이를 마친 어르신들은 이윽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앞으로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가 또 얼마 만에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밝은 등불이 하나 켜졌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사찰도 생산성시대

상 자립경제 실천하는 선두주자들
하 사찰 자립경제 이렇게

불심 나누고 수입도 늘리고



공주 영평사는 (주)영평식품 회사를 설립해 자립경제 실현은 물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사진은 영평식품에서 죽염을 만드는 모습.

"10년 후에도 우리절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을까?"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사찰의 신도가 감소하고 있고 따라서 보시금 등 사중 수입이 줄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실태다.

사찰이 회사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도 아니지만 '자립'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생산불교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생산불교에 대한 마인드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일부 사찰과 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자립경제 사례는 건전한 사원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공주 영평사
30여 제품 판매, 수익금 지역 환원

구절초축제로 유명한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생산불교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9년 사찰에서 대대로 내려온 제조법을 활용해 '장군죽염'으로 출발, 현재 2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주)영평식품을 운영하고 있다. 영평식품이 생산하는 제품은 죽염과 장류, 구절초와 헛개나무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 등 30여 품목에 이른다.

영평사의 생산불교 활동은 신도들의 시줏돈으로 사찰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체감한 주지 환성 스님의 의지로 시작됐다. 불교가 담장을 넘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 능력을 갖춰야 했고, 그 방법이 생산불교였던 것. 영평사는 영평식품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논산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원, 논산훈련소 군법당 등 후원, 재소자 교화, 지역 불우한 가정 후원 등으로 사용한다. 게다가 고용 창출과 관광수요 증가 효과를 거둬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화 선원사
蓮 이용 각종 상품 개발…냉면 공장도

1997년 황토찜질방을 개원해 화제를 모았던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팔만대장경 판각성지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불사비용과 사찰운영비 등을 수익사업을 통해 충원하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연꽃의 매력에 푹 빠진 주지 성원 스님은 3년여의 연구로 연이 피를 정화시켜주고 지방 분해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선원사 전답에서 키운 연을 이용해 연칼국수, 연냉면, 연잎차, 연근차, 연잎가루, 연근가루 등의 상품으로 개발해냈다. 지난해 12월 연요리 음식점을 연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제품을 생산해주던 냉면공장을 인수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선원사는 농민, 축산농 등 지역농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농민과 함께 관광농업연구회를 조직해 농림개발사업을 추진, 1만평에 연을 이미 분양했고, 50만평의 연꽃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양평 법화사
천일염 제조 이윤 복지사업 지원

바다와는 거리가 먼 양평에 있는 법화사(주지 형관)의 특산품은 특이하게도 전통소금이다.

형관 스님은 2003년 전남 해남의 한 염전과 계약, 바닥에 깔린 검정비닐을 걷어내고 갯벌로 바닥을 다져 소금을 생산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천일염 생산방식을 고집한 것이다.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토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다 생산량이 일반 소금에 비해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년에 만들어지는 소금의 양은 고작 4000㎏에 불과할 만큼 법화사의 생산활동은 아직 초보단계다. 많은 이윤은 아니지만, 모두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사업에 쓰인다.

●양주 대원정사
주변 약초 채취 연구 개발 생산

지장기도도량인 양주 대원정사(주지 해련)는 신도들이 많지 않아 생산불교를 고려하게 된 사례다.

산에서 약초를 채취해 한약재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나눠주던 주지 해련 스님은 3년 전부터 사찰의 각종 불사와 복지사업을 위해 상품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2년여의 연구에 힘입어 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헛개나무, 오가피나무, 산뽕나무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개발해냈다. 또 지역농가에서 직접 매입한 작물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방식 그대로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대원정사는 이를 체계적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대원산사식품'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대원산사식품은 다이어트제품과 건강보조식품, 재래식 전통 장 등 10여 품목을 개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강화 무애원
도자기 판매로 포교비용 등 충당

해병대 장병 포교로 잘 알려져 있는 강화 무애원(주지 설봉)은 생산불교의 전형을 보여준다. 포교비용을 포함해 사찰 운영비의 대부분이 도자기를 구워 마련하고 있는 것. 시줏돈의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1992년 강화도에 터를 닦은 주지 설봉 스님은 무애원내에 도예연구소와 생활도자기 판매장을 설치했다. 이 역시 포교를 위한 설봉 스님의 선택이었다. 설봉 스님은 굴껍질과 나무를 태워 남은 재로 자체 개발한 자연유약을 발라 만든 도자기를 판매한 비용으로 해병대내 호국기룡사 건립, 15년여간 매주 법회비용, 매년 네차례 장병체육대회 운영비 등을 충당했다.

●금강경독송회
믿음을 주는 장 생산 인기몰이

재가 수행단체인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수행의 일환으로 자립경제를 꾀했다. 1989년부터 직접 재배한 콩과 깨로 참기름, 메주, 간장, 된장 등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다가 점차 회원과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면서 생산불교의 틀을 갖추게 됐다. 입소문으로 전해진 금강경독송회의 제품은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금강경독송회의 장류는 재료 선별에서부터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상품은 곧 금강경독송회의 얼굴'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믿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찰	생산 품목	연락처
공주 영평사 (www.youngpyung.co.kr)	죽염된장, 죽염간장, 매실고추장, 청국장환, 청국장분말, 자죽염, 헛개나무 추출액, 헛개환, 구절초진액, 홍화씨환, 작두콩환, 백련잎차, 구절초꽃차 등	(041)857-1854
강화 선원사 (www.seonwonsa.com)	연잎차, 연잎가루, 연근차, 연근가루, 연칼국수, 연소면, 연우동, 연냉면 등	(032)933-8234
양평 법화사 (www.bupwhasa.com)	전통소금	(031)771-7780
양주 대원정사 (www.대원산사식품.com)	뽕잎캡슐, 청국장 분말, 백강청, 남청환, 비상청, 재래식 옛날 된장, 쌈장, 고추장, 간장 등	(031)855-5501
강화 무애원 (www.muaewon.org)	각종 생활도자기	(032)932-5087
금강경독송회 (cafe.daum.net/diamondyouth)	참기름,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메주 등	(054)261-2231

붓다의 경제학 (7)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음미하고, 그 노고를 기리는 날이다. 참으로 의미 있고 뜻 깊은 날이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야 할 축제의 날이다.

그러나 우리 현대사에서 근로자의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전투의 날, 투쟁의 날이었다.

보다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일부 노동운동가들은 기존 경제 시스템의 파괴를 주장하며 궐기하고 싸우는 날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

똑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극락으로 보인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인 것이다.

마음 먹기에 따라 변신 얼마든지 가능
자기의지로 고용주 또는 피고용인 되기도
자신의 도리 다하며 일할 때 '즐거운 인생'

마르크스주의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는 자본가들이 근로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호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몹시도 정의롭지 못한 곳이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세워졌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이미 오래된 오늘날에도 혹시 우리는 마르크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거 우리 사회에는 정말 소수의 자본가만이 존재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은 정말 특권층처럼 보였다.

그들에 비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했다. 더군다나 그 기업가들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한 듯이 보였다. 마르크스의 눈은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눈인 듯 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포함해 우리나라에는 수백만 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최소한 수백만 명의 기업가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사장님 소리를 듣거나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설혹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 샐러리맨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마음만 먹기만 하면 사장님 소리를 듣기 위해 변신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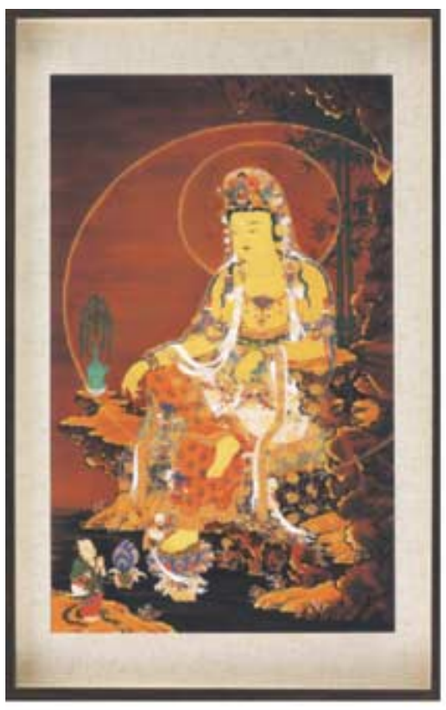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자본가와 노동자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용주가 되기도 하고 피고용인이 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어떤 때에는 고용주의 역할을, 어떤 때에는 피고용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마르크스의 눈은 혜안이 아닌 것이다.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참으로 인생은 즐거워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도리에 대하여 이렇게 설법하셨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능력에 따라 일하게 하라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하여야 한다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라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해 주도록 하라
때때로 휴가를 주도록 하라
피고용인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
주인의 물건을 아끼고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출입할 때 예절로써 대하라
주인의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

250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들리는 부처님의 음성이 진보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달마도보다 더 인기!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된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폐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천연코튼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간돌출표구로 거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앞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장만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 25,000 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매훔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뤄!

옴마니 반매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매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엄격해 범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매훔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매훔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문양을 넣어 평생 지니고 다닐때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으로 신용카드로 분할구입되며 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실전구성학
단기 속성 완성
● 운명 운세 방위학(개운 비법)
● 특별한 암기법
● 알기쉽게 풀이한 명강의
● 3인 아상이면 지방 출장 가능
백도현 구성학
011-9735-1742(서울)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척추,허리, 목,어깨,짝다리, 탈골(원인불명통증), 체형교정 사주, 작명, 풍수지리 **출장가능**
빙의(신들림), 활법, 기공최면, 전생, 급방 천도 **전문 상담사**
02)835-2399
011-817-3387

자연환경 · 수련지도법이 탁월한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홈페이지 : www.zenfast.com
◆안내 : 055)834-1115
016-849-3858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재 시 사 바라나비 경
안 49재 식 재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허년)

신기한 - 약침요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지압 뼈 교정, 정력부족, 위장병, 변비통, 상기병, 두통, 간질환, 당뇨병등 특히 만성별으로 고생하시는 분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핏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인천 해양경찰청 신축법당
해수관세음보살(관음상도 가능) 입상 4~5자 정도 크기
개인소장품도 가능
후불탱화(세로 4자×가로 6자 정도) 추대 향로 불기
대한민국 바다를 책임지고 경찰관들의 안식처인 법당 건립 불사에 수의 동참하실 인연자를 찾습니다
010-9766-2220

철야기도 ♦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
각종 경전독송 효과적인 방법지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을 드립니다
김종길 · 임명선 · 김광미 · 김경록 · 김선희 · 김민경
필요하신분 011-801-4355 전화환영
상담환영
대학입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립
노후에 회향을 잘 하실 분
조상영가천도 상담하십시오
6월6일 현충일 국립묘지에서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동참하실 분 연락바람
작중 집행으로 고생하시는 분
포교활동하실 분
스님동참환영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맨발등산

부전스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청도
011-9493-0002
011-378-22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전후)
▷구파발동 시연사
02)352-0572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지역
052)275-0829

청정한 나반도량입니다
사찰관리하며 서로 탁마하시면서 용맹정진하실 비구니 스님들과 기도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55)533-4203
011-9790-1779

법력 20년이상된 부전스님과 총무스님으로 20년이상 근무하신 스님 모십니다
종무원 및 사무원(女)구합니다 (각1명) (절에서 3년이상 근무하신분, 숙소제공 가능)
사찰 백련사
031)559-0892

평생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전세도 드릴 수 있습니다
(55세-65세)
공양주보살님모십니다
포교당도 하실 수 있습니다
018-427-2256

사찰女사무원
(45세이하)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041)673-1888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서울
(보시금 월 100만원)
011-278-1995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성
011-9350-3216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노전스님을 구합니다
▷재무국장
011-9379-1189

불교유치원 조리사 구함
(숙식가능한자)
▷강원도
011-9129-5108

공양주, 처사(운전가능) 법당보살 구합니다
50세 이하
▷대구 팔공산
011-9176-4403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수도권
011-241-0408

가난한 절이나 보살님 또는 처사가 운영하는 절 주지 원합니다
무보시로 운영해 드리며 역학 및 49재 천도재 불공의식에 능통한 법납 31년 50세된 조계종 비구입니다
011-854-8107

남,녀 재가 불자님께 공부하실 처소를 무료로 마련해드립니다
▷효은사
055)342-0379
011-856-4578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비구스님에 한함)
051)635-3744

기도 스님 및 행자 구함
경기 청평 산중 사찰임
011-722-341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54)971-7561
011-9373-1756

기도스님 모십니다
▷50~60세
053)555-6872
011-826-6872

부부 공양주 처사님 구합니다(40~50대)
▷경북 영해
054)734-5735
010-4210-9981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환영)
▷서울 북한산성
011-9350-3216

신심있는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324-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 시내
신축건물 조용한 절임
052)282-8793

기도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하루에 3번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11-589-1051
051)891-7255

가족처럼 지내실 종무보살님 모십니다 (40대)
011-9778-0408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공양주 부부 함께 같이 근무가능)
051)467-3316

창건사찰에서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처사님, 행자님 모십니다
011-259-598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소재
016-278-9166

노전스님, 제 의식 능통 하신분,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55세 이하) 모십니다
▷경북 고창
063)564-2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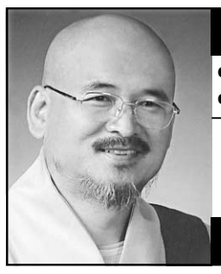
공양주 보조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한식구 처럼 지내실 분
(60세 이하)
(비구니 스님 사찰)
▷경기도 송탄
031)666-31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순창
011-603-945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전국비구니 회관
▷대한불교조계종 법룡사
011-9795-7602
02-3411-8103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경기 양주 감악산에 위치한 산림 도량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수양생활을 원하시는 부부 또는 여생을 조용히 보내실 분과 좋은 인연을 맺고저 합니다.
또한, 스님의 길을 원하시는 불자님 연락주십시오.
불교의식 공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율림선원
031)867-1801~2 / 016-703-6648

28숙 특별지도
● 명리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각 사암 등록신청 및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스님
- 스님이 되고자 하는 행자 (남, 녀)
- 동자모집 (가정이 어려운 환경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의 010-7746-5544

실버타운 소원성취 기도처
산세 수려한 청정도량
저렴한 보시금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편히 모십니다
주지 법사 010-9367-5982

경전독송기도특강(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중요함)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 지방분 환영 ● 포교활동 하실분 ● 스님동참환영 ● 통신교육 가능
★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 노사갈등 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대학입시합격기도 책임지도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 사법,행정고시 및 각종 취업기도 책임지도, 조상천도, 각종 기도불공, 생일불공
● 술,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018-789-5008 부산635-7008 서울739-5008 마산245-2662 상담은 중요합니다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혼사 지연,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매년 6월 6일 현충일
올해도 서울 동작구 국립묘지 참배객들에게 영가천도 책을 보시합니다.
동참하셔서 직접 한권씩 보시하면 무량공덕이 됩니다
대구 팔공산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요. 소원성취도가 다릅니다
철 야 기 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
효과적인 독송 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치매예방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서울 739-5008 마산 245-2662 안성 · 김해

병고, 난치, 빙의, 정신병등 무료 불기 치료 헤드림
중생들이여! 약사여래수기가피로 자성광명을 밝히소서
다른곳에서 안된분 오랫동안고생한분 일체병고 영가작용등 모든문제 대부분 즉작효과 **외국 거주자도 치료가능**
수행, 영적진도 막혀서 안나가는분 상담
비전옴기침술법, 불기공치유법, 금액단전수
삼각산마하부다사 0502-222-8485 / 011-222-8485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총재) 부교수 약간명
원전초보자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강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반,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문의 :(총무스님)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사찰터 -

● 위치: 충남아산 ● 법당: 33평 ● 요사: 90평 ● 부지: 2,000평 ● 가액: 21억

● 위치: 경기 (서울경계) ● 법당: 18평 ● 요사: 30평 ● 부지: 26,000평 ● 가액: 15억

● 위치:경기 화성 ● 총평수: 370평 ● 가옥: 30평 ● 가액: 3억 7천

● 위치: 경북 포항 ● 총평수: 700평 ● 가액: 3000만

● 위치: 경남 사천 ● 총평수: 16,300평 ● 가액: 4억 3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남한강사찰 1000평-3억
2.서울종로산중사찰-30억
3.경기광주현대식사찰-12억
4.퇴촌절터27000평-5억4천
5.여주사찰120평-전세2억
6.수유포교당15평-월40만원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서구 화곡1동 2호선 5호선 2분거리
● 8층건물 중 7층 실내평수 50평
● 도시가스와 시설완비
● 가액: 2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시설A급

02)2699-9358
011-622-4299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포교원 35평 2층
● 전세 500만원 월35만원
● 포교당 (시설비 협의가능)

018-506-40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천평 ● 법당 : 목조33평 ● 요사 : 55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에서 위치 최고
● 총평수 : 47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2천 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235-9318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 총평수 : 2,312평
산신각 5평, 대웅전 22평, 요사채 30평, 행랑채, 차고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3억5천만원(융자8천) (전세는 1억에 가능)
● 산세수려하고 솟을 용궁

033)562-7053
011-9793-7052

위치	부지	가액
• 서울	90평	4억 5천
• 안양	약 210평	11억
• 천안	약 1000평	10억
• 양평	약 2000평	13억
• 충남	1100평	전세2억
• 방배포교당	약 40평	3500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 500평, 건물 :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포교원임대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건물: 4층건물에 2층, 법당 25평, 요사채 13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900만원

016-9599-0108 소원사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화성군
● 특징: 산세수려하고 양쪽으로 계곡이 흐르며 큰 호수 있음
● 평수: 1200평
● 임법당, 요사채, 차고, 창고 있음
● 주지스님 건강 상태로 매우급함
● 가액: 1억2천만원(가격절충)

010-4604-925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1억2천5백만원

011-595-7878

토굴안내

● 위치: 충남 홍성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 가액: 2억2천만원

010-6428-112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 청량리시장안 교통아주편리,버스 · 전철 · 기차역 5분거리,인구이동 많음
● 상가건물 2층 중 2층. 50평 법당1,방3,주방, 기타시설완비, 옥상사용
● 가액 : 보증금 400만원 월20 시설,수리비2300만원

010-7135-4030
꼭 오실분만 전화요망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선원안내

● 위치 : 청주 시내
● 평수 : 40평, 2층, 법당, 방2개, 욕실
● 가액 : 300백만원 월40만원(전세가능) 시설비 1700만원

011-9393-4965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가 잔디밭

016-367-2112

도심속의 포교원

● 위치 : 부산 중구 (위치, 교통 최상)
● 평수 : 60평 (엘레베이터 유)
● 가액 : 합 5,600만원 (월50만원) 조절가

010-9250-2358
010-8678-544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최고의 위치
● 평수 : 50평, 방 2칸
● 시설: 최상의 시설 음향, 냉,난방완비 삼존불 신중 산신 조왕 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1-9269-84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토 굴 안 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 건물 3동
● 가액: 4천만원

010-5631-8439
017-401-4939

사찰부지(별장겸용)

● 위치: 천안역 10분거리
● 부지 면적: 2100평
● 산세: 산으로 둘러싸인 삼태기형
● 교통: 2차선 포장도 근접
● 가액: 25만원/평당

041)621-4411
010-3121-390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전 서구 변동중학교 부근
● 50평 방3, 주방
● 가액: 선세 2천2백만원 시설비 800만원

017-420-525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강동구 강동대로
● 평수 약 100평
● 전세 4천 월 15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10-3874-787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 수락산
● 평수: 67평 6층건물에 3층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

017-515-7527

포교원 안 내

● 위치: 대구 송현동 2층건물에 2층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300만원
● 법회즉시가능 대형주차장 有

011-450-5574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지리산 줄기
● 평수: 총 756평
● 건물: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 네개 큰창고
● 가액: 2억3천만원

010-3138-4897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89-235호
● 3층 건물중 2,3층 2층법당 34평 3층 공양간 방 3개 부엌있음 30평
● 가액: 보증금 1100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없음 (현재 법당이 비어있음)
● 포교당 최적지

010-5710-173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주시 ● 평수 : 100평
● 법단,단청 완벽함, 요사2칸
● 내용 : 물이 있고 개울옆에 절 있음
● 법당 완벽
● 전국적으로 신도가 방문함
● 가액 : 4천 8백만원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829-773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홍성군 장곡면 가송1구 48번지
● 총 700평 중 대지 172평 법당.산신각
● 가액: 1억 (가격 협의가능)

041)642-0642
010-6700-4540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주 IC 10분거리)
● 법당1. 칠성각1. 산신각1. 요사채2 전 500평 포함
● 가액 : 3억(절충가능)

011-9029-7113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 대지 : 약 270평
● 법당 : 목조기와 단청
● 요사 : 3동 황토건물, 온수기, 심야보일러
● 교통편리.산세계곡수려함
● 가액 : 상담후 결정
※ 집기 일체양도

011-9058-1051

사찰 터 및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대지 170평, 전 480평
● 가액 : 6500만원
● 산세수려하고, 수행기도처로 적합

011-594-1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 임법당 40평 부지 650평
● 시내에서 6km (5분거리)
● 가액 : 9천5백만원

054)632-10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상가주택 밀집지역, 지하철 역세권)
● 건물 45평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가능
● 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 전세 1천만원 보증금 1천만원

017-586-569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소재 (서울 30분거리)
● 대지 175평, 법당 30평 요사채 현대식 (2층건물)
● 가액 : 3억 2천만원
● 특징 : 산과 도심이 어울리는 전망좋고 교통 편리한 참 좋은 곳입니다.

016-510-3455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면 윤정리 노루실
● 대지 450평 법당 3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천만원

055)356-5322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구미 인근)
● 법당, 산신각, 심야전기
● 부지 460평
● 가액 : 1억 3천만원

011-511-0926

사찰 안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 평수 700평
●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목조), 용왕당, 미륵당 등
● 즉시법회 가능 집기일체 완비
● 가액 : 5억-7억 예상

055)973-5054
011-863-0622

명당(부귀복덕)적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184평
● 2Km이내 중산층(아)5만세대 중,고교18 · 초등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평수 종교용지 200평. 200평외 경내부지 사용가능 200평
● 법당, 신선각, 칠성각, 용왕당, 요사 주택, 절내외 화장실, 지하수 있음
※신라 7세기초 미륵사지
● 가액 : 1억 3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사찰안내

● 위치 : 강북구 수유동 (마을버스 종점에서 1분거리)
● 대지 25평, 임법당, 방2개 건평 약 25평, 창고 3평
● 가액 : 8천7백만원

02)984-2427
017-215-319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 대지: 198평
● 한옥사칸(옛집 그대로) 건물 3동, 우측동(방1. 창고) 좌측동(방1)
● 5천 500만원 (꼭 필요한 사람만 연락 요망)

011-9517-413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산방동
● 임법당 50평 살림가능
● 부처님 조성 완벽 시설완벽
● 시설비, 권리금 無 기도 수행 하실분 이사비용 약간, 조절가능
● 보증금 1000/월 30만 (전세가능)

016-9696-7585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원주시 문막읍 2층 건물 중 2층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약간 역술하신 분도 가능

010-3168-5445

절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구천 I.C에서 10분거리
● 평수: 대지 1161평 중 168평이 전용 건축허가(주택 25평, 창고 15평) 전용부분 토목완료. 건물바닥 기초공사 완료
● 특징: 주위 산세 경관 수려. 배산임수의 명당
● 가액: 6800만원

017-585-4980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상가건물 53평 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삼존불외, 후불, 신중, 독성, 산신 탱화,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2개 시설A급
●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위치좋음.
●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7-508-2675
053)651-40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390(약천사)
● 건물: 2층건물 (1층 요사채 40평)
● 법당 20평, 콘테이너 1동(거주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100만원 답사후 가액절충可

010-4528-6039

금수강산 사찰부지

● 위치: 금산 진산면 오항리 남이자연휴양림방면
● 대지 980평, 전 1,863평 답 877평, 임야 18,435평
● 건물: 황토 목조건물(100평)
● 특징: 산위에서 떨어지는 폭포 공기좋고 산세 뛰어남 민겨지지않는 주변경관
● 도로: 국도변 대형차진입가능
● 가액: 13억
● LBA 노은플러스공인

042)477-4224
019-313-4200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 영남알프스
● 부지: 950평(실 사용 1500여평)
● 건물: 법당(목조) 18평, 요사(조립식) 40평 임법당(별채)20평 기타 부속 건물
● 특징: 부지내 1급수 계곡 양면 접 2차선 인접하면서도 깊은 산속
● 참선, 기도처, 수련원, 요양원 적합 ● 가액: 4억

010-4878-3531

포교당 안내

● 45평. 경기도 양주시 대로변 (06년12월전철개통예정)
● 큰법당1. 주지실1.지대방1. (차방) 주방1, 화장실1. 대형다용도실1
● 보증금:일천만원. 월세:오십만원. 시설비.삼천오백만원
● 아미타삼존불,지장보살,산신. 후불탱화,지장,산신,신중탱화 모셔져 있으며 아직 개원전입니다

연락처: 010-8614-8410
031)841-8410
※월세가능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3층건물 중 2층. 35평
● 법당, 스님방, 공양간, 사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단, 신중단, 산신단, 영가단
● 집기일체 완비, 시설완벽. 몸만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63-271-7688
010-3038-6788

문화 · 정서 간극 극복 비지땀

interview 한국 대표 불교詩 영역 출간 노저용 교수



중견 영문학자가 근현대 불교 서정시인의 대표작품을 영문으로 번역한 책을 발간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Korean Buddhist Poems, From Han Yong-un to Cho Choung-Kyun>(영남대학교출판부)의 저자인 노저용(사진) 영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노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계간 <서정 시학>에 한국의 대표적인 근현대 시인 가운데서 불교적이거나 선적인 색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시 작품을 영역(英譯)해 연재를 했다.

한용운 김달진 서정주 등 '서정시학'에 소개된 시인 12명의 작품 112편 영어로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만해 한용운을 비롯해 김달진, 서정주, 조지훈, 오현 스님, 정현종, 고은, 황동규, 오세영, 이성선, 최동호, 조정권씨의 작품을 집중 소개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계간지 <서정 시학>에 연재했던 12명의 한국 대표 불교 시인들의 작품 가운데서 처음으로 번역한 112편을 단행본으로 역은 것이다.

"연재가 끝나고 다시 영역한 시를 보았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을 수백 번도 더 고쳤고 그러다 보니 퇴고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네요."

노 교수는 그동안 경상북도의 문화재 안내판을 모두 영역했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자문위원으로 영문 번역을 전담하는 등 번역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전문가 중의 한명이다. 그러나 노 교수는 이번에 영역한 불교시가 평생동안 번역을 한 자신에게도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토로했다.

"번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불교 문화권과 영어 문화권의 언어와 사고방식이 달라 우리의 것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과 어휘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 배경, 사상 등을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전달할지 항상 고민했고 그 과정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문화 , 정서를 영어로 바꾸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끔 바꾸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12명의 작품 가운데 노 교수는 오현 스님의 '달마도'가 가장 번역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불교적 지식이 부족했고 스님이 자신의 불교적 삶을 시로 노래한 작품이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것. 다행히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과 인연이 있어 며칠 동안 토론을 하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일화도 소개해 주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시인들의 작품을 영역한 5년여 동안 노 교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을 겪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효도가 불교시를 잘 영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의 첫 페이지

우리 고유 문화와 정서 영어로 표현하는 일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

에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To the memory of my mother Lim Gye-saeng, 1911~2003)"라는 헌정사를 쓰고 책이 발간되자마자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 책을 올렸다며 노 교수는 눈물을 훔쳤다.

1948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노 교수는 부산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T. S. Eliot and The Criterion>(1999, 영문판), <Action Francaise Condemnation & Other Essays>(2003, 영문판) 등이 있고 역서로는 데릭 월콧(Derek Walcott)의 장편 서사시 <오메로스(Omeros)> 등 다수가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발간

故 심재룡 교수, 인물 · 사건별 정리

고려시대 불교사와 사상을 인물과 사건별로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고인이 된 심재룡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그의 제자들이 <한국철학자료집-삼국과 통일신라의 불교사상>에 이어 <한국철학자료집-고려시대의 불교사상>을 발간했다.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서정형 연구원은 "불교학자와 일반인 모두가 한국불교학의 원전을 체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출간 동기를 밝혔다.

이 책은 당시 사상적으로 중요 사건과 인물을 선정하고, 관련 문헌 가운데 중요 내용을 발췌해 해설을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이 특징. 기존 고려시대 불교 자료집 대부분은 한문 원문을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고 해설, 주석이 첨부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책의 구성은 고려시대 종파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화엄과 천태사상(균여, 의천), 정혜결사와 수선사의 선사상(지눌, 혜심), 백련결사와 천태사상(천책, 보환), 고려불교계의 역사의식(일연, 각훈), 임제선과 여말의 선사상(보우, 혜근), 고려대장경의 조판 등과 관련된 사건과 인물별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노병철 기자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

불교문화연, 국제학술대회

국내외 21명의 불교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 · 생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은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지식기반 사회와 불교생태학'이란 주제로 5월 25~26일 양일에 걸쳐 동국대 중강당과 90주년 기념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국내학자 12명과 외국학자 9명이 참여한다.

분과별 주제와 발표자를 살펴보면 제1분과에 '지식기반 사회와 환경문제'를 놓고 독일 본 대학 폴 블렉 교수 외 3명이 발표를 하고 제2분과 '불교생태학과 서구사상'에서는 순천대 안옥선 교수 외 4명이 제3분과 '지식기반 사회와 미래'에서는 고려대 양형진 교수 외 1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또 제4분과와 제5분과에서는 '불교생태학의 학제적 접근'과 '미래사회의 평화와 불교생태학'이란 주제를 놓고 영국 런던대 데미안 케원 교수와 동국대 박경준 교수를 포함해 5명이 그리고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과 미국 하버드대 도널드 스웨러 교수 등 3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02)2260-8508 노병철 기자

보조사상연, 월례학술대회

'신라미륵…' 등 이색 논문 눈길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5월 20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69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송광사 강원 강사 무애 스님의 '근본불교와 선불교의 교육론 비교' 금강대 최종석 교수의 '신라미륵사상과 첨성대' 연세대 서대원 강사의 '<해심밀경>의 삼자성 고찰' 등이 발표된다. (02)733-5911

특히 최종석 교수는 "첨성대는 천문대뿐 아니라 우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우물은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용신신앙(미륵신앙)과 관련이 깊다"며 "신라불교가 귀족일변도가 아닌 서민 중심의 용신신앙이 복합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는 5월 13일 서울대 인문대학 8동에서 2006 춘계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서울대 우희종 교수의 '생명 조작에 관한 연기적 관점' 박서연 동국대 박서연 강사의 '균여의 십층탑 비유' 운문사 중강 명법 스님의 '북송시대 문의 부활과 불교의 과제' 서울 불교대학원대학 정준영 전임강사의 '초기불교 해탈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9>

효리

요즈음 한류가 동남아를 위시해서 일본, 심지어 아랍문화권까지 유행하고 있다. 한국 사람의 춤, 음악 솜씨의 탁월함 내지는 한국 문화에 반영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인간관계가 타 문화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한류의 중심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있다.

효리를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백중 백 사람이 '쇼리'라고 발음한다. 아무리 효리라고 반복해도 그 사람은 쇼리라고 듣는 것이다. 필자가 알아낸 가장 좋은 방법은 '히요리'라고 한 자 한 자씩 따로 발음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히요리, 빨리 발음해서 효리라고 따라서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듣는 소리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소리만을 듣는 것이다. 외국인들에게는 '효'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효'라고 발음하더라도, '효'라고 들리지 않는 것이다. 비록 과학적인 공기의 떨림,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 섬모와 연결된 신경의 화학적 반응이 꼭 같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외국인이라면 백발발중 '쇼리'로 발음 경험으로 알고 있는 소리만 들을 뿐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소리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빛과 마찬가지로 소리 역시 파동이므로 파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주파수, 크기 등을 분석한다. 이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심장의 이상을 파악하기도 하고 파동의 반사, 간섭 등이 다른 물질에서 다르게 일어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잠수함을 추적하기도 하고 석유를 탐사하기도 한다.

물론 병원에서 자주 사용하는 초음파 탐지기 역시 우리 몸 안의 다른 물질에 다르게 반사하는 소리의 성질을 이용한 기계이다. 최근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석해서 이상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세한 소리를 탐지하는 기술, 그리고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심장의 동맥, 심실 그리고 심실 사이 문의 이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맥을 짚어서 병을 진단한 옛 동양 의사들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몸에서 전해지는 파동을 느낌으로써,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것이다. 현대과학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 인간의 감각에 의존한다는 점이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효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지 시스템의 한계 내에서 듣는 방식대로만 듣는 것이다.

부처님은 여섯 가지 인식의 경로를 육입이라고 말했다. 소리의 경로는 귀다. 인식 작용에 의해서 몸과 머리가 그려내는 소리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려내는 소리의 인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이 만들어 낸 한 가지 방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없음', 즉 '무 안이비 설신의'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첫 발걸음인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 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붓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아로 접속하세요!!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

일주문



제19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5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19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2)735-8165



진감 · 초의 다맥 전수식

하동 쌍계사 주지 원정 스님은 5월 20~21일 경내 및 쌍계초등학교에서 '제2회 산사음악회 및 진감 · 초의 다맥 전수식'을 개최한다. (055)883-1901



통도사로 불교문화유적답사

광주불교교육원 원장 영조 스님(순천 송광사 주지)은 5월 28일 양산 통도사로 제70차 불교문화 유적답사를 실시한다. (062)228-9098



법왕사 백고좌법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5월 23일 보은 법주사 혜정 스님을 수계법사로 '보살계 및 불명 수지 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하루헌 회원전 개최

인터넷 카페 하루헌을 운영하는 선진 스님은 5월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대구불교회관 1층 목연갤러리에서 '제3회 하루헌 회원전'을 개최한다.



소년소녀가장돕기 혜원음악회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은 5월 27일 오후 7시 경내에서 '제5회 소년소녀가장돕기 혜원음악회'를 개최한다. (051)866-7771~3



청도 적천사 사생대회

청도 적천사 주지 덕현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4월 30일 경내에서 청도군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봉축사생대회를 개최했다.



'그리움…' 출판기념법회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혜종 스님은 5월 24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세 번째 시집 <그리움 여울져 오네>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51)463-0040



'이찬수 교수 문제' 해결 토론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위원장은 5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강남대 이찬수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02)2278-1141

화촉

도서출판 동쪽나라 김형균 대표(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의 장녀 보영양이 5월 20일 오후 1시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기고간군과 결혼식을 올린다. 011-288-1941

"부처님 오신 뜻 함께 나누었을 뿐…"

연등 시주금 전액 소아암환자돕기 기탁 진귀 스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참 뜻은 자비사상의 실천에 있습니다. 타 종교도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데 부처님오신날 당연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참 뜻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 보시금 1000여만원 전액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지역의 소아암 어린이 4명에게 전달한 진귀 스님(화엄불교대학 불국정사 회주 · 사진)은 "정성껏 연등을 밝힌 신도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도록 전달함으로써 부처님의 오신 참 뜻을 실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불교대학들이 지역불교 포교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타불교대학이 채우지 못한 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최근 1200나한을 모시고 화엄불교대학을 개원하게 됐다는 진귀 스님. 스님은 나한은 깨우침을 뜻하며 깨우쳤으면 자비실천행이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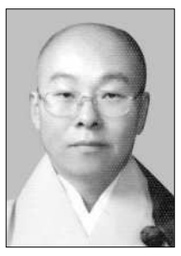
"연등을 밝히며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동시에 남의 어둠도 밝힐 수 있어야한다"는 진귀 스님은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처님의 법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포교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나눠준 돼지저금통까지 활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밝히고 동시에 세상을 밝히는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생활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며 100원, 화내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100원을 모아 두었다가 내년 부처님오신날 모두 회향할 예정이다.

진귀 스님은 부처님이 오신 참 뜻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5년 10년 이어지다보면 불교를 바라보는 불자들의 안목도 달라지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불교인재 양성은 작은 실천에서"

부처님오신날 백일장 · 장학금 전달 도완 스님



"무작정 장학금을 주자니 별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선발 방법도 마땅치 않고… 고민고민 하다가 백일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 관내 주천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백일장 시상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식을 이달 말경 갖는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영월사암연합회장 · 사진).

도완 스님이 백일장을 연 목적은 불교적 의미가 담긴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다. 장학금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도완 스님의 뜻은 무엇일까.

"불교인재양성이 정말 시급해요. 그런데 무작정 절에 나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주면 아무래도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주천중고등학교와 도완 스님과의 인연은 벌써 8년째다. 스님은 장학금을 지급해 오면서 불교학생회도 만드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학교 교사들은 최근 들어 교사불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완 스님은 내년에는 영월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는 백일장을 열 생각이다. 한명우 기자

조불련 중앙위원장에 유영선 중앙상무위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유영선(66 · 법명 성보 · 사진) 조불련 중앙상무위원이 5월 8일 선출됐다.

유영선 신임 위원장은 남북고위급 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실무회담 대표,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3 · 1민족대회 대표 등으로 참여하는 등 남북 정부간 교류는 물론 불교교류에도 정통한 인물이다. 조불련 중앙상무위원, 범민련 북측 본부 중앙위원, 교육성 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 박영석 대장



동국대 건학 100주년 사업 일환으로 에베레스트 횡단에 나선 박영석 대장(동국대 체육교육 83학번 · 사진)이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

동국대측은 "박영석 대장을 비롯해 오희준, 이형모 대원이 5월 11일 오후 2시 50분 경 중국 쪽 루트를 통해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고 알려왔다"며 "정상에서 3시간 정도 머문 뒤 네팔로 넘어가 횡단에 도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영석 대장은 지난 3월 25일 에베레스트 횡단에 나섰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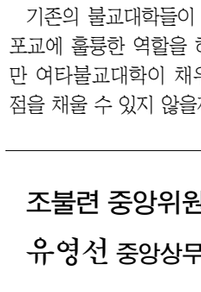
5월의 환우 박진우군

생명나눔, 손발에 괴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자라던 박진우(5 · 사진)는 올해 1월 갑자기 기침하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손, 발에 괴저가 생겨 병원에서 급성성인 성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판정을 받았다.

진우는 괴저가 생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02)734-8050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은비 기자



보문종 원로회의 의장 법준 스님 6일 입적

보문종 원로회의 의장 법준(法俊 · 사진)스님이 5월 6일 오전7시 30분 서울 보문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2세, 법랍 69세.

1937년 서울 보문사에서 출가 득도한 법준 스님은 보문사 주지와 재단법인 대한불교보문원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1984년부터 재단법인 대한불교보문원 상무이사를 맡아 왔다.

또한 2005년 12월부터는 보문종 원로회의 의장 소임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끌어왔다.

영결식은 8일 서울 보문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조용수 기자

전국불교산악인련 6대 양춘동 총재 취임식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5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6대 양춘동 총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양춘동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전국을 권역별로 순방해 지역 불교산악인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한편, 빠른 시일내 '사단법인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월하 시인 <그대를…> 출판기념회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당선자 모임인 신수회 회원 김월하 시인의 세 번째 시집 <그대를 꽃이라 부를까> 출판기념회가 5월 10일 서울 삼일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문병근 부산대 경영대학원장, 이주철 한맥문학가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마하사 봉축 차량컵燈 2000개 보시



대구 마하사 주지 재원 스님은 5월 4일 신도들과 함께 봉축 차량컵등 2000여개를 지역시민들에게 나눠주며 부처님이 오신 뜻을 기렸다. 재원 스님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이 나셨듯이 대구시민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맞고 싶어 차량용 컵등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불자 세상보기

법 현
열린선원 원장

청소년, 어른들의 거울

어린이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엇인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법화경의 가르침을 빌어서 알아보면 '여래께서 알고 계신 것을 제시(開)하고 가르쳐서(示) 제대로 알게(悟)하고 여래처럼 되게(入)' 하기 위해서이다. 멋있게 나타내면 중생을 구제해서 부처님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요, 조금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알아주는 이들을 많이 만들어서 남이 아닌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맘처럼 쉽지 않아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그래서 2천 년 전 동굴인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새겨진 글의 내용을 알아보니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내용이라고 한 것 일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그래, 그래' 하며 마치 여래의 법문을 들은 제자들이 '사두! 사두!' 하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벽화를 그린 이가 어른이라서 그렇지 만일 아이들이 그렸다면 '요즘 어른들은 도무지 이해하려들지 않아' 꽉 막힌 답답한 존재라고 할지도 모른다.

교육학에서도 말하듯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어른들의 가치관과 고민을 이해하거나 이어 받을 수가 없다. 학교수업 외에도 학원에 나가 몇 시간씩 보내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컴퓨터 게임하느라 뭐 다른 것을 고민하거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를 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눈이 빨개지도록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손바닥 안쪽 끝에 굳은살이 배이도록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다가 잠이 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여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을 흘리고 있다. 그런 청소년들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거나, 자신의 몸과 마음 앞에 펼쳐지는 경계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담배나 술 심지어 본드 등 환각제나 이성과의 육체적 탐닉 등에 쉽게 빠져들고 처음 만난 날부터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을 새며 노닥거리다가 자신의 본디 일인 공부나 활동에 장애가 생겨도 아랑곳하지 않는 일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꽤 된다는 보고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누구에게나 물어보아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의식 없는 의원들이, 지각없는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들 한다.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투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도,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도, 자녀들의 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도 바로 다른 이가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온누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내 마땅히 평화롭게 하리다'는 부처님의 탄생게는 문제해결의 책임과 권한이 다른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여론 형성층에 있는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여가를 더 많이 주어서 문화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리 종교단체 특히 불교계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청소년들의 재미까지도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분야의 노력에 대해 3대종교를 비교하면 불교는 제일 처진다는 평가이다. 입만 열면 2천만 불자와 1700년의 역사만을 내세워서는 아무런 영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꼭 알맞은 '눈높이 교육(對機說法)'을 하셨듯이 부처님의 후예인 한국불교 내의 종단과 범불교기구 및 청소년 교화단체, 불교관련학회와 연구소 등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종단 차원의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미래 불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 단체로서, 파라미타는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출발하였고, 또 조계종 청소년 포교 분야를 대표하면서 나름대로 업적을 이루어 왔다. 지속적인 청소년 지도자 양성과 청소년 포교를 위한 기초 자료 집적, 전국 규모의 캠프를 통한 청소년 불자들의 참여 마당 확대 등은 그 대표적인 공헌이라 하겠다.

그러나 과연 파라미타가 종단 차원의 기구라는 위상에 걸맞는 내실있는 활동을 해 왔는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 정도 위상의 기구라면 누가 하더라도 그만큼은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업적으로 든 캠프만 하더라도 종단의 위상을 업고 숫자상으로는 대규모라 할 만한 전국적 행사를 치렀지만 과연 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였으며, 또 치열한 모색을 통해 해마다 발전되어 왔는가에는 의구심을 갖는 이들이 많다.

10살 파라미타의 '미래' 열기

그것은 파라미타의 다른 사업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타성적으로, 주어진 틀 안에서 적당히 하는 모습들이 드러난지 이미 꽤 시간이 흘렀고, 그런 세월 속에 조직의 해이 현상까지도 드러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창립 10주년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그보다는 뼈를 깎는 엄한 반성으로 재창립의 각오를 다지라고 주문하고 싶은 것이 지금 파라미타의 현실이 아닐까 싶다.

미래불자 양성에 대한 불교계의 전반적인 무관심과 종단의 부족한 지원 속에서 애를 써온 분들의 노고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노고들이 좀 더 발전적인 지향을 지니고 통일적,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상승작용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확충시켜나가야 한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추진력을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 그 위상과 역할로 보아 실제로 파라미타가 아니고는 미래 불교를 열어 나갈 주체가 없다.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창립 10주년을 새로운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미래 불교를 열어가는 파라미타의 쇄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본연의 임무

"하잘 것 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게 해서는 안된다. 방탕과 사치를 배워 탐욕을 생기게 해서도 안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익히고 배우되,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법구경〉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가 한총련 탈퇴 및 '탈정치화'를 선언한데 이어 동국대, 단국대, 경희대 등의 총학생회도 한총련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하는 근본 이유는 학생회가 정치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본연의 학생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전국 대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다수가 정치투쟁 일색의 학생운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대학의 총학생회가 '정치나 사회문제(6.4%)'보다 '학생이나 학내문제(89.3%)'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본연의 임무는 당연히 학업에 매진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관심과 욕구가 다양해진 요즘, 과거와 같은 일방적 학생회 운영은 당연히 환영받지 못한다. 학생회 역시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려는 학생회의 노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한총련도 대다수 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때다. 변화하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멀어지는 한총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실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외도에 이끌리는 일이 없다.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걸어간다" 〈근본경전〉

■김두식(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동국대 반드시 로스쿨 유치해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동국대 100주년 기념식에서 "로스쿨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라"는 법어를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불교계 특히 종단이나 재단이 종립대인 동국대에 대한 거의 로스쿨 무관심에 큰 실망을 느낀 대다수 불교인들은 이번 법전 스님의 법문을 크게 반기고 있다. 법전 스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부터 불교계가 단결하여 동국대의 로스쿨 유치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기독교계 대학들은 이미 로스쿨 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시라도 빨리 불교인 발기로 동국대 법학대학원 유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더불어 발전기금 모금 등 대대적인 불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불암산(붓다뉴스)

어린이 없는 봉축행사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겹쳤던 올해 봉축법어는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이었다.

불교계 신문과 서울시청 앞에 세워진 장엄물 등을 통해서 이번 봉축법어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불교계가 이를 통해서 '어린이 포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다. 또 4월 30일에 열렸던 연등축제 때에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었다.

때문에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연등축제가 열리는 견지동 조계사 일대로 나들이를 나갔다. 하지만 작년과 별반 다름없는 행사들로만 꾸며진 연등축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피곤해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마땅히 쉴 만한 쉼터도 없었다.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주변의 사찰 여러 곳을 찾았지만 그곳의 사찰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흔히 '보살불교'라 불리는 한국불교의 현실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어린이나 젊은층들을 위한 봉축행사 준비는 전혀 눈에 띠지 않았다.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불교, 변화의 노력을 기대한다.

김갑덕(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도와주세요

교도소에 노래방기기를…

일주일 전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재소자였습니다.

이제 출소해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광주교도소 불교반 식구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건반악기를 오래한 탓에 불교반에서 법회를 볼 때마다 의식곡들 반주를 도맡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출소하면서 반주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교반 식구들은 찬불가도 듣고 싶고 부르고 싶어합니다. 반주자를 구할 수 없어 풍경소리에 요청을 해 찬불가 CD와 악보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 차에 현대불교신문에서 군포교를 위해 노래방기기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많이 났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군포교하는데 반주기를 기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업보 때문이기는 하지만 자유를 박탈당하고 새 생활을 찾기 위해 신행생활하는 재소자들을 위해 포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신을 찾으려고 공부하는 이들이 의식곡도 부르지 못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기증해주실 분은 없으신지요. 두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영춘

'현대' 만평 심 민 섭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22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개강안내 5월 24일 10:00~18: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수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성명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연정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觀音聖地 休休庵

破 億劫 沈默 海中智慧 觀世音菩薩 現身 道場

휴암(休休庵)은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팔만사천 무진번뇌 망상을 모두 놓고 쉬고 또 쉬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쉰 사람이 묘적전(妙寂展)에서 기도를 드리면 묘하게 그 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라는 뜻으로 묘적전이라 하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사부대중들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

휴휴암이 지어진지 10년이 되었고, 5년전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관음보살상은 머리에 화관을 쓰고 가슴에는 감로수 병처럼 바위가 튀어나와 있으며, 발밑에는 좌대바위가 있고 이마 칸에는 일곱 사람



◇화천수 불보살 세계를 고려 불화로 그려 모신 다라니 굴법당.

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연잎바위가 있다. 또 발 옆에 연꽃 모양으로 바위 꽃이 3년 전부터 피기 시작하여 볼수록 계속 또렷해지고 있다. 5년 전 음력 9월 24일 관음재일날 관음성상에 점안을 해 드렸다. 전날 철야기도부터 승용차는 물론 대형버스가 1백대 넘게 와서 성황리에 점안식을 마쳤다. 홍법주지스님은 "휴휴암에도 사람 좀 많이 오게 해 주시라고 천일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로 관세음보살님의 꽃이 피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과 신통력이 여실히 증명 된 것"이라며 찬탄 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휴휴암 앞바다에 떠올라 계시는 해중지혜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자연의 아름다운 연화법당에서 기도드리고자 전국 각처에서 많은 불자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휴휴암 사부대중은 요즘 신묘장구대다라니 100만독(讀) 천일철야 정진기도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경은 모든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원력으로 이루어진 신묘한 진언이다. 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드릴 때는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서두르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빠뜨리거나 틀리지 않게 천천히 염불수행을 쌓아나가면 업장은 스스로 소멸되고 산란한 마음이 정화되어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력으로 모든 원이 이루어진다. 다라니 주력을 오래도록 많이 지송한 사람은 신통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옷깃만 스쳐도 신통의 힘을 받으며 대다라니 그 자체에서도 신통력이 나온다고 했다.

모든 번뇌 쉬면 몸도 마음도 편안
경내 전체가 연화세계…

홍법 주지스님은 "관세음보살님께서도 과거 오랜 겁 전에 초지보살로 계실 때 천광왕정주여래 부처님으로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 법문을 듣고 팔지 보살의높은 경지에 껑충 뛰어 지금의 천수천안관자재보살님이 되신 것입니다. 초지에서 팔지에 이르려면 수만 겁을 닦아도 어려운데 다라니 법문 한 번 듣고 수행정진 하여 지혜가 열리고 신통력이 갖추어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몸은 자마금색이며 얼굴빛은 염부단금 빛과 같이 온화하고 아름다우며 미간의 백호상에서는 팔만사천 가지가지 빛이 쏟아져 나오고 그 빛 속에 비치는 중생들을 살피고 제도하시는 대성자모 관세음보살님을 알고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장에 가서 과일과 나물을 사서 지게에 지고 산을 올라와 공양을 지어 상단부터 일주일씩 각단마다 기도드리고 다시 삼칠일기도와 백일기도, 다라니 백만 독 천일기도를 드렸고, 지금은 천만 독 원을 세우고 주력 정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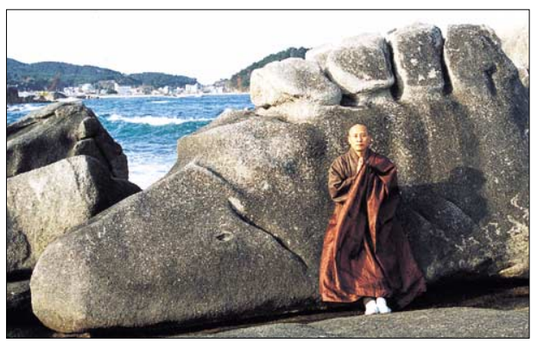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집"은 휴휴암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값 15,000원

다라니 기도는 일반 기도보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느 단계만 지나면 편안해지고 신심이 절로 나서 기도 성취가 빨리 옵니다. 다라니진언을 오래도록 많이 지송하게 되면 식이 맑아져서 귀신이나 천신들이 보이는데, 이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심의 갑옷을 두텁게 입고 그 어떤 유혹이나 실험을 당해도 물러서지 말고 지성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백일기도와 천일기도를 여러 번 드린 공덕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친견하였습니다. 휴휴암에서도 기도 중에 두 번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후로 바다에 무지개가 자주 뜬 자리를 살펴보니 관음성상이 물위에 떠올라 쉬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라며 대다라니 진언의 소중함을 설파 하셨다.

이처럼 대다라니의 기도에 관한 홍법스님의 원력은 "신묘장구대다라니 해설집"이라는 책으로 표현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신묘장구다대라니 주력 속에 푹 빠져 지나다 보니 다라니에 나오는 불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린 불화가 아닌 것이 안타까워 하다가 원을 세우고 다라니 굴법당을 10년 만에 완공하여 불보살세계를 고려불화로 그려모시고, 다라니를 모르고 기도드리는 불자들을 위해 이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료를 모아 노력을 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수다라니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지송하는 소중한 경문입니다. 모든 불교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밀한 진언을 외우고 간직하며 관세음보살을 머리에 이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 정진해 나가면 불보살세계를 체험하고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다라니 춤을 만들어 연습 중에 있으며 완성되면 참신한 불자들에게 전수하여 사찰이나 세간 곳곳에서 한가로이 다라니 춤을 추며 마음 닦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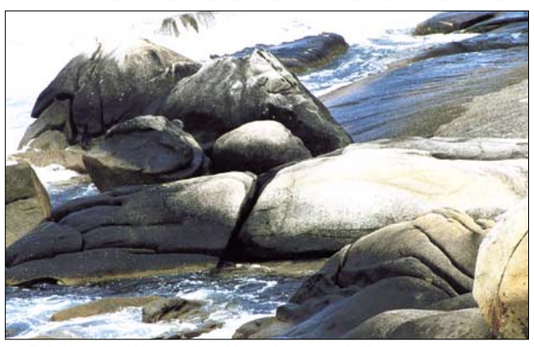
동해안 기도성지로써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 망상을 쉬는 곳 휴휴암.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휴휴암. 관세음보살님의 큰 원력으로 쉼터를 찾게 될 것이다.



◇연화법당 발가락 바위앞에서 합장하시는 휴휴암 주지스님.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발바닥 바위.



◇휴휴암 해중지혜 관세음보살 손바닥바위, 손등바위.



홍법스님은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 주지, 태백산 갈래 정암사 적멸보궁 주지,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주지직을 역임하시었다.
이 후로도 10여 사찰 주지직을 역임하시고 현재 관음성지 휴휴암을 창건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靜)에 들어 지내고 계신다.

휴휴암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033)671-0093,0095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5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578 호

아이들 눈에서 부처를 봅니다



향기로운 도반의

12년간 명상반 지도 제천 봉양중학교 최시선 선생님

이제 갓 어린이티를 벗은 까까머리 중학생들이 하루 종일 '유쾌한 소음'을 뿜어내는 제천의 봉양중학교. 전교생이 120명에 불과한 이 학교는 수요일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적막감에 싸인다. 나뭇잎만 굴러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린다는 이 아이들을 묵언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최시선(44) 선생님이 진행하는 요가명상반 수업이다.

5월 15일은 또한번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의 날'에 언론매체들은 여러명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발굴 소개한다.

17년째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최시선 교사도 이런 점에서 빠질 수 없는 선생님이다. 최 교사는 자신이 머무는 학교 어디에나 명상반을 개설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별명이 '최명상'일까. 하지만 '명상'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다소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를 생각했다면 오해.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윤리 과목을 맡고 있지만 최 교사에게선 '개구쟁이'의 모습마저 느껴진다. 봉양중학교를 찾은 5월 3일, 마침 윤리 과목의 인물학습 순서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배워보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부처님도 처음부터 성자(聖者)는 아니었어. 너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아이였던 시절도 있단다. 하지만 부처님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깨달은 이'가 되었던 거야."

1986년 해군으로 복무할 당시 우연히 군 법당을 찾은 그는 한 권의 불서를 통해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

"홍법원에서 펴낸 <불교의 이해>라는 책이었을 겁니다. 책에는 그동안 제가 숱한 밤을 새며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이 모두 담겨있었지요."

그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최 교사는 군 전역 후 청주 관음사 청년회 활동을 하며 '청소년 포교'의 원력을 세우게 됐다. 교편을 잡고 있던 그로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자'는 소박한 바람에서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은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을 불교에서 찾는다면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나 인터넷 등 화려한 볼거리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이, 바깥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는 뜻에서 명상의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95년 처음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청주농고에 '명상반'을 만들었다. 매주 <명상수련>이란 소식지도 만들어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나름의 문서포교를 시작한 것이다. 이 소식지의 내용은 이후 <청소년을 위한 명상이야기>(불광출판사)로 발간됐고, 명상반을 지도하며 느꼈던 경험은 파라미타 월례세미나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최시선 교사가 지도하는 요가 명상반에서 아이들이 명상을 하는 모습.

"학생들은 불교나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고 지겨운 걸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마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일종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제 산만하고 말썽꾸러기였던 아이가 명상을 통해 차분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명상의 효과에 대한 그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졌다.

97년에는 파라미타 청주지회 회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청소년 포교에 나섰다. 당시만 해도 청소년 포교의 개념이나 필요성이 널리 퍼지지 않았던 터라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청소년 포교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파라미타의 존재를 알렸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청주지회 발대식에는 600여 명의 학생과 선생님이 참석했다. 이후 공립학교 3곳에 파라미타를 조직했고, 청소년 어울마당과 백일장, 봉사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자신의 뜻을 차근차근 펼쳤다. 99년에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포교활동에 대한 공로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이 수여하는 청소년부문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상과 함께 그가 아이들과의 소통 수단으로 선택한 것은 '글'이다. 그가 펴낸 두 권의 책 <학교로 간 붓다>(시공사)와 <소똥 줍는 아이들>(아름다운인연)은 각각 불교와 인도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소개한 책이다.

"이름: 붓다. 성격: 호기심 왕성함. 궁금한 것은 꼭 알아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임."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의 글은 친근하다.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전달하자. 대신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자"는 것이 최 교사의 뜻이기 때문이다.

"웃는 모습을 보세요. 그야말로 '생불(生佛)'아닙니까. 처음엔 말 안 듣는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했지만, 한 생각만 바꾸니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변하니까 대상도 변한다고나 할까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바로 부처가 보입니다."

선생님이 되고 판사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결국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대하다 보면 화낼 일도 없다.

수업시간에 졸거나 떠드는 아이를 봐도 야단을 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최 교사는 이를 '내 마음 속에 잠시 머문다'고 표현했다. 그러다 보면 화가 가라앉고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최근 제천으로 자리를 옮긴 후 파라미타 충북지부 제천지회 창립을 위해 힘써왔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힘든 줄 모르고' 추진해 온 일이지만, 불자 선생님을 찾아내고 그들을 청소년 포교의 도반으로 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6월 1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발대식을 여는 제천지회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온 그를 남들은 '미쳤다'고 표현하지만 최 교사는 청소년 포교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로 받아들인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이미 아이들은 부처이고 제가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내면의 행복 찾아주고자 명상 도입
✓ 차분해진 아이들 보면 믿음 강해져
✓ 머무는 곳마다 파라미타 지회 창립
✓ 동화책 발간 등 문서 포교에도 앞장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말썽꾸러기들이지만 최 교사는 아이들의 눈에서 불성(佛性)을 읽는다. 그가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는 이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 · 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모니터 별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2004-8207, 8210 (현대불교 영업2팀)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2> 불상의 광배를 잘라 거지에게 주다

미술사를 연구하는 이들의 표현처럼 불상도 시대에 따라 모습을 달리해 왔다. 불교의 전성기인 신라 고려시대 불상이 경건함과 아울러 미적인 성숙함이 극치에 이르렀다면, 수난기인 조선조에는 사각형얼굴에 약간 움츠린듯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요즘은 풍성하고 넉넉하여 복스런(?) 모습보다는 갸름한 미남형 불상이 뜨고 있다. 게다가 두른 가사까지 날로 화려해진다. 이 모두가 컬러TV 이후 비주얼한 것을 추구해온 시대적 영향의 반영으로 보인다.

선사들은 불상이라는 외형 속에서 '불성(佛性)'이라는 내면세계를 찾아내려고 애썼다. 가끔 도를 넘은 파격적인 모습은 '기행(奇行)'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선종만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면모라고 하겠다. 존경과 신성함 그리고 예배의 대상인 불상마저도 선종의 납자승려들에 의해 가끔 수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굶주린 거지에게 금박광배 잘라준 영서선사

화내는 대중 향해 "相에 집착 말라" 꾸짖어

'불조(佛祖:부처님 같은 조사급 선사)'라는 표현에서 보듯 때로는 '간 큰 선사'들이 등장하곤 한다.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 선사의 이름인 '천연'은 '천진난만하다' 혹은 '천연덕스럽다'라는 의미다. 이것도 마조문하에서 공부하던 선사가 천일째 되는 날, 무슨 견처(見處)가 났는지 법당에 들어가 성상(聖像)의 목에 걸터앉는 기행을 연출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대중들이 놀라 방장인 마조선사에게 일러 바쳤다. 마조선사가 법당으로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꾸중은커녕 도리어 반쯤 칭찬을 했다. "천연(天然)스럽도다."

그러자 바로 내려와 예배드리며 "스님께서 주신 법호(法號)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대중은 모두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뒤부터 '천연'이 그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뒷날 '단하소불(丹霞燒佛)'에서도 보듯 목불을 태워 사리를 찾는 '정말 과격한' 광경을 연출한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정도의 지나친 파격도 아니면서 아름답고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일본의 명암영서(明庵榮西 1141~1215)선사의 일화는 선종만의 독특한 모습과 대중의 일반적인 불상 정서를 함께 만족시키면서도 당신의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영서선사께서 건인사(乾仁寺)에 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병들고 굶주린 거지가 찾아왔다.

"보시다시피 제가 병이 들어 처자식에게 먹일 것이 없어 모두가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도와줄만한 소유물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선사는 한참 궁리를 하더니 불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금박광배를 잘라 가지고 왔다.

"이것을 팔아서 쌀이라도 사시오."

그리고는 친절히 위로하고 돌아가게 했다. 이튿날 불당에 들어간 대중들은 난리가 났다. 급기야 대중공사가 벌어졌고 분기탱천한 대중과 영서선사가 맞붙었다.

"불경(不敬)스럽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선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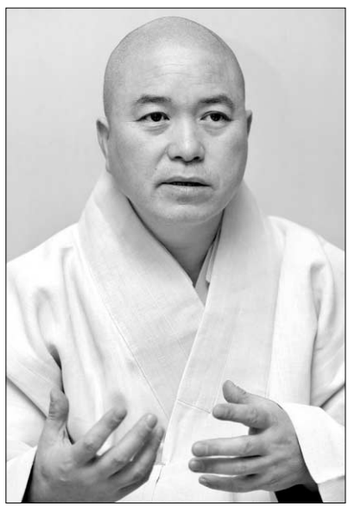
"무엇이 지나치단 말이오. 나는 불상을 파괴하지 않았소. 단지 부처님의 뜻을 행했을 뿐이요. 부처님도 나처럼 불쌍한 중생을 보셨다면 당신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라도 도움을 주셨을 텐데 광배 정도가 무슨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는 오히려 대중을 꾸짖었다. 결과는 선사의 판전승. 불상이라는 상(相)의 모양에 집착하는 대중들에게 상(相)을 떠난 부처님의 진상(眞相)을 보라고 선사가 방편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거지도 거지가 아니라 대중이 "모든 상(相)이 상(相) 아님을 볼 수 있다면 여래를 볼 것(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이라는 <금강경>의 법문을 다시금 새기도록 만들어준 선지식의 화현이라 하겠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주문 외듯 호흡을 챙겨라

딱 1분만 숨을 참고 수영을 해보자. 금세 숨길이 끊기고 숨통이 조여 그 자리에서 헤엄을 멈출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막혀 곧장 몸은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너무도 당연한 이 현상이 수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물과의 마찰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헤엄'이 수행이라면, '음~파!'는 수행의 바탕이 된다. 호흡이 수행이 되는 셈이다.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이처럼 중요한 호흡을 수행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부처님의 생생한 호흡법을 담은 빨리어 <호흡관법경>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을 펴낸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사진)에게 물었다.



미산 스님에게 듣는 일상에서의 호흡명상법

▲호흡이 왜 중요한가?

-수행은 순간순간 깨어있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마음의 움직임', '마음 쓰쓰이'를 순간순간 살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호흡은 현재 이 순간으로 돌아오도록 상기시켜주는 도우미 역할을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준다.

▲수행이나 일상생활과의 관계는?

-호흡은 '물'과 같은 존재다. 모든 수행법의 배경에 호흡이 깔린다는 의미다. 운전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운전자가 위빠사나든 간화선이든 수행법에만 집중한다면 신호등도, 끼어든 차량도 못 봐 사고가 난다. 그럼, 그때 '호흡관법을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신호가 걸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가 언제 바뀌나 마음을 내지만, 호흡관법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기 호흡을 관찰한다. 그러면 밖으로만 향하는 조급한 마음이 안으로 쏙 모이면서 집중력이 강화된다. 이처럼 호흡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놓지 않게 한다.

▲<호흡관법경>은 어떤 경전인가?

-초기경전에서는 사념처관법(四念處:몸, 느낌, 마음, 법을 대상으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나 호흡관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들고 나는 숨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호흡관법은 <호흡관법경>의 핵심이다. 들숨과 날숨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사띠를 키우는 호흡관법이 익숙해지면, 수행법 선택이 수월해진다. 사마타로 갈지 위빠사나로 갈지 <호흡관법경>은 방향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호흡관법경>은 또 삼매와 지혜를 함께 닦을 수 있는 체계를 전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사념처 수행과 <호흡관법경>의 관계는?

-<호흡관법경>에서는 사념처 방법이 큰 뼈대를 이룬다. 그 골격에 4가지 방법이 세분화돼 총 16가지 단계로 구성돼있다. 신념처의 주안점은 사마타 계발이다. 나머지 수·심·법념처는 지혜 계발 즉, 위빠사나이다. 여기서 호흡은 몸, 느낌, 마음, 법이든 상관없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들숨과 날숨 등 숨에 대한 자신의 마음상태를 관찰하는 심념처. 숨 자체의 무상성을 알아차리는

일상 생활 속 기다려야 할
바로 그 순간 호흡 관하라

밖으로 향하던 조급한 마음
안으로 모이고 집중력 향상

법념처 등 호흡을 통해 사념처 수행이 이뤄진다. 가령 수념처에서 아무리 느낌을 관찰해도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없을 때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마음관찰도 마찬가지. 마음에 어떤 것이 관찰되지 않을 때는 배경에 있던 호흡이 관찰되게 된다. 호흡과 같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호흡관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교는 자연호흡,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을 강조한다. <호흡관법경>에서는 호흡의 장단, 완급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을 알아차리라고 한다. 먼저 코끝이든 코언저리든 윗입술이든 어느 한 지점을 택해야 한다. 들숨과 날숨의 오가는 숨길이 어느 부분에서 명료하게 느껴지는지 자각하고, 자각된 그 부분을 초점으로 정해 그 부분에 숨길이 지나가는 것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 초점을 옮기면 안 된다.

▲하지만 불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호흡의 가치를 간과하기 쉽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헐떡이는 삶을 산다. 자신의 마음이 산만할 수밖에 없다.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어제 있었던 언짢은 일을 곱씹는다. 이때 수행은 흩어진 마음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게 한다. 이 때 호흡은 '지금 여기'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 도구다. 지금 정신없이 바쁘다면 심호흡을 해보자. 그 숨 상태를 바라보면 곧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경험을 할 것이다.

▲어떻게 호흡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는가.

-주문 외듯 호흡을 챙기면 된다. 순간순간 숨과 함께 깨어있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여기'하고 되뇌이기다. '지금 여기' 하면서 숨을 인식해 돌아가는 것이다. 또 숨을 놓치게 되면 다시 '지금 여기'를 주문 외듯 자신의 숨을 다시 인식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익숙해지면, 사념처 중 하나를 선택해 본격적으로 수행에 들어가면 된다. 물론 초심자에게는 호흡관찰이 금세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 '지금 여기' 하면서 계속 들숨과 날숨을 계속 바라봐야 한다. 과거에 붙잡혀 있고, 미래에 도망가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여기'의 숨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도 호흡관찰을 놓치기 쉽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호흡관법은?

-하루 중, 잠시 호흡을 관찰하기 좋은 시간이 있다. 가령 엘리베이터를 기다린다든지, 점원이 영수증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영화관에서 표를 사기 위해 줄서야 할 때가 있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답답하고 쓸데없는 시간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마음을 챙겨 현재에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자투리 시간도 유용하다. 순간순간 마음챙김의 수행으로 버려진 시간을 언제라도 살려 쓸 수 있어야 한다.

글·사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醫通(의통)·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神 임상최면사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神 치유명상가

특별전수과정
● 전수일 : 2006. 5. 19 (금요일) 14:00 - 18:00 (7회 과정) (선착순 10명 제한)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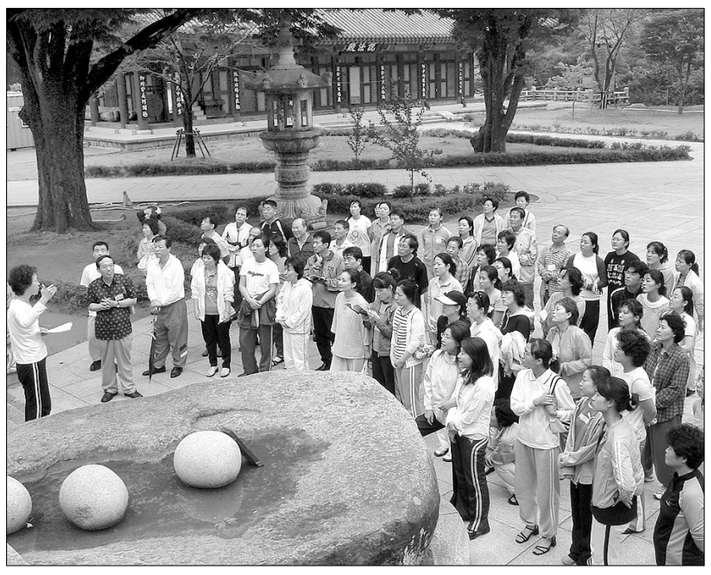
조상 영가 보는 비법	
조상 천도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교사불심 전국 조직망 구축

교사불자련 16개 광역시·도에 지부 창립
출범 9년만의 결실…조직 강화 박차


올초 금산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전국교사불자연합회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올 2월 열린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정기총회.

교사불심이 전국 조직망을 구축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신연섭, 이하 교사불자련)는 4월 23일 울산 정토사에서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불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불교세가 약한 이 지역에 울산광역시 교사불자회의 깃발을 세웠다. 이로써 교사불자련은 출범 9년 만에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1곳 이상의 지부를 마련, '일터'를 생활불교의 마당으로 넓히기 위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마무리했다.

무엇보다도 울산교사불자회의 이번 창립은 교사불자련이 올 한해 중점사업으로 내건 '조직 강화'에 부응한 결실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교사불자련은 올 2월 김제 금산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미결성 지부·지회 창립 지원과 '불자 1분 더 모시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조직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또 울산에 이어 목포 속초 울진 등에서 잇따라 지부 창립을 지원하는 등 신생 불자회 창립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겠다는 뜻도 함께 했다.

울산교사불자회장 김애숙 교사(울산 문수고)는 "울산교사불자회 창립은 그간 개별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던 불자교사들을 한데 묶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활성화된 부산, 경주 등 인근 지역 교사불자회와 상호 유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사불자련이 괄목한 성장을 보일 수 있던 것은 서울·경인교사불자회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1998년 교사불자련의 출범 모태가 됐던 서울·경인교사불자회는 1997년 창립 이후, 각 지역 교사불자회 창립과 교사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포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사불자회 창립 상담 활동 전개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인터넷 교사불자회 사이트를 카페(cafe.daum.net/tbuddha)로 일원화해 유기적 관계를 증진시켰다.

또 불자회별 사찰참배 등의 소모임 활성화, 지역별 직장·직능불교단체와의 연계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교사불자련의 전국조직 완성은 향후 활동의 자신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2월 새로 출범한 5대 중앙집행부는 먼저, 2007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조직 강화' '동료교사 및 청소년 포교'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념편람 '교사불자가 걸어온 길' 발간해 10년간 진행해온 사업과 남긴 발자취를 기록하는 한편,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교사들이 안내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 및 상설 운영한다. 또 청소년 포교단체 파라미타와 연계사업 추진 등을 전개한다.

교사불자련 신연섭 회장은 "각 지역 교사불자회가 교사불자 모임 결성을 주도하면서 그동안 창립을 주저하던 단위 지역 교사불자들이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교사불자련의 성장배경이었다"며 "앞으로 미창립 지역의 불자회 창립을 위해 기존 직장신행단체와 연계, 범종단 차원의 지도법사 위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02)733-7277 김철우 기자



국회 정각선원 개원 11주년 법회

국회 불자의원들의 신행모임인 정각회(회장 이용희)는 5월 1일 국회 지하법당에서 영주 부석사 선원장 근일 스님을 초청, 정각선원 개원 1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정각회원, 국회직원신도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근일 스님은 "나라법을 만드는 입법 분야 불자들은 중생심을 헤아리는 부처님 마음처럼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법문했다. 김철우 기자

광주·전남 농협불자회 출범한다

5월 27일 광주 향림사서 창립

'농협 불심'이 광주·전남에 불자회를 세운다.

광주·전남농협불자회(회장 강윤구, 이하 불자회)는 지난 4월 광주 목석원에서 창립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는 5월 27일 광주 향림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불자회는 이날 모임에서 불자회 정관을 마련하는 한편, 김수하(前 진도군지부장)·최기홍(영암군지부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불자회장에 강윤구(광주농협 공판장), 부회장 정종순(장흥군지부장), 사무국장 박인수(전남지역본부 여신관리단), 간사 오용균(광주 2호 광장지점)씨 등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불자회는 올 초부터 회원모집에 들어가 현재 100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광주·전남 지역 농협 불자를 대상으로 신입회원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전남 지역 미창립 농협불자회의 창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에 지역사찰을 돌며 주지스님과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강윤구 회장은 "광주·전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미약한 곳이지만, 농협 불자들이 중심으로 불교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와 분기별 산사체험 등의 수련법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062)220-7671

김철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열차에 불심 싣고 달린다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 박우락 기관사

그는 바빴다. 순번을 기다리는 기관사들로 붐비는 열차운영팀 사무실에서 다음 열차 운행시간을 확인하고, 내주 월요일에 잡힌 선재동자원 정기자원봉사 일정을 법우회원들에게 일일이 공지하느라 비좁은 사무실 복도를 분주히 오갔다.

잠시 틈도 났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 최근 법우회에 들어온 신입회원 10명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신행수첩에 메모했다. 새로 법우회 식구가 된 젊은 기관사 불자들에게 신행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1995년 법우회 창립을 주도 한 뒤, 회장직만 내리 4번을 한 베테랑 일터불자의 관록과 배려가 읽혀졌다.

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 박우락 기관사(58·혜능). 철로를 일터 삼아 온 지 34년째인 박 기관사는 오늘도 인천행 새벽 6시 17분 전동차를 어김없이 안전왕복운행하고, 오전 내내 '일터도량' 안팎을 살뜰히 챙겼다.

"선원 어른스님들이 선방 대중들의 수행정진을 위해 경책도 하고 독려도 하잖아요? 또 스님들은 그런 선방 분위기에서 화두를 치열하게 들고 정진도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장으로서 법우회원들이 일터를 도량삼아 신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을 뿐이지요."

박 기관사의 웃는 낯빛에서 깊은 자비심이 묻어났다. 그래서일까? 박 기관사는 40여 명 법우회원들은 물론 동료들에게 '너털 도사'로 통한다.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 특유의 낙천적인 성품 때문이다. 주변에서 뭐라 하며 비난해도 웃어버린다. 좋든 싫든 단 한 순간도 머릿속에 오래 담아두는 법이 없다. 그대로 흘려보낸다. 방하착이다.

"기관사 업무가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수시로 무전연락하고, 신호 받으며 안전사고를 경계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동료 기관사들이 늘 긴장상태에 있으니 민감하지 않겠어요? 전 다 받아줘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두 번 외고 들어주고 이해해주지요. 하하!"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장 박우락 기관사가 전동차 기관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철도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

그런 박 기관사에게도 일터에서 겪는 고충은 있었다. 기관사 초창기 시절, 심야 화물열차를 운전할 때면 그만 두고 싶은 충동에 하루하루를 지냈다. 또 기관사라면 달고 사는 허리디스크와 위장병으로 철도 인생을 접고도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 마음 같은 불교가 박 기관사의 지친 심신을 다독였다. 30년 넘게 읽어온 <반야심경>과 닮고 닮은 염주가 힘이 됐다.

"불교는 생활이죠. 일터신행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따로 시간 내어 믿고, 배우는 것이 불교도 신행도 아닐 겁니다. 그대로 일터에서 실천하는 불교가 100% 생활불교이지 않나요. 불교는 제 삶이고, 기관사는 그 삶의 방향타가 된 것처럼 말이예요."

글·사진=김철우 기자

제4기 불교의식 (범음·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기초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륙재(전문직 범음·범패)

◆ 모집 : 수시모집
◆ 매주강의요일 : 화, 목(오후 5시~7시)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 겸 강주 김도진 화상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하시는 스님께는 가격을 할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모집공고

■ 모집대상 : 총무스님
■ 자격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 비구 혹은 비구니
■ 제출서류 : 승려증사본
■ 예우 : 5년이상 주석시 화엄불교대학 승계 혹은 별도사찰 책임불사 승계
■ 기타문의 : 회주스님 친견후 결정

화엄 불교대학 신입생 수시모집중

강의내용
▷ 초급과정 : 불교입문 및 천수경반
▷ 중급과정 : 금강경 및 육조단경반
▷ 고급과정 : 법화경 및 화엄경반
▶ 참선과정 : 선요 및 실참

※ 화엄불교대학은 대한불교 최초로 천이백나한을 은행나무 목조각으로 조성 봉안한 도량임

종교법인 화엄불교대학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 3동 861번지
전화 053)754- 4962 / 휴대폰 010-9511-4963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1> 마군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면

분별, 올곧은 삶 해치는 마군
화두 챙기면 부처님 삶 보장

사람들은 대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잘 따져 제 몫을 챙겨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 요즈음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시비가 시비를 낳고 득실이 득실을 따지게 하니, 개인적인 욕망이 한없이 커져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헛된 욕망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욕망을 키울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만 한다. 이것은 올곧은 삶을 해치는 마군(魔軍)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온갖 분별 자체가 중생의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근본 마구니이다.

화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화두 챙기는 일만이 마군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선가귀감> 19장에서는 말한다.

工夫 到行不知行 坐不知坐 當此之時 八萬四千魔軍 在六根門頭伺候 隨心生起 心若不起 爭如之何

화두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걸어도 걸어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있는 줄 모르는 경계에 이르게 된다. 이때 팔만사천 마군들이 보는 곳, 듣는 곳, 냄새 맡는 곳, 맛보는 곳, 몸으로 느끼는 곳, 경계를 분별하는 곳 거기에서 조그마한 틈을 엿보고 있다가 마음 쓰는 곳을 따라 온갖 계책을 꾸밀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군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느냐?

화두 공부는 선택이 아니다.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챙겨야 할 화두가 전부이다. 화두 속에 들어가 화두와 하나가 되어 수미산과도 같이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이 화두를 챙겨가야 한다. 차를 마셔도 차를 마시는 줄 알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줄 알지 못하며, 걸어도 걸어가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 있는 줄을 몰라야 한다.

모든 알음알이가 단숨에 사라져서 숨만 남은 송장이나 진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두를 떠나 일어나는 생각은 모두 망상이요 마군(魔軍)이 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마군이란 생사(生死)를 좋아하는 귀신들의 이름이다. 팔만사천 마군이란 팔만사천 번뇌를 말한다. 마(魔)는 본디 근본이 없는 것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잊는 데서 그 싹이 움트는 것이다. 중생은 그 환경을 따라 흘러가므로 별 탈이 없고 도인은 그 환경을 거스르므로 마가 대든다. 그래서 '도가 높으면 마군이 치성하다'고 하는 것이다. 선정에 들어 있는데 송장 메고 온 상주를 보고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도끼로 찍거나, 멧돼지가 나타나자 자신의 코를 잡아 비틀거나 한다면, 이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헛된 생각들을 바깥에서 저를 치는 마군으로 잘못 알고 그 경계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군이 부리는 온갖 재주도, 칼로 물을 베듯 빛에 바람을 일으키듯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생사(生死)는 범어 saṃsāra, 혹 jāti-maraṇa를 말하는데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윤회(輪廻)라는 뜻이다. 중생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업 때문에, 지옥 아귀 축생 등으로 나고 죽는 삶이 육도에서 되풀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쳇바퀴처럼 그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것이다.

중생의 되풀이 되는 생사는 끝이 없어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바다에 비유하여 생사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생의 생사는 괴로움이 가득 찬 세상이므로 생사고해(生死苦海)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생사는 바깥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바로 마군이다.

옛날에 참선하는 스님이 깊은 산중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선정(禪定) 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여자 송장을 메고 찾아와 슬피 울면서 "네가 왜 내 어머니를 죽였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스님은 이 광경을 마구니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도끼로 내려찍었다. 상주는 놀라서 달아났지만 스님의 넓적다리가 축축해지는 것이었다. 넓적다리를 보려다가 선정에서 깨어나니 넓적다리에 붉은 피가 흐르고 있고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다. 이것이 "선정 속에서 상주를 보고는 넓적다리를 도끼로 찍었다"는 내용이다.

또 어떤 스님이 선정 속에 들어 있는데. 갑자기 성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달려들었다. 스님은 공부를 방해하는 마구니라고 생각하고는 멧돼지의 코를 잡고 비틀면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마침 바깥에서 일하고 있던 일꾼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 스님이 자신의 코를 잡고 비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옛말에도 있다.

壁隙風動 心隙魔侵

벽에 틈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군이 침범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신앙(信仰)과 신행(信行)

많은 재가불자들이 '신앙(信仰)과 신행(信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자주 묻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교계에서는 신앙보다 신행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지요. 신앙이라는 단어는 '절대자에 무조건 복종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해 타종교 용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에서는 둘 다 씁니다. 차이가 없는 거지요. 신앙은 '신심(信心)으로 귀의(歸依)하는 것'으로 불교와 인연이 깊은 단어입니다. 신앙은 신심귀의, 신심예경, 일심정례(一心頂禮), 지심정례(至心頂禮),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등을 뜻합니다. 또 신경(信敬), 신향(信向), 신수(信受), 신행(信行) 등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지요.

<대보적경>에서는 "여래에게 공경하고 존중하며 신앙하는 마음을 배로 내었다"는 구절이 있고, <화엄경>에서도 "인천 등의 무리가 함께 신앙했다"는 구절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또 미륵신앙, 관음신앙, 정토신앙, 약사신앙 등의 표현을 절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불교와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2강 종교간의 대화

'이름' 없는 종교를 위하여

종교의 역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선, 창시자가 있어야 한다. 육신을 넘어 정신의 비밀을 본 영웅들이 기원전 6세기에 대거 등장했다. 이때를 기축시대(Axial Age)라 하여 인류사의 빛이 가장 강했던 때로 친다. 공자, 노자, 붓다, 소크라테스, 짜라투스트라는 플라톤의 비유를 들면, 동굴의 그림자를 나와 실재를 보았고, 이 지혜를 나누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찾았다. 깨달은 자들의 신비한 힘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였다. 집단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학습용 교리가 생기고 조직의 규율이 만들어진다. 대중화는 천박화와 물려있다. 교단이 발전할수록, 창시자의 영감은 그 생생한 깊이와 절실함을 잃고 휴대용으로 단순해지고 경직되기 쉽다.

12세기 유교의 적응과 변신

이때, 종교적 영감은 숨고, 교리와 조직이 더 큰 발언권을 갖는다. 그 억압과 소외가 진전되어 임계점에 다다르면, 창시자의 영감에 기대, 새로운 종교적 혁신이 일어난다. 여기 성공하면 낡은 종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실패하면 그 종교는 삶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한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종교들은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 왔다.

유교를 예로 들면, 처음 자신의 뜻을 실현시켜줄 제후를 찾아 낡은 수레로 떠돌던 공자의 학단이 있다. 진시황의 가혹한 철권통치에 지친 사람들이 인격과 예절의 부드러운 제도를 원했고, 유교는 한대(漢代) 국교의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학문으로 전문화되고 고시로 권력화한 유교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을 채워주지 못했다. 기존의 도교, 방사, 샤머니즘, 점성술 등 민간신앙에 기원 전후하여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태가 급전했다.

그 후, 위진 남북조의 활발한 역경, 포교와 더불어 불교가 대세를 장악했고, 그 발전의 끝에서 당대의 화려한 선이 꽃필 수 있었다. 이때까지 유교는 별로 숨을 쉬지 못했다. 송대에 들어와 지식인들의 정치의 난맥이 커지고 이민족의 위협에 시달리고, 이윽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지식인들의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이와 더불어 개인주의를 넘어 국가와 공동체를 책임질 새로운 사상을 찾게 되었다. 유교가 새로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전의 교훈적 설교나 일상의 에티켓으로는 새로운 주도를 기약할 수 없었다. 이윽고 불교의 정치한 형이상학과 심리학, 그리고 노장의 우주적 자연관을 포괄하면서, 유교의 사회적 책임윤리를 강조한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다. 그것이 주자학이란 것이다. 주자학을 영어로 '새로운 유교(Neo-Confucinism)'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에 이 사상이 수입되어 고려의 불교문화를 대체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 후기,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유교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다. 그 변화의 시도들을 통틀어 '실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실험은 실패했고, 유교는 이윽고 망국의 책임을 지고 비난과 망각 속으로 잊혀졌다. 그 안타까움이 20세기 백년의 한국을 알알이 물들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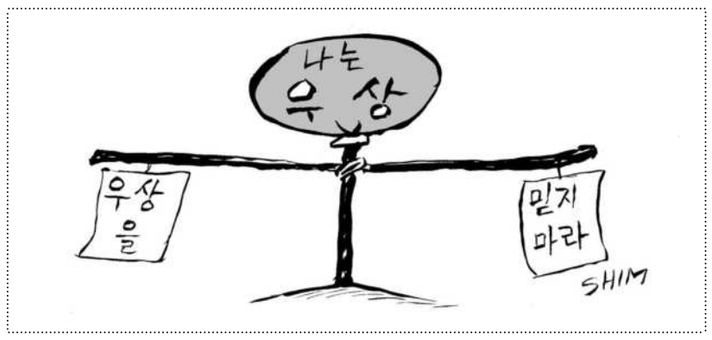
요컨대 영원한 사상이나 종교는 없다. 적응하면 살아남고, 버티면 도태한다. 지금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존속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논어>의 경구를 빌면, "사람이 진리를 넓히는 것이지, 진리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카톨릭과 유교의 대화

불교와 유교 사이에서만 심층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18세기 가톨릭은 조선의 유학과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한역된 서학서들이 주자학의 물줄기와 만난 이 사건은, 동서의 문명과 사상, 그리고 종교가 본격적으로 대면한 장이었다.

서양은 계시를 통하지 않고 이성의 빛만으로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탐색하게 되었고, 조선 주자학은 유학이 갖고 있던 신학적 입장을 선명히 부각시키면서, 사회개혁을 이끌고, 계급적 족쇄를 타파하려고 노력했다.

그 대면의 결과,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실험은 역사적으로는 실패했다. 그 길을 가로막은 것은 성스런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 세속적 권력이고, 사소한 의례였다. 제수이트는 유교 문명에 대해 적응적이었고, 도미니크는 순수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다. 오랜 전례(典禮) 논쟁의 결과, 교황청이 제사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상제(上帝)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하자, 청(淸) 왕조는 선교사들을 축출하고 조선은 기독교를 유교문명의 파괴자로 단정했다.



조선에는 사옥과 순교의 피바람이 불었고, 서양의 과학과 기술까지 금기시되었다.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조선의 개혁은 이로써 좌절되었고, 이어 정치적 숙청이 잇따랐다. 실학의 개혁 운동이 좌절되었고, 이어 19세기 백년은 암흑기로 남았다. 세계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치욕도 따지고 보면, 이 종교적 대화의 실패에 연유하고 있다면 지나칠까.

종교는 뗏목 같은 것

지금 다시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상을 그토록 경계한 종교들이 왜 자신의 종교를 우상화하고, 삶에 족쇄를 채우고, 사회를 폭력으로 혼란시키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내 속의 무지와 어둠이며, 그 위에 서 있는 현대문명의 세속성과 물신성이지, 타 종교의 교리나 조직, 신도수가 아니다.

돌이켜 보자. '위대한 약속'은 지켜졌는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원하는 대로 무슨 욕망이든 구현시켜주겠다는 그 장미빛 약속은 지켜졌는가.

우리는 지금 멈추어 서서 인간이 진정 그리던 삶의 모습이냐고 묻는다.

종교는 바로 이 '소외'의 현장에서 의미를 갖는다. 종교는 현대 문명의 위기에 대한 웅혼한 도전이다. "오로지 음식과 의복을 위하여 마음의 등불을 끈, 이 궁핍한 삶을 어떻게 인간화할 것이냐."

이 화두 앞에서 세계의 위대한 종교적 가르침들은 어느 때보다 깊이 연대해야 한다. 여기 이름표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삶의 의미와 영혼의 각성에 도움이 되는 장치라면 무엇이든 쓰고, 쓰고 난 다음에는 버려라!

불교가 이 점에서 특히 유연하고 적응적이다. 불교는 종교를 도그마 화하고, 진리를 뗏목처럼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무엇보다 경계한다. <금강경> 6장은 말한다. "마음의 소외(心取相)도 극복해야하지만, 진리를 도그마 화(取法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금강경>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권력과 우상, 지배와 억압을 타파하기 위한 망치이다.

자신의 종교를 우상화하지 않아야 비로소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고 우상에 빠져, 일방적 훈계와 배타적 아집으로 일관할 때, 21세기 소외와 니힐리즘에 맞설 영적 전통의 유대와 결집을 기약할 수 없다.

나는 궁극적으로 종교 없는 세상을 원한다. 종교가 있되, 이름이 없는 그런 종교를 원한다. 아니, 지금까지 진정한 종교에는 본시 이름이 없었다. <금강경>이 말한다. "그래서 여래가 말한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말하는 설법이 뗏목 같음을 알아라. 그러니 진리를 버리고 내려놓을 줄을 알라…. 진리조차 내려놓아야 하거늘, 하물며 비진리야 물어 무엇 하겠느냐."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한국학중앙연구원

생활 속에 깨달음 있더라

'삶이 외롭고 괴로운 것은 팔자운명 때문이 아니다. 부처님 법, 마음 법에는 본래 팔자 운명이 없다. 없는데도 내가 짓고 만들어서 팔자니 운명이니 이름붙인 것이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삶이 어둡고, 마음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다. 마음의 본바탕을 잃고 다만 찰나에 일어났다가 꺼지고 꺼졌다가 일어나는 내 상념의 먹구름을 내 마음인줄 알고 사니까 어둡고 편협해지는 것이다.'

1972년 경기도 안양에 조계종 한마음선원을 세우고 현재 국내 15개 지원과 미국 독일 캐나다 아르헨티나등 7개 해외지원을 통해 참자유인이 되는 길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대행 스님(한마음선원 원장).

스님은 "마음의 본바탕이 허공처럼 툭 틔어 있는데 그런 마음에 금을 긋고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라고 설한다. 그래서 스님은 "마음도리를 모르니 무명"이라고 밝힌다. 즉 "마음은 그 본성이 푸른 하늘과 같아서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 저 맑은 거울을, 저 푸른 하늘을 가려놓고 산다. 그러면서 어둡다고, 괴롭다고 한다"고. 스님은 "나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는 한마음 주인공(主人空)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그것만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요, 억겁 전부터 짊어지고 온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때를 씻는 작업"이라고 가르친다.

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온 저자가 대행 스님 가르침 바탕으로 쓴 '지금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살기

이 것이 바로 대행 스님이 설파하는 한마음의 진리이다.

스님은 불자는 물론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얘기한다. "내가 바로 화두요, 내 삶이 참선"이라며 "한마음 넓게 써서 세세생생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스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이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우주 전체는 인간의 근본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는 그냥 하나로 통해서 벽도 천장도 없다"고 말한다. 즉 "일체 제불의 마음이 곧 한마음이고 일체제불의 법이 곧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선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나'라는 상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놓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참선"이라고 설명한다.

따뜻하지만 천둥같은 큰 울림을 지닌 글들로 채워진 <禪, 침묵의 천둥소리>(전 2권)는 1994년 현대불교신문을 창간해 사장을 맡아온 뒤 현재 국제신문 대표이사인 김광삼 사장(필명 김시행)이 대행 스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5년여에 걸쳐 써온 불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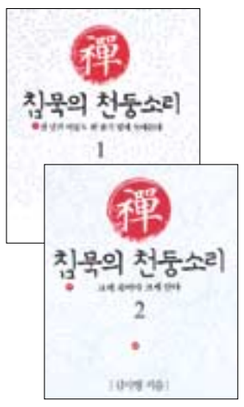
이 책은 평생 언론인으로 한길을 걸어온 저자가 스승인 대행 스님의 법문중에서 가려뽑아 인용해가면서 쓴 글이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보면 속세의 이야기와 스님의 가르침이 혼합되어 있다. 생활속의 법문인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대행 스님의 사상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깨달음의 보고"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아무리 끌어다 써도 다함없는 에너지의 원천이 우리 자신안에 있음을 가리켜 보이는 대행 스님의 '한마음법'이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의 열쇠를 쥐어준다"고 강조한다.

<禪, 침묵의 천둥소리>에는 자기 삶을 자신있게 요리 할 수 있는 '주인공'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나와 일체만유의 주인이자 근원인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며, 자기의 실상이다. 목마르면 물마시듯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듯이, 그렇게 일체를 주인공이 길잡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만큼 죽고 사는 문제등 일체를 주인공에 맡겨야만 자기 삶의 어엿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행 스님의 천둥같은 가르침이다.

이 책은 또 언제 어디서나 바로 우리들 주머니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뿌리깊은 노예의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 책에 흐르고 있는 반가운 소식같은 글귀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교과서가 될 것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禪, 침묵의 천둥소리 1 · 2
김시행 지음
김영사 | 각 권 1만900원

네티즌 강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시대 기록문화



조선최고의 명저들 휴머니스트, 신병주 지음

"이곳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자존심이 상하는 한 가지는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병인양요 때 침공한 프랑스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인 주베르가 남긴 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신병주(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씨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기록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드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다.

책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 기록문화만큼은 중국에 버금가거나 때로는 능가하기도 했다. 국가가 주도하여 편찬한 기록들, 이른바 관찬 기록(官撰記錄)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 가운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두 종은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기도 했다. 한 국가의 기록물 가운데 성격이 비슷한 두 종이 모두 세계기록유산에 채택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우리의 기록문화는 뛰어났다.

이 책을 접하면서 다시 느끼는 것은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미미하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하층민과 여성의 지위는 그 당시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우리는 500년 전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을 법전에 규정했던 나라였다는 것 등을 새롭게 알게 해 주는 책이다. (kks35679, book.naver.com/bookdb)

'오래된 미래' 찾아나가는 심오한 정신의 행로



연암을 읽는다 돌베개, 박희병 지음

한 줄의 연필 자국도 남길 수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읽고 또 읽고 싶은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다가 언젠가는 분명한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책을 구입한 날로부터 일상적인 독서의 양태와 달리 이 책에는 손 자국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신주단지 모시듯 며칠에 걸쳐 야금야금 읽었다. 그리고 아쉬웠다. 책을 다 읽었다는 그 느낌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 가운데 인문서로 최고의 압권이라 생각한다'면서 적극 권할 정도였다.

이 책 '연암을 읽는다'의 첫구절로 돌아가 보자.

'고(古)란 무엇인가.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이며, 그 점에서 하나의 '지속'이다. 우리는 이 지속성 속에서 잃었던 자기 자신을 환기하고, 소중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오랜 기억과 대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는 진정한 자기회귀의 본질적 계기가 된다. 진정한 자기 회귀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긍정하되 자기에 갇히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통해 자기를 재창조해 내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고'는 한갓 복원이나 찬탄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된 미래'를 찾아 나가는 심오한 정신의 어떤 행로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의미의 '고'에 대한 탐구이다. (세발까마귀, aladdin.co.kr)

책속의 밑줄긋기



○… 우리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쩌면 완벽한 존재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인생의 항로에서 등대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버지도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것이다. 아버지를 보면 참으로 불안정하고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아버지란 존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란 참으로 지대하다. 내 아버지만이 아닌 세상의 많은 아버지를 보면서 그 존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식하게 된다. 요즘들어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과 동시에 너무나 무력해진 아버지의 모습이 곳곳에 비치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가 힘들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자식으로 산다는 것> 281쪽에서, 깊은 강, 장기영등 21명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원효 스님 장편소설 논쟁 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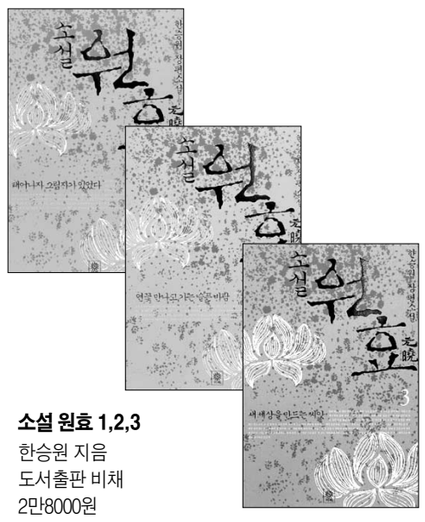
한승원

〈원효 1, 2, 3〉

VS

이광수

〈원효대사 1, 2〉



소설 원효 1,2,3
한승원 지음
도서출판 비채
2만8000원



원효대사 1,2
춘원 이광수 지음
도서출판 화남
1만8000원

중생들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불법을 전하며 온몸으로 어두운 세상의 새벽이 되었던 원효 스님. 그의 삶과 사상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빚어낸 한승원의 장편소설 <소설 원효 1, 2, 3>가 출간됐다.

원효를 올바르게 읽음으로써 잘못 알려진 관념을 바꾸기 위해 한승원 선생이 3년동안 그동안 발간된 저서, 논문, 삼국의 역사, 불교경전등 수많은 책과 자료를 탐독했다. 또 원효의 행적을 좇아 그가 태어난 경산 불등마을을 비롯해 경주 남산과 서라벌, 영축산과 반고사터로 추정되는 곳을 수차례 방문했다.

그래선지 그동안 신화속에 박제되어 있던 원효의 삶은 이 소설속에서 생생한 숨결이 느껴진다. 마치 원효가 아무 걸림없는 무애춤을 추듯 거침없이 활달하며 유려하고 자유자재하는 듯하다.

"삼국통일전쟁 반대한 반전주의자 세계주의자"

한승원의 소설에서 원효 스님은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을 반대한 반전주의자이자 한 나라의 영토와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주의자, 일심과 화쟁과 무애를 실천한 불국토주의자로 태어나고 있다.

특히 한씨는 신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하던 삼국전쟁의 광기어린 분위기속에 원효는 중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고 기술한다. 신라 집권자들이 일으킨 전쟁에 그는 제거 대상이었다는 것. 그래서 원효를 파렴치한 승려로 만들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요석궁에 강금시킨 것이라고 서술한다. 소설에서는 말미에 원효와의 가상 인터뷰도 시도한다. 살아있는 듯 육성을 직접듣는 형식을 통해 원효 스님의 요체를 정리한 글로 소설의 압축본 구실을 한다. 또 용어풀이를 수록해 당시 정치문화, 불교관련 용어를 알기쉽게 풀이했다.

한편 한승원씨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불의 딸> 등 신화적인 작품들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문학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계의 대표적 작가이다.

소설가 한승원의 장편소설 <원효1,2,3>인가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원효대사1,2>인가. 같은 시기에 출간된 한승원과 춘원 이광수가 소설로 그려낸 원효 스님의 삶이 출판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출간도 되기전 소설가 한승원과 춘원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의 재출간을 준비중이던 화남 출판사의 이승철 편집주간은 왕복 5회에 걸쳐 이메일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친일문학 논쟁과 출판의 자유문제까지 거론됐다.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이같은 논쟁은 한승원씨가 먼저 시작했다.

한씨는 춘원 이광수의 친일행적을 거론한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작가활동을 했던 이광수는 <원효대사>를 한반도 식민통치 지휘소인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조선총독부는 이광수의 소설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라고 충동질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한씨는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보면 원효가 도술로 도적을 제압하고, 신라 젊은이들에게 삼국통일 전쟁에 기꺼이 몸을 던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씨는 "불안정한 시국에 여자 생각이 동하여 과부 요석공주와 동침하고 도술을 부려 삼국통일에 협조한 인물로 원효를 기록한 것은 오독"이라고 말한다.

이에대해 화남출판사 이승철 주간은 "문학작품이란 친일작가가 쓴 작품이기에 독자가 친일작가의 작품에서 맛본 감동이란 의미없다 한다면 이는 이를 읽는 독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친일행위는 비판받되 작품은 작품으로서 읽히고 평가되어야 옳다"고 말한다.

이씨는 "'원효를 한민족으로 보고, 한민족 자체를 인격화한 이 작품은 일제 말살정책에 맞서 우리 말과 글로 쓴 춘원의 대표적 역사소설'이라는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평가도 있는 만큼 오히려 두 소설을 비교하면서 달라진 스팩트럼을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승원 선생이 지난 3년간 공들여 쓴 작품이라면 독자들이 그 작품을 외면할리 없는 만큼 독자들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김원우 기자

장엄하고 넉넉한 신라의 풍경과 대자유한 민족의 부처, 원효의 일생을 소설화한 춘원 이광수의 대표적 장편소설 <원효대사 1, 2>가 재출간됐다.

이 책 <원효대사>는 1942년 춘원 이광수의 나이 51세에 창작한 장편소설로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7개월 동안 연재됐었다.

이 작품이 발표됐던 시기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직후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내선일체를 미끼로 황국신민화정책을 책동하던 시기였다.

당시 일제가 춘원에게 <원효대사>의 집필을 허락한 속셈은 원효가 승병을 일으켜 나라에 충성한 것처럼 전시체제를 한인들에게 알려 이른바 '국가총동원'의 선전성을 노린 것이었다.

이에대해 춘원 이광수는 이를 역이용하여 한민족의

"원효를 한민족으로 보고 한민족을 인격화한 작품"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았다고 자신의 심경을 소설속에서 고백한다.

춘원의 <원효대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과 글로써 어둠을 밝힌점과 더불어 원효를 조선 자체로 보고 미래형으로 그리면서 한민족 자체를 인격화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원효대사>는 소설 곳곳에 나타나 있는 불교용어와 여러 불경의 인용으로 인해 일반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주해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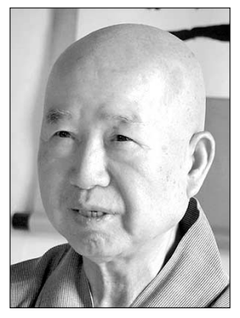
또 조선대 김준태 교수와 이병주 동국대 명예교수의 작품해설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춘원 이광수는 1892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 1917년 한국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발표했다. 19년 도쿄에서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고,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신문 편집국장과 사장을 지냈다. 37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투옥되기도 했지만, 39년 조선문인협회장 재임시 황국신민화정책에 부응하는 친일행적을 남김으로써 한국 근현대문학사 영욕의 상징이 되었다.

interview

〈간화선의 길〉 펴낸 정관 스님

'의심' 붙어야 간화선의 길 열린다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이 헤매지 않고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 있는 곳을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 · 사진)이 50여년의 수행 인생 동안의 체험을 토대로 간화선 수행의 지도를 그려 후학들에게 건네고 있다. 먼저 수행의 길을 걸어간 노장의 자비심이다.

"입버릇처럼 간화선을 말하지만 간화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일평생을 선방에서 보내도 공부의 보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간화선 수행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토를 다는 것을 보면서 내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가닿는 간화선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관 스님이 〈간화선의 길〉을 펴낸 이유다. 195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관 스님의 수행 인생이 요약돼 담긴 〈간화선의 길〉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게송 같은 문장으로 간화선의 길, 선의 혈맥, 화두참구와 염불주력의 차이, 화두선과 송화두, 자성예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 스님이 펼쳐 보이는 간화선의 길은 '의심'에서 활짝 열린다. "간화선은 첫째 의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없는 화두는 입에 자갈을 문 듯 갑갑하며 평생을 선방에 있더라도 허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의심 없는 화두를 하느니 차라리 송화두가 낫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스님이 말하는 송화두는 염불. 염주줄이 끊어질 만큼 '죽도록' 관세음보살을 반복 또 반복하다 '관세음보살하는 이 놈이 도대체 무언가'하는 의문이 촉발돼 화두 수행자가 된 스님의 경험이 녹아 있는 충고다.

"나무와 나무를 쉼 없이 부지런히 문지르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송화두의 공덕이 쌓이면 의심의 토대가 되죠.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산 증인이니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정관 스님은 의단독로가 되면 '화두의 법열'이 물위에 박을 띄워놓은 듯 가볍고 평화로우며 자연스럽다고 귀띔한다. "화두의 법열은 상대로부터 뺏거나 쟁탈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나를 제도한 결과이므로 영원합니다."

천미희 기자



간화선의 길
정관 스님 지음 | 불교시대사 | 8500원

고침 본지 577호 8면 <꿈 미래의 열쇠> 기사중 성각 스님은 현오 스님의 오기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왕초보 불교 박사되다	민족사, 석지현외, 75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티벳사자의 서	정신세계사, 파드마삼바바, 2만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 스님, 4000원
· 화두참선	우리출판사, 이계묵, 1만3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납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한함을 얻을 수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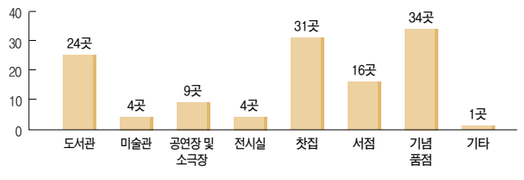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영 천 암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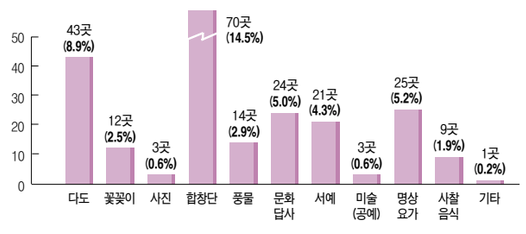
불교 문화프로그램(시설) 운영 현황은? / 조계종 사찰 484곳 조사

문화시설 운영사찰 16% 불과

사찰내 문화시설 현황



사찰의 문화모임 및 프로그램 현황



조계종 소속 사찰 83.9%가 문화관련 시설이 전무했고, 16.1%만이 1개 이상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문화부(부장 탁연)가 지난해 조계종 소속 사찰 2199곳 가운데 본 · 말사 주지연수교육에 참여한 1000여 사찰 주지 스님을 대상으로 각 사찰의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과 단체 현황을 조사한 설문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불교행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찰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현황조사에는 1000개 사찰 가운데 약 22%에 달하는 484개 사찰이 응답했다.

조사 대상 문화시설은 공연장 및 소극장, 미술관(전시실), 도서관, 찻집 · 서점 · 기념품점 · 기타로 분류했다. 문예진흥법이 규정한 문화시설에는 이 외에도 박물관을 비롯해 지역문화복지시설과 문화보급 전시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문화부 박종학 문화팀장은 "복지시설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총람을 통해 세세히 공개돼 있고, 성보박물관은 <성보박물관 현황조사보고서>가 2003년 나왔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사찰에서 산사음악회, 템플스테이, 불교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최하고는 있지만 사찰과 지역민이 문화시설을 통해 상시 접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저조함을 드러냈다.

전체 응답사찰 484곳 가운데 문화관련 시설이 있다고 답한 78개 사찰은 모두 123개의 시설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시설은 66.7%를 나타낸 전통찻집(31곳) · 서점(16곳) · 기념품점(34곳)이었다.

도서관(24곳)이나 미술관 · 전시실(8곳), 공연장 및 소극장(9곳) 등은 총 41곳으로 문화관련시설 중 33.3%에 그쳐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문화관련 시설 보유 현황은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낙후돼있음을 나타냈다.

교구별로는 해인사 말사가 12개 사찰에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동화사 은해사 범어사 송광사 말사가 각각 9개로 나타나 영남지역 교구와 교구세가 큰 교구에서 보다 많은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27.5%
합창단 70곳에서 운영 '활동 왕성'
다도 · 명상 · 답사 모임 각 10% 미만
생활 밀착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시급
문화포교 의지 · 시설 · 자원 부족 여전

문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사찰 가운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 관련 모임을 운영하는 사찰은 모두 133곳(27.5%)으로 확인됐다. 133개 사찰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도 있어 조사된 프로그램은 총 224개로 나타났다.

문화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왕성한 활동을 나타내는 것은 합창단. 전체 조사사찰 중 14.5%인 70개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 다도모임이 8.9%(43곳), 요가 · 명상모임이 5.2%(25곳), 문화답사모임이 5.0%(24곳), 한문 · 서예학당 운영이 4.3%(21곳), 풍물 · 사물놀이패 운영이 2.9%(14곳), 꽃꽂이모임이 2.5%(12곳), 사찰음식강좌가 1.9%(9곳), 사진과 미술이 각각 0.6%(3곳) 순이었다.

합창단이 가장 왕성하게 운영되는 것은 근대 이후 불교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찰마다 합창단을 만들어온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도모임과 문화답사, 한문 · 서예학당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불교와 전통문화의 친숙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 참여사찰의 72.5%인 351개 사찰이 문화단체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일선 사찰에서 문화포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실현할 인적 · 물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10일 현황발표회를 가진 문화국장 혜조 스님은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에 걸맞게 불교문화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통해 향후 중단기 종책 결정에 밑거름 마련하고자 조사하게 됐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부로부터 위탁받아 조사를 진행한 김유신 대표(불교문화기획 불무)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각 사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문화프로그램 및 불교가 갖는 고유의 문화원형들을 향유하되 즐기면서도 깊이가 있는 문화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고, 사찰이 종교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일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만나는 문화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우리곁에 온 1400년전 신라불교

분황사 출토유물 특별展(5. 11~12. 29)

국립 경주문화재연구소 전시실



바둑판전



숟가락거푸집

사리장엄구 포함 250여점 전시
바둑판전 숟가락거푸집 등 눈길

신라 선덕여왕 3년(634)에 창건돼 자장 · 원효 대사 등 한국불교역사의 걸출한 스님들이 거쳐가며 1400여 년간 성쇠를 거듭해온 분황사가 우리 곁에 온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가 5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특별전 분황사 출토유물'을 개최한다. 1990년부터 8차에 걸쳐 16년간 발굴해온 성과를 집대성한 <분황사 발굴조사보고서 I >의 발간과 '경주출토유물보관동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발굴조사 출토유물을 비롯해 1915년 분황사 석탑 해체보수작업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국립경주박물관 소장)를 포함한 250여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분황사에서만 특징적으로 출토되는 기와들도 만날 수 있다. 창건 금당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연화보상화문수막새 · 쌍조문암막새 세트와 1차 중건 금당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화문수막새 · 쌍조문암막새 세트 등이 눈길을 끈다. 신라시대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연화문 보상화문 당초문 용문 비천문 등 각종 문양 기와가 출토된 분황사 기와는 기와연구의 교과서라 지칭될 정도로 다양함을 자랑한다.

이번 전시 유물 가운데 가로 15줄 세로 15줄의 바둑판전(42×43㎝, 높이7.8㎝)은 흥미로운 유물로 인정받고 있다. 바둑판전과 함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유물은 바로 숟가락거푸집. 안압지, 황룡사지 등에서 출토됐던 숟가락의 거푸집과 함께 당시의 제작기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분황사는 창건 이후 8세기 중엽에는 대형 약사동상을 주성(鑄成)하고 1차 중건 금당을 건립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몽골의 침입이 있었던 13세기 이후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에 건립한 보광전과 일제강점기(1915년)에 수리한 모전탑 등과 함께 사역이 대폭 축소된 상태로 남아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분황사 가람배치를 밝히기 위해 1990년부터 지금까지 8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品'자형 창건 3금당의 존재를 비롯해 3차에 걸친 금당의 변천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현존탑은 창건시의 원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음도 밝혀냈다. 더불어 현재 사역의 남북 외곽에서 확인된 당간지주 · 담장 · 축대 · 건물지 · 배수로 등은 분황사 전성기의 사역 범위를 밝힐 수 있는 중요 학술자료로 인정되고 있다.(054)777-8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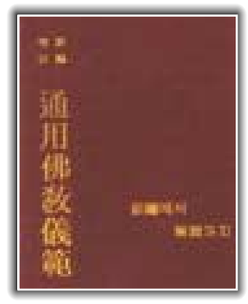
강지연 기자



분황사 전경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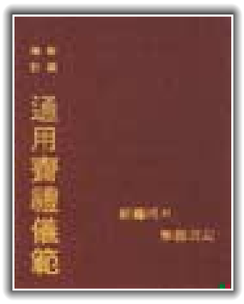
編 · 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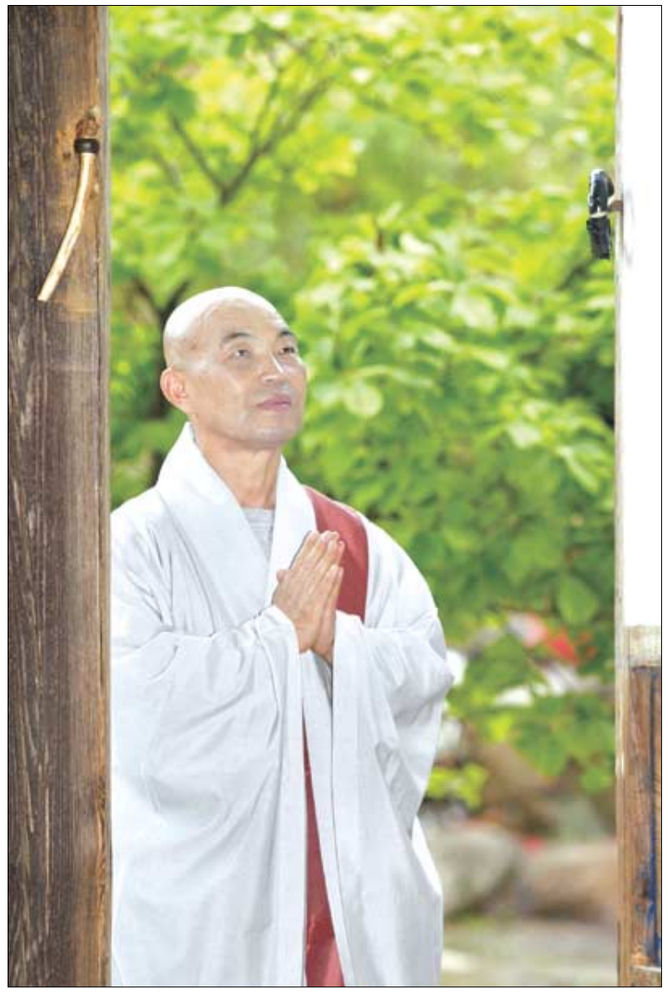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매 장 埋 葬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 공 편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壇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 · 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제 할 도리 다 하면 족하지”



혜인 스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혜인 스님은 사람이 저마다의 도리를 다할 때 자기를 바로 볼 수 있고, 이것이 성불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인 스님 (단양 광덕사 회주)

5월 9일 울산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법당. 법상에 오른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의 법문이 이어지면서 불자들의 감탄사와 웃음도 계속된다. 법회라기보다는 편안한 대화마당 같다.

유쾌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문으로 유명한 혜인 스님. 자신의 제자든 아니든 간에 후학들에게는 한없는 애정을 쏟아 붓는 혜인 스님.

혜인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출 · 재가를 막론하고 소극적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 따라서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혜인 스님의 소신이다. 그런 스님이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법문에 치중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원효대사와 이차돈을 좋아합니다. 두 분 다 불교와 국가를 위해 신명을 바치셨습니다. 특히 화해와 용서를 강조하는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이 시대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문자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혜인 스님이 존경하는 분은 또 있다. 바로 자장율사와 은사인 일타 스님이다. 자장율사는 철두철미하게 계율을 지킴으로써 스님으로서 가져야 할 본래 면목을 보여주신 분이고, 일타 스님은 무한한 자비와 용서로 사람의 심성을 순수하게 만드셨다고 한다. 혜인 스님이 후학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존경하는 스님들과 은사 스님의 그런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늘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면서 그저 빙그레 웃으세요. 하지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또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느낄 수 있지요. 원력은 크신데 욕심도 없으시고, 불자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하시죠. 수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은사 스님은 아니지만 그런 스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주지 덕륜 스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좌스님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단양 광덕사에서 울산 연화사까지는 적어도 4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다. 하지만 이 먼 길도 벌써 3번째다. 작년 9월 개원한 연화사가 훌륭한 강사진을 갖추고 불교대학을 열면서 도심포교에 나서자 어떻게든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혜인 스님은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전국 곳곳을 다니며 초청법문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도 결코 거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루를 108배 참회발원으로 여는 일이다. 그리고 은사 스님께 올리는 문안 인사도 빼놓지 않는다. 은사스님이 입적한지 7년째지만 지금까지 단 하루도 문안 인사를 올리지 않은 날이 없다. 연화사 법회 후 곧바로 영천 은해사에 온 다음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그건 출가자로서, 또 제자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저것에 얽매이지는 않아요.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안 오면 밤늦게까지 참선을 하거나 경을 읽기도 해요. 글씨도 쓰지요. 지루하다 싶으면 도량일도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땐 며칠씩 기도도 하고….”

물 흐르듯이, 하지만 결코 게으른 법이 없는 혜인 스님의 일상.

“며칠 후부터는 묵언을 할 겁니다. 3개월 정도요.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내세울 게 없어요. 기자님도 한 번 해보세요. 묵언을 하면 자신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이 부족하다 하지만 혜인 스님의 하루하루는 수행의 연속이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다면 어찌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어찌 부처를 이룰 수 있겠는가. 혜인 스님은 만나는 누구에게든 이렇게 화두 하나를 툭 던진다. 정작 자신은 밑으로 내려놓으면서.

매일 108배 · 은사스님에 인사
한달 중 절반 전국돌며 법문

연화사에서의 법문 내용 중 <천수경> 독송 시 얻게 되는 15가지 나쁜 것과 15가지 좋은 인연에 대해 다시 여쭈었더니 바랑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인다. 노트에는 이 내용 외에 단양 광덕사에 건립 중인 100만 불전 상량문을 직접 쓴 것과 지난해 열반한 前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100재 때 지은 추모사, 부모은중경의 일부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있었다. 필요하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메모해 두었던 것이다.

“나는 내 본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나 분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고, 내가 무시 받지 않으려면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은 자기 주인공을 바로 보는 일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견성성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저마다 도리를 다 한다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법문을 다닐 때도 자가용이 없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한다는 혜인 스님은 “연세도 있으시니 자가용을 구입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빙그레 웃으며 은해사 단루각 앞 꽃밭에 앉는다. 비 온 뒤 물기를 머금은 꽃들이 싱그럽다. 꽃을 몹시도 좋아한다는 스님.

“우리 보살들 비 맞고 추웠겠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잘도 사시네.”

꽃을 보살이라 불렀다. 한 자리에서 세상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는 꽃. 오늘 은해사 단루각 꽃밭에 새 꽃이 피었다.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64만평 광덕사 건립 불사

혜인 스님은 1943년 남제주에서 출생한 혜인 스님은 15살 때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동화사 금당선원 등지에서 10안거를 성만했으며, 1970~1971년 해인사 장경각에서 100만배 기도를 회향했다.

약천사를 중창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자리매김시켰고, 현재 단양 광덕사에서 64만평 규모의 세계일화도량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큰 원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혜인 스님이 은해사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다.



혜인 스님은 바랑에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메모를 해둔다.



울산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초청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혜인 스님.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5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서 예 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1:00 ~ 15:00

3. 교육기간(6개월)
●원서접수 : 2006년 5월 10일 ~ 5월 27일 ●개강일시 : 2006년 6월 2일 (금요일)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법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용서하고 자비심 내세요

혜인 스님의 가르침

세상 사람들 모두 돈 돈 합니다. 행복의 척도를 돈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안달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벌려고 애써야 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돈 보다도 더 요물단지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재물보다 더한 복덩이가 되기도 하고 재물보다 더한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 짓는 말을 하는 것과 악업을 짓는 말을 하는 것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행동을 항상 복 짓는 쪽으로 쓴다면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정진하는 데는 <천수경>만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천수경>은 일천천(千) 손수(手) 자를 쓰는데, 즉 천개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활동을 손으로 합니다. 밥 먹고 물건 만들고 다 손으로 하지요. 그런데 손 하나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처럼 관세음보살이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경이라고 해서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천수천안비경>을 줄인 말입니다. 손이 천 개요, 눈이 천 개요, 팔이 천 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천 개는 꼭 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 개도 되고 그 이상도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눈과 팔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이 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다는 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원력대로 살겠다는 것이니, 그 공덕은 무한할 수밖에 없지요.

욕심 많고, 남의 것을 탐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들은 항상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절에 가면 '천수(千手)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우를 씻은 물을 받아 방 복판에 놓고 바로 그 위 천정 위에 천수다라니를 써서 붙입니다. 그러면 물동이에 글씨가 비치는데, 이 물을 바로 천수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욕심 많은 이에게 주면 오장육부가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천수다라니는 그렇게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고 기도하면 참지 못할 것도 참아내는 힘 생겨

<천수경>을 수지독송하면 15가지 나쁜 것을 막아주고, 15가지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15가지 나쁜 것은 굶주리거나 괴로움에 시달려 죽지 않으며,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않으며, 원수 맺은 이에게 보복당하여 죽지 않으며, 전쟁터에서 싸움으로 죽지 않으며,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으며, 독사나 지네 등 독한 곤충에게 물려죽지 않으며, 물이나 불의 재앙에 죽지 않으며, 독한 약을 먹어 죽지 않으며, 뱃속에 있는 독충독물에 죽지 않으며, 미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않으며, 산이나 나무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며, 나쁜 사람에게 홀려 죽지 않으며, 나쁜 귀신이나 삿된 귀신에 시달려 죽지 않으며, 나쁜 병에 걸려 죽지 않으며, 자살하거나 일체 비명횡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가지 좋은 인연은 가는 곳마다 어진 임금을 만나게 되고, 평화롭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며,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고, 항상 좋은 벗을 만나게 되며, 몸에 모든 기관이 구족하고 건강하고, 심신과 도심(道心)이 발하게 되고, 계율을 갖추어 어기지 않으며, 가정과 권속이 항상 화순하고,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하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되고,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뜻대로 구하는 바가 다 이뤄지고, 용과 하늘과 선신이 항상 보호하며,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뵈옵고 법문을 듣게 되고, 불법이 깊은 이치를 깨달아 성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려면 폭력을 쓰거나 내 생명을 아끼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항상 자비라는 글자를 머리와 가슴에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생명은 용서와 자비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조차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새가 허공을 날아가더라도 허공에 새 발자국이 없듯이, 내 가슴 가운데 미운 사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라도 흙으로 덮어주고 묻어주면 훌륭한 거름이 되듯이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고 묻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훌륭한 복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혜인 스님은 늘 인자한 모습이다. 후학들을 위하는 마음도 그 모습만큼이나 여유롭다.

참는다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할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지 못할 것을 참아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먼저 화해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공부가 제대로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아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회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희망을 품는 것이에요.

10년 20년 절에 다녀도 말버릇 고약하고 행동거지가 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남편들은 저녁때마다 아내를 업어주면서 "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은인이오.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공덕을 베풀었으니, 이것을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불편해하는 것이 없는지 늘 살피면서 부처님 대하듯 해 보세요.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것보다는 못한 법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모든 이를 아끼고 편안케 하는 것이요,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출세보다는, 부귀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는 지나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 사람답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정을 느끼면서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며 사는 사람은 공든 탑이 돼서 영원히 상대의 가슴에 향기가 될 것입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5>



이것도 직업입니까?

그날도 버스에 올라 열려진 창으로 들어오는 싱그러운 초여름의 바람을 즐기며 눈앞 가득 펼쳐진 연초록의 나뭇잎들에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붉은 글씨의 작은 푯말이 눈앞에서 휙 지나갔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이라 처음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빨간 글씨의 푯말은 나무마다 높게 걸려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섰을 때에야 나는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못 받은 돈"

이 네 글자와 전화번호가 첨쪽보다 더 붉고 선명하게 쓰여서 푸르디푸른 신록의 자연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거나 돈을 떼였다면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내 전화번호는 000-000-0000입니다"라는 문장을 거두절미 딱 네 글자로 요약한 것이지요.

그 푯말을 보자니 '참 별 걸 다 직업으로 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먹고 살 일이 막막하면 남의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러 다니는 일로 제 밥벌이를 할까 싶어서 그 푯말을 붙인 사람이 측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배부른 감상이었습니다.

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현수막이 걸렸네요

'돈'만이 목적이라 못된 짓이요, 악업입니다

법적으로 용인된 이자율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그 역시 하나의 반듯한 직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 '못 받은 돈'이란 네 글자에는 너무나 어둡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오직 '돈'만이 목적이고 그 돈을 둘러싼 폭력과 위협과 절망과 범죄의 기미가 느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부터 익히고 그런 다음 재물 늘릴 직업을 가지며, 그 직업으로 재산을 갖춘 뒤에는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장아함경 11권)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으로 스스로 생활을 경영해야 하니, 곧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혹은 글씨 · 글 · 산술 · 그림을 그리는 일 등의 이런 저런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힘쓰고 수행하는 것"(잡아함경 제3권)이 바로 살아갈 방도를 완전히 갖추는 일이라는 경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직업이란, '경제적인 소득 즉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 생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 개성의 발휘 및 자아실현을 위해 계속적으로 행하는 노동 또는 일.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량 발휘 및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다소 딱딱한 정의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고, 자기의 개성과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의 활동으로 이 사회가 좀 더 유익하고 발전되는 것, 이것이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고 살겠다며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직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섯 가지 좋은 일에는 게으르지 말아야 하니, 그것은 첫째는 재산을 모으는 데[求財]에 게으르지 말며, 둘째는 재산을 지킴[守財]에 게으르지 말며, 셋째는 몸을 보호함[護身]에 게으르지 말며, 넷째는 이름을 보호함[護名]에 게으르지 말며, 다섯째는 법을 행함[行法]에 게으르지 않는 것"(유가사지론 제57권)이라는 가르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재산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롭게 살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야만 명예롭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에 대해 해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의 몸과 정신을 흐릿하게 해주는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앙굿타라 니카야에서는 "재가신자는 다섯 가지의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무기의 판매, 살아있는 목숨의 판매, 고기의 판매, 술의 판매, 독의 판매이다(AN.III)."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선업을 짓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악업을 짓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선업과 바른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이웃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못된 짓이요, 악업인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여시아문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 『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고전 읽으며 '뿌리' 배워요

서울 · 대구에 차문화고전 전문 강사 육성과정 개설



윤경혁 국어고전문화원장(사진 맨 왼쪽)이 5월 11일 개강한 차문화고전 전문강사 육성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다송' 등 다서와 자료 한문 원문으로 강독
2년 수료후 '자격증' … "차 정신 찾는 계기"

"최근 차가 '웰빙식품'으로 떠오름에 따라 인터넷 등에는 차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차문화의 역사와 실체를 제대로 아는 이는 드뭅니다. 차 고전을 배우는 일은 우리 차문화의 뿌리를 찾아나서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역 뒤편에 자리잡은 (사)국어고전문화원 사무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앉은 이곳에서는 '차문화고전 전문 강사 육성과정' 개강식이 열리고 있었다. 국어고전문화원과 원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차고전 전문 강사 양성을 목표로 2년간 진행된다. 그간 단체나 학회, 개인 등이 개설한 다서 강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문 강사 육성을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료자에게 자격증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의를 맡은 윤경혁(75) 원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차문화에 관심을 가져온 차고전 연구가. 그동안 각종 차 잡지 등에 다서 해석을 연재하고 <다문화연보> <다소> <가도명천차>(이상 홍익재) 등의 다서를 펴냈다.

"차문화는 우리의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풍부한 예술활동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쇠퇴하기 시작한 우리 차문화는 조선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차문화 부흥 물결은 오늘날 1000만명을 헤아리는 음다 인구를 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윤 원장은 현재의 차문화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나라 차문화의 역사와 뿌리를 연구하기보다 표피적이고 화려한 것에만 치중하는 현실이 걱정스러운 것이다.

"최근 급조된 중국다예와 차산업물 시찰 그리고 사치스러운 차도구 탐닉 등 본래의 차 정신과 어긋나는 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문헌지식의 부재에서 나타는 것으로, 차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고전을 읽음으로써 올바른 차 정신을 세워보자는 뜻에서 강좌를 열게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전통을 배제하는 풍토가 학계 곳곳에 배어들었고, 이는 고전 더 나아가 '한문'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차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조차 다서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전에 바탕 하지 않고는 차문화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수 없습니다."

강좌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다경(茶經)> <동다송(東茶頌)> 등 60여 권의 다서와 600여 편에 이르는 다사(茶事) 자료 등을 원문으로 강독한다.

다서 원문을 읽기 위한 한자 독해 능력은 필수. 하지만 윤 원장은 한자 실력보다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차문화의 뿌리를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년간의 수업으로 차고전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전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해야겠지요." (02)392-8551, www.mansidang.org

글 · 사진=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 나온 다서 2選



〈글로벌 시대의…〉
차 통한 에티켓 소개



〈진품 보이차를 찾아서〉
종류 구입 노하우 등

햇차가 선보이는 5월, 서점가에는 다양한 다서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차문화와 에티켓>은 구영본(우리문화연구원 동다헌 원장), 신미경(성신여대 문화산업연구소 연구위원)씨가 공동으로 펴낸 책이다. 지은이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에티켓을 행동예절과 차를 통해 바르게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1부 '차문화'에서는 차의 유래와 분류, 성분 · 효능, 차문화사, 차 우리기 등 차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다. 더불어 차를 선택하고 보관하는 법, 우리는 법, 물과 불을 다루는 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실제 차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부 '글로벌 예절'에서는 각국의 인사법과 테이블 매너, 직장인 예절, 초대 · 방문 예절 등을 다룸으로써 기본적인 매너를 익히게 도와준다. 차가 '사교'의 중요한 수단임을 고려한다면, 공항 · 식당 · 직장 등에서의 예의를 익혀두는 것은 차인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진품 보이차를 찾아서>는 이제 막 보이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한 '보이차 입문서'로 읽힌다. 지은이는 <중화다서 선집(中華茶書選集)> <공부차(工夫茶)> 등의 다서로 국내 차인들에게 익숙한 예위칭촨(葉羽晴川). <공부차>를 우리말로 옮겼던 박용모씨가 이번에도 번역을 맡았다.

책은 크게 '보이차 기초지식' '현재 만날 수 있는 보이차' '보이차 구매 및 보관과 소장' '보이차 우리기' '차마고도(茶馬古道)'의 다섯 장으로 나뉜다.

특히 오늘날 중국 보이차 시장의 현실과 현재 차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이차를 소개하고 있는 '현재 만날 수 있는 보이차'에서는 보이차의 일련번호와 상표에 따른 특징, 생산연대 등을 자세히 소개해 차 구입시 실질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지은이가 소개하는 '보이차 구입 노하우'는 특별하지 않지만,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다. 지은이는 소문이나 상인들의 설명에만 의존해 '귀'로 구입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직접 마셔보고 고를 것을 권한다. 또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여러 찻집을 다녀보면서 신뢰할만한 찻집을 선택하고, 보이차의 냄새와 표면의 상태, 탕색 등을 세심히 살피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국내외 차문화 관련 인사 '총집합'

'부산국제차문화대전 2006' 내달 14일 열려

100여 개의 차회가 개설돼 왕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차인들의 대동한마당이 열린다.

부산국제차문화대전 추진위원회(총괄본부장 이현채)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우리나라 차 문화 단체를 아우르는 '부산국제차문화대전 2006'을 개최한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여연 스님(초의차문화연구원 이사장), 홍소술 한국차생산자연합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은 이번 행사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차문화 단체와 생산자연합회, 학술단체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는 포부로 기획됐다.

이현채 총괄본부장은 "우리나라 근현대 차문화 발전에 정신적 · 물질적 토대를 마련한 부산에서 오늘날의 차문화사를 다시 쓸 초석을 마련하고자 국제차문화대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국제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차문화 행사도 국제적인 규모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의 향기로, 차의 마음으로'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행사기간 동안에는 조선 차도구 명품전과 차도구 디자인 공모전 같은 전시회와 찻잎 따기, 제다 실습, 다도교실 등의 체험행사, 명차(名茶) 품평 및 차 상품 포장 디자인 심평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한편 우리나라 차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 산업 박람회도 함께 마련된다. 또한 일본과 중국, 대만, 베트남의 차 협회가 참가해 각국의 차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瑞榮普洱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중소기업 참가비 인하
제4회 티월드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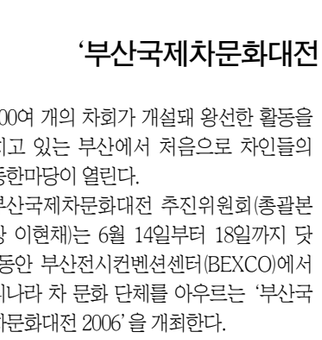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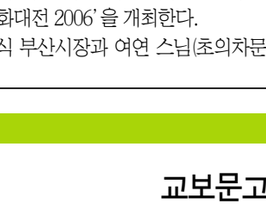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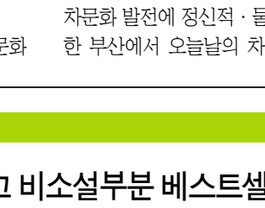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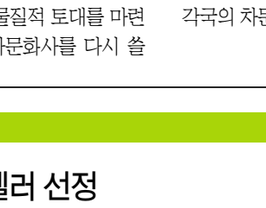


티월드 위원회(위원장 김정순)는 6월 21~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차문화대전(티월드 페스티벌)'의 참가비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 인하한다.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의 '지방기업 및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내 차 산업계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참가비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이로써 티월드 페스티벌 참가를 원하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참가비(독립부스 기준)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을 코엑스 전시2팀(02-6000-1079)이나 티월드 위원회(02-6000-8888)로 문의하면 된다.

※ '짱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는 필자 사정으로 이번주 쉽니다.

교보문고 비소설부분 베스트셀러 선정
중국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져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는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사호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수 있는 책이다.

중국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복달마! 돈달마!




무엇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친필달마도
황금돈이 수없이 모아드는 행운과 영험을
외면 하시렵니까??
신중기도 100일 후 출시합니다. ₩300,000원
미타정사 성각 합장 TEL 02)389-5991, 2088

건강지킴이 식초가 뜬다

식초가 뜨고 있다. 음료 시장에는 식초를 마시기 좋게 가공한 '식초 음료'가 잇달아 선보이고 있고, 서점가에서는 식초를 이용한 건강법을 소개한 <식초>(웅진싱크빅)가 출간 한 달 만에 1만권 판매를 돌파했다. 민간요법은 물론 피부미용 재료로도 많이 쓰였던 식초가 어느덧 '웰빙 대표 식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처럼 식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항산화물질이나 칼륨, 붕소 등의 영양소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부엌에 한 병쯤은 갖추고 있을 만큼 친숙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3000여 년 전부터 이용해 왔다는 식초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 박구원

아미노산 등 60여가지 유기산 풍부
신진대사 촉진 · 피로물질 분해
만병통치식품으로 각광
과량 섭취땐 장기 상하니 주의를

▷ 식초, 왜 몸에 좋을까?

식초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종류의 묽은 알코올성 액체를 발효시켜 만든 초산(또는 아세트산)을 함유한 신맛이 나는 액체'다. 흔히 산도가 높아 산성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바뀐다.

식초는 양조식초와 합성식초(화학식초)로 나뉜다. 양조식초는 곡물이나 과일로 만들고, 합성식초는 물로 희석한 빙초산 또는 초산에 아미노산이나 단맛을 첨가해 만든다.

쌀농사를 많이 짓는 한국 · 일본 · 중국 등의 동양에서는 쌀식초가, 서양에서는 포도나 사과 등을 이용한 과일식초가 많이 이용된다.

양조식초에는 초산과 호박산, 주석산, 아미노산 등 60여 가지의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이러한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물질을 분해하고 체내 노폐물을 원활하게 제거해줘 예로부터 어혈을 해소시키는 만병통치식품으로 불려왔다. 또한 식초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줘 뼈를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해준다. 식초의 신맛은 침샘을 자극해 침이 많이 나오게 해 입맛을 돌게 하므로 입맛을 잃기 쉬운 한여름 음식 조리에도 많이 이용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식초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고 옹종(종기의 일종)을 제거하고 어지러움을 치료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식초를 너무 많이 마시면 뼈나 내장기관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사찰식초, 어떤 것이 있을까?

사찰에서도 식초는 빼놓을 수 없는 조미료다. <십송률>에서는 '유나(維那)의 소임을 맡은 비구는 과일이나 채소를 씻는 일을 감독해야하고, 식초에 벌레가 생기는지 돌보는 일을 감독해야한다'고 적고 있다.

예로부터 사찰에서는 감식초나 솔잎식초 등을 직접 담가 먹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적문 스님은 "식초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소화흡수를 도우며 스님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사용됐다"고 말한다. 좌선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상기병'을 방지하기 위해 솔잎식초나 감식초를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적문 스님은 "솔잎식초는 스트레스를 다스릴 뿐 아니라 관절염,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살충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솔잎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정에서 솔잎식초를 직접 담가 먹기는 쉽지 않다.

감식초는 타닌과 아스코르브산이 풍부하며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도와준다. 소쿠리나 체에 감을 담고 밑에 그릇을 받친 뒤 잘 덮어두면 감물이 고이는데, 이를 밀폐 용기에 담아 1년 정도 숙성시키면 된다. 그냥 마셔도 좋지만 냉수나 우유, 꿀물 등에 희석해 마시기도 한다.

한편 불가에 전해지는 '건강 십훈(十訓)'에도 염분을 적게 먹고 식초는 많이 먹으라는 '소염다혜(小鹽多醯)'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물을 무칠 때 염분을 적게 쓰고도 맛있게 먹으려면 식초를 조금 가해주면 된다는 '생활의 지혜'이기도 하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찰 식초 이렇게 만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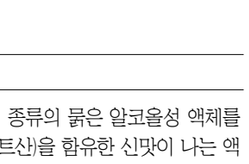
▶ 감식초 만들기

① 감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윗부분을 짚 또는 거즈로 덮은 뒤 돌로 눌러준다.

② 항아리를 공기가 잘 통하는 천으로 덮은 뒤 18~20℃로 유지하며 5개월간 발효시킨다. 발효 중에는 가끔 항아리를 흔들어 공기를 주입한다.

③ 5개월이 지나면 감즙을 채로 받쳐 거른 후 깨끗한 항아리에 넣어 밀봉해 7개월간 숙성시킨다.

▶ 솔잎식초 만들기



① 솔잎을 따서 밑 부분을 잘라낸 뒤 잘 씻는다.

② 항아리 바닥에 황설탕과 생 솔잎을 번갈아 깐 뒤 3일 정도 재워둔다.

③ 3일 뒤 끓여서 식힌 물을 붓는다. 생수를 부으면 금방 곰팡이가 피므로 반드시 끓인 물을 쓴다.

④ 한지로 덮어 100일 정도 숙성시킨 뒤 먹는다.

⑤ 식초는 발효하면서 계속 숨을 쉬므로 뚜껑에 구멍을 뚫어 둔다. 배, 사과 등의 과일을 껍질을 벗겨 채 썬 뒤 솔잎과 황설탕 사이에 넣어두면 과일향과 단맛이 가미된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7>

딸기 냉 스프와 야콘 찹쌀케이크





부처님오신날 즈음엔 뭔가 새로운 음식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처님오신날에 소개할만한 음식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어찌어찌 제가 방송에 출연하게 돼 이틀 동안 정말 어렵게 촬영을 했는데, 방송 1시간 전에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던 반면 많은 사찰에서 '사찰음식 전시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사찰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부처님께서는 제게 사찰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행복하고 또 행복할 따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제가 사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어깨 너머로 배운 것입니다. 공양간에서 노동 보시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행자스님이 냉동실에서 얼린 딸기를 꺼내 녹이고 있었습니다. "스님, 웬 딸기인가요?"라고 묻자 행자 스님께서는 "봄철 부처님께 올렸던 딸기 중 좋은 것을 골라 냉동실에 얼려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처님오신날 절을 찾아주는 신도님들께 맛난 음식을 대접하려고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신도님들을 생각하는 행자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운 딸기 주스를 좀 멋있게 이름을 바꿔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금화사 은평법당에서 열린 사찰음식 전시회 때도 부처님전에 올리고 많은 신도님들과 맛을 보았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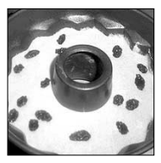
딸기 냉 스프와 함께 곁들일 음식으로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야콘으로 만든 찹쌀 케이크가 좋습니다. 찹쌀가루로 발효 없이 만든 빵이라 약간 쳐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야콘은 당뇨 등의 성인병에 매우 좋은 식품이며 칼로리가 낮아 아이들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 만드는 법



<딸기 냉 스프> 재료: 솔잎주 60ml, 설탕 4큰술, 레몬(1/2개), 딸기 5개, 오렌지 1/2개, 소금 약간

① 팬에 솔잎주와 설탕을 넣고 5분 정도 끓인 후 레몬을 넣어 차게 식힌다. ② 딸기는 장식용으로 쓸 분량만 남기고 곱게 다진다. ③ 만들어진 레몬 물에 다진 딸기를 넣어 믹서에 곱게 간다. ④ 오렌지는 으깨어 ③에 넣어준 후 소금으로 간을 하고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두어 식힌다. ⑤ 볼에 스프를 담고 딸기를 올려 완성한다.



<야콘 찹쌀 케이크> 재료: 찹쌀가루 2컵, 우리밀가루 1/2컵, 야콘 뿌리 간 즙 1/2컵, 가루 야콘차 1작은술, 우유 2/3컵, 베이킹파우더 1작은술, 소금 1/2작은술, 설탕 2큰술, 건포도 2컵, 녹차기름 2큰술

① 찹쌀가루와 밀가루, 가루 야콘차, 소금, 베이킹파우더를 섞어 체에 한 번 내려준다. ② 체에 내린 가루에 건포도를 골고루 섞어준 뒤 우유를 넣어 되직하게 반죽한다. ③ 케이크 틀에 녹차기름을 발라주고 만들어진 반죽을 부어준다. ④ 부어진 반죽을 공기를 빼주기 위해 골고루 쳐준다. ⑤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30분 정도 구워준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적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2006년은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불자님께서 밀어 주신 보은에 보답하고자 어려우신 경제에 다소 보탬이 되 보고자 3개월동안 회비를 저렴하게 받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전무 후무한 법화행자의 희소식

본문 법화의식 대전 출간

한정섭 박사이신 금강선원 총재 활안 큰스님이 검열한

1. 총 57가지 의식으로 유치(由致)다음에 청사(請辭)는 3청까지 되어 있다.
2. 의식 끝에 사부대중의 법명, 당호, 법호, 불명과 예술인 불명, 법호등 수천개가 수록되었으며 사찰명 등 1천 8백여폐지로서 정가는 30만원이다.
3. 추가로 드리는 공덕의 작품,여래수량품의 석가칠보탑과 또 한글 석가탑, 다보불탑등 총 세로 75cm, 가로 38cm로 서체는 동양 3국에 없는 옥문체(玉文體)로써 띄어나고 아름답게 썼음. 불(佛)자, 용(龍)자, 달마 등 세로 54cm, 가로38cm로 정교하게 제작되고 저작권 등록을 필함.
4. 「본문 법화의식 대전」을 구입하시는 사부대중에게는 이 가운데서 원하시는 작품 50장을 드려서 백수십만원의 이익을 보게 해드린다.



※ 이상의 작품은 모두 점안을 마쳤음

▌본문법화의식대전



대한불교 대승연화종 총무원

연락처 : 055)772-6662 / H·P 010-8993-1344 ,010-6394-7350

◆입금계좌번호: 농협 801076-51-022066 (예금주 : 대한불교)

불자 축구선수들

독일 월드컵, 4강 '쏜다'



최종 엔트리 확정

박지성
설기현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조재진

불자 축구 선수인 설기현 박지성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선수 등이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녹색 그라운드를 누빈다. 2002 월드컵 대표팀 주장에서 코치로 나선 홍명보 코치도 불자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006 독일월드컵 최종엔트리 23명의 명단을 5월 11일 확정 발표했다.

대표팀의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는 박지성 선수는 올초 현대불교신문에 사인을 보내 불심을 고백한 바 있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하다. 어머니 장명자씨는 화성 용주사에서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프로필에 불자임을 밝히고 있는 최진철 선수는 이번 월드컵이 은퇴 전 마지막이기에 더욱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일본 J리그에서 골을 몰아넣으며 맹활약 중인 조재진 선수는 어머니의 불심이 그 뒷심이다.

설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영자씨는 2002년 월드컵 때 대구 갓바위에서 기도했듯 이번에도 기도에 몰두하고 있다. 이을용 선수의 아내 이숙씨, 온 가족이 불자라는 김남일 선수의 가족도 소문난 신심을 자랑한다.

2002년 4강 신화를 일궈낸 설기현 박지성 이을용 김남일 최진철 선수가 2006년 독일에서도 한국 축구의 새역사를 열기를 기대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어려운 음악회!

윤이상 실내악 공연

현대음악 수용의 불모지 한국에서 현대음악의 큰 흐름을 짚어주기 위한 음악회가 5월 19~21일 마련된다. 경기문화재단과 윤이상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윤이상 선생의 작품 '4중주(Quartett)'가 한국 초연된다.

파주 헤이리 커뮤니티하우스에서 열리는 '어려운 음악회'는 첫째날 현대의 성악곡을 시작으로 둘째날 '대왕의 주제'를 비롯한 윤이상 실내악, 셋째날 현대의 기악곡으로 막을 내린다.

정록기 한양대 교수 등이 감상 길잡이로 나서고 빈트리오, 여음목관5중주단, 배지원 노현석씨 등 연주자들이 공연에 합류한다. (02)391-9631 강지연 기자

소헌 성인호 '선 달마화展'

소헌 성인호 화백의 '선(禪) 달마화전'이 5월 12~18일 목포시문화예술회관 제6전시실에서열린다.

50점의 한국화와 20점의 도자기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달마도와 관음도, 연꽃, 사찰풍경 등이 화사함과 장엄미를 동시에 풍겨낸다. (061)270-8487

강지연 기자

정정 576호에 보도된 부처님오신날 특집방송 안내에서 소개된 KBS스페셜 '인연'은 방송이 연기되어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스타와 스님

우리는 동갑내기 '도반'

해인사 혜안 스님 · 배우 이휘향



4월 30일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 연등축제에서 서각페스티벌을 개최한 혜안 스님을 찾아온 이휘향씨. 사진= 김두식 기자

"미국 태고사 무량 스님을 돕는 단체로 무량회가 있어요. 그 무량회에는 탤런트 이휘향씨, 조세현 사진작가 등 다양한 분들이 있죠. 제가 5~6년 정도 태고사에서 머물면서 불사를 도왔는데 그때 이휘향씨를 알게 됐습니다."

전각가로 활동중인 혜안 스님(해인사)은 탤런트 이휘향씨를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라고 표현한다. '스님과 신도'가 아니라 '도반'이 된 데는 동갑이라는 나이뿐만 아니라 스님의 책도 한몫 했다.

무량회 활동으로 美 태고사 불사 도와 줄때 인연

드라마 등신불 제작 어려움 겪을 때 지원 받기도

지난해 스님이 펴낸 책 <그래, 떠나보거라>를 읽고 이휘향씨는 "제가 책을 하루에 다 몰아서 읽지 않는데 이 책은 하루에 다 읽어버렸다"며 "책 내용에 굉장히 감동받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말한다. 자신이 받은 감명을 나누고자 동료 탤런트 전인화씨 등에게도 책을 선물했다.

합천 해인사 신도인 이휘향씨의 신심은 해인사 내에서도 유명하다. 요란한 것은 아니다. 그저 조용히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떠나간다. 이씨의 신행태도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가을, 폐암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이휘향씨. 49재를 치를 때까지 50일을 해인사에서 기도하면서 보냈다. 산문 밖으로 나서지도 않은 채 기도 정진으로 먼저 간 남편을 기리는 나날이었다. 이렇게 깊은 신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휘향씨에게 KBS에서 드라마 '등신불'의 어머니 역할 제안이 들어왔다.

제안을 수락한 이휘향씨는 혜안 스님에게 조계종으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스님의 노력으로 조계종은 촬영장소 제공 및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사찰예절 교육 등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부처님오신날 방영을 목표로 제작되던 드라마는 제작이 늦어져 이휘향씨는 빠지게 됐다. 이휘향씨는 자신의 출연여부보다는 드라마의 완성도에 관심을 기울였고 혜안 스님은 이씨와의 약속 때문에 드라마 제작 지원에 전력을 다해 돕고 있다. 스님 역할을 해야 할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행자교육 수준의 배우교육도 혜안 스님이 도맡아 진행한다.

혜안 스님은 "스님과 신도라기보다는 '탁마'하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사이"라며 "이렇게 훌륭한 도반과의 좋은 인연을 잘 이어갈 것"이라고 고백한다. 강지연 기자

몸으로 펼친 또다른 문명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 2006' 5월 24일~6월 6일

7개국 21편의 작품 선봬

예술로서의 '몸'을 정의 내린다면? 예술계는 이제 미래에 관한 참신한 발상의 시작을 몸에서 찾는다. 국내외 최고 안무가들이 '몸'을 화두 삼아, 인간의 육체로 그려내는 예술을 무대에 올렸다.

한국현대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국제현대무용제 모다페(Modafe) 2006이 '몸을 통해 상상하는 미래의 문명'을 주제로 5월 24일~6월 6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과 서강대 메리홀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스위스 벨기에 영국 등 세계 무용계의 최신 흐름을 담은 7개 국가의 예술 단체들이 '몸'을 주제로 한 21편의 작품으로 다양한 색깔을 드러낼 예정이다.



개막 공연은 2005 서울무용제 대상 수상자인 황미숙(파사현대무용단)씨와 2000년 이후 디지털 댄스를 국내에 도입해 화제가 된 조양숙씨가 공동 작업한 '변하지 않는…'이 장식한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한 개막무대는 문자의 생성, 종이의 발명,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짚어가며 시공간을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참가단체는 미국의 '쉔 웨이 댄스 아츠'. 세계 정상 무용단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는 이들이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일 '봄의 제전'과 '폴딩'은 2003년 뉴욕 링컨센터 페스티벌에서 데뷔무대를 가진 이래 세계 무용계의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특히 '폴딩'은 정중동(靜中動)으로 표현한 무대가 공연 내내 동양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동양의 선(禪)사상을 뛰어난 테크닉으로 현대 무용과 조화시킨 작품으로 유명하다.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을 극대화시킨 '폴딩'은 동양의 정서를 잘 담아낸 색채와 움직임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02)765-5352

강지연 기자



개국 10주년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

글짓기 · 그리기 · 디카 촬영 대회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으로 초대합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밝은 꿈과 천진한 동심을 전해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즐겁게 무궁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번 '2006 꿈이 있는 문예마당'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최일시 2006년 5월 21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개최장소 대구월드컵경기장 야외공연장
행사내용 글짓기(산문, 운문)·그리기·디카 사진촬영 / 전통민속놀이
참가대상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중학생 누구나

참 가 비 무료
참가준비물 ① 공통 : 참가신청서(www.dgbbs.co.kr에서 다운로드, 단체는 1부로 가능), 점심도시락, 돗자리
② 그리기 참가자 : 그림도구 ③ 글짓기 참가자 : 필기도구, 책받침
④ 사진촬영 참가자 : 디지털카메라 ※ 원고지와 도화지는 지급합니다.

부문 · 시상내역

부문		시상
유치부	그리기	문화관광부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대구광역시교육감상, 대구지방경찰청장상, 대구상공회의소회장상, 경북체신청장상, 각 대학교 총장상 등 다수
초등 저학년	그리기, 산문	
초등 고학년	그리기, 산문, 운문, 디카촬영	
중등부	그리기, 산문, 운문, 디카촬영	

대 상 조계종 총무원장, 불교방송 이사장

발 표 5월 29일(월) 대구BBS 홈페이지 www.dgbbs.co.kr에 게시
주 최 BBS 대구불교방송
주 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 대불어 대구지구

행사 문의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053)427-5114

후원 문화관광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체신청, 한전대구지사, 대구은행, 대구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 대구교육대학교, 동국대학교, 위덕대학교, 보현사신협, 금성노트사



대행스님

어느 것 하나 은혜로운 모습 아닌 게 없어!

사월초파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분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좁게 써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대심(大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아픔을 전부 건져서 편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대심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필코 나의 뿌리를 발견하리라.' 하고 생명을 걸고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으며, 내 몸 아님이 없으며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만 듣고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가면 실감이 나질 않아요.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서 살아야, 진짜 사람으로서 우주의 근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세상 만사가 좔나좔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일체 만물이 스승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돌 하나를 봐도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법으로, 정의로 바탕을 삼아서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만물에게도 은혜를 갚는 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 소리 할 게 없이 극치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하나가 혼자 산다고 하지 마세요. 안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고 밖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어요. 안 그런가요? 곤충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연결 연결 돼서 주고받고, 서로 돕고 서로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고 귀찮게 이 말 저 말 거기다가 넣어서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진실과 행이 꼭 성취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쌀만 농사가 아닙니다. 옷감을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지 · 수 · 화 · 풍도 빼놓지 않습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를 보면 열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그만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 욕심스럽게 한다면 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신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만큼 있는데 몇 명에게 똑같이 주기 위해서 나는 똑같이 맛있는 거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똑같이 맛있는 거를 먼저 주게 되니까, 나중에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먹고 이런 거지, 욕심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그 조그만 거를 방편으로 세웠지만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나와야지 억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제껴 놓는다면, 제껴 놓고 아무거나 나눠 준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정말 '전자(前者)'와 '현자(現者)'가 한데 합쳐져서 만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하며 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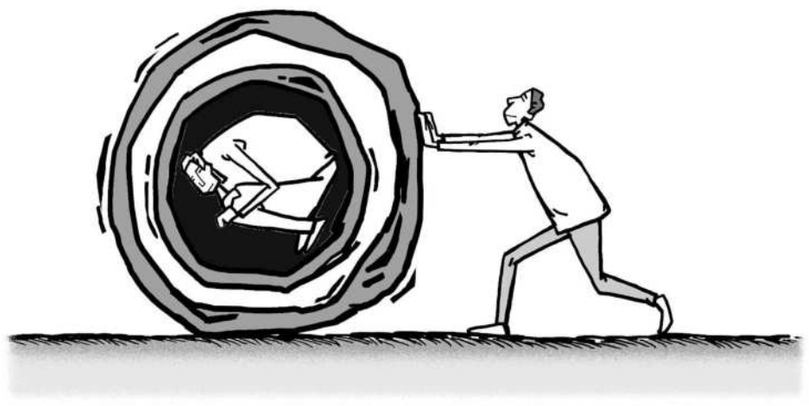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신경학 및 정신의학의 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펜필드(Penfield)는 마음을 뇌조직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뇌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결국 마음은 뇌와는 전연 별개의 것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도 불멸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따라서 앞으로 마음을 더 연구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과도 교신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의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유명한 뇌 생리학자이며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죤 엑클스(John Eccles)는 우주의 삼라만상은 물질, 마음 그리고 정보 등 세 가지로 돼 있다고 말하면서 물질과 마음은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엘 에스 디(LSD)라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마음을 연구하여 노벨 수상자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미국의 스타니슬라브 그로프(Stanislav Grof)는,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그 마음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는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신과학 운동의 선구자이면서 양자물리학자이기도 한 프리쵸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인간의 마음은 물론 실존하는 것이며 마음의 근본 알갱이와 물질의 근본 알갱이는 동일한 것이며, 우주의 본질 자체가 마음 알갱이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는 마음 알갱이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 바람 · 세균 · 식물 · 짐승 그리고 사람은 모두 그 근본이 동일한 마음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형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허망된 망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눈이 사물을 보기는 하되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듣기는 하되 귀가 귀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체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있으나 주인공이 주인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과학자나, 마음의 근본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뇌 생리학자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의 근본 알갱이와 동일한 것이며, 또한 우주의 알갱이와도 동일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입이 닳도록 일러 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그 근본 알갱이인 것입니다. 즉 우주의 근본 알갱이가 주인공이요, 마음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육체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물질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내면 어찌 육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퍼져나가듯이 마음을 내면 그 파문이 암덩어리가 아니라 육체의 어디까지라도, 아니 우주 법계의 어디까지라도 파문이 아니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이와 같이 공부한 것을,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에 새로 오셨으나 저와 같이 의정이 많아서 주인공 공부가 잘 안되는 도반들에게 전달하고자 저 나름대로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 도반들에게 책 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공부한 것이 스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순 엉터리 지식을 도반들에게 전달해서는 큰 일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둘째는 비록 제가 공부한 것이 순 엉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님께서 주인공 공부를 가르치실 때 한 절반만 가르치시고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가 맛을 보도록 가르치시는 의도를 제가 눈치코치도 없이 까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제가 만든 이 조그만 책자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쓰잘 데 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든지 해 주십사고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스님, 오늘 장시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옥체 보존 하옵소서.

▲스님: 막 자기 말만 다 해 놓고는 '넌 듣거나 말거나 해라. 난 하겠다.' 하고는 그냥…, (대중 웃음) 그 내리 읽는 폼을 보니, 허허허….

첫째에 우리가, 물질로서의 이 현자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 현자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자 부(父)와…, 하는 소립니다. 부처님이 부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쳇말로는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여 있으니까 전자 부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가 한데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한데 합쳐져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이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배출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한다 덜한다 말할 수도 없고 한계가 없어요. 상대가 되는 어떠한 물체가 작으면 작은 대로 바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니까. 그리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생산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능숙해지면, 앞서 거쳐 왔던 진화 과정은 그냥 한데 합쳐져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지금, 얼른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요건 둘레가 얼마고, 요거는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라.' 이러셨어요. 오신통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다.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어디서 온 거를 아는 사이 없이 또 알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이 분제를 그렇게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안통을 알고 천이통을 알고, 타심통을 알고 숙명통을 알고, 신족통을 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비교를 한다면, 과학자들이 오신통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이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죠, 마음대로. 우주 세상 삼라만상, 즉 말하자면 과거 · 현재 · 미래심, 이 삼심(三心)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두 지혜롭게 어디 걸림이 없이 아주 여여할 텐데,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격과 같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공기통 안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행하는 전체를 바로 내 그 알맹이가 하는 거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영원한 뿌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 몸이라는 물질을 형성시켰거든요. 형성을 시킬 때에는 정자 난자를 빌려서 같이 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 놓고 자기가 이끌어 가는 거죠.

자기 안의 자생중생들은 전자에 살 때 악업 선업을 진 자체이기 때문에 오신통이 바로 즉,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니까 그 입력된 자리에다 내 형성된 것까지 일체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몰락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모두를 거기다가 몰락 다 놓으라는 거죠. 놓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 안에도 자생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혼자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놓으려도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일이 생기니까 못 놓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못 놓긴 뭘 못 놓아요? 허허,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네?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다닙니까. 아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다니는데 혼자 다닙니까? 놓을 수 없느니 놓을 수 있느니 거론이 불계? 진짜 놓을 수만 있고,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진짜 그냥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기필코 나의 뿌리를 발견하리라

생명을 걸고 원을 세워야 합니다!

※위 법문은 1994년 5월 1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운영위원장
봉 선 사

주 지 해 산
신도회 일동

■ 충남 천안시 병천면 탑원리 산33-1
전화 041)556-0450

대한불교법화종
도 암 사

주 지 성타 성엽
사부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장기면 정천 1구 676
TEL 054)293-0474
FAX 054)293-0473

사 단 법 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부종정 석정관 원로원 원장 석화담
종의회 의장 무송

호법원 원장 대원 교육원 원장 구진
포교원 원장 보광 연수원 원장 도명
총무원 원장 도법

● 서울 총무원
총 무 부 장 일두
교 육 부 장 무초
문 화 부 장 도심
연 수 부 장 성운
포 교 부 장 지광
비구니부장 혜광

※ 각부국장
문 화 국 장 시행
연 수 국 장 지우
비구니국장 영암
의 전 국 장 원명

● 포교사단
서울포교국장 보현
부산포교국장 용정
대구포교국장 혜원
경기포교국장 자운

● 포교자문위원
청암스님 성안스님
원각스님 법정스님
청강스님 진광스님

● 각시 도 종무원 원장
경북종무원 원장 태룡
충남종무원 원장 수암
경남종무원 원장 원타
대전종무원 원장 혜각
제주종무원 원장 의공
충북종무원 원장(대행) 선학
대구종무원 원장 성진
경기종무원 원장(대행) 자운
사서실국장 성보 수행국장 보각
수 행 특 보 성덕 성수

총무원 : 서울서대문구 홍제3동 266-76(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2)391-8583

경남법사단종무원

법사승단종무원 원장 도혜 대법사

종무원.총국장 혜명법사
종무 1국장 목암법사
수진법사
혜진법사

●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성법사
부산지부 051)865-7975

● 충남지부종무소
지국장 성각법사
충남지부 041)547-1442

● 강원지부종무소
지국장 덕경법사
강원지부 033)553-6653

● 포교사단
태성법사 법정법사 혜경법사
혜연법사 개안법사 자은법사
혜정법사 덕운법사 혜담법사
법성법사 혜운법사 해진법사

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대표전화 055)241-0253

탈종공고

● 사찰명 : 영광사
● 주 지 : 벽봉(송선호)
● 창건주 : 이옥선
● 주 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412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법하

성 내지 않겠습니다 (상)

박현이 (대전시 대덕구 법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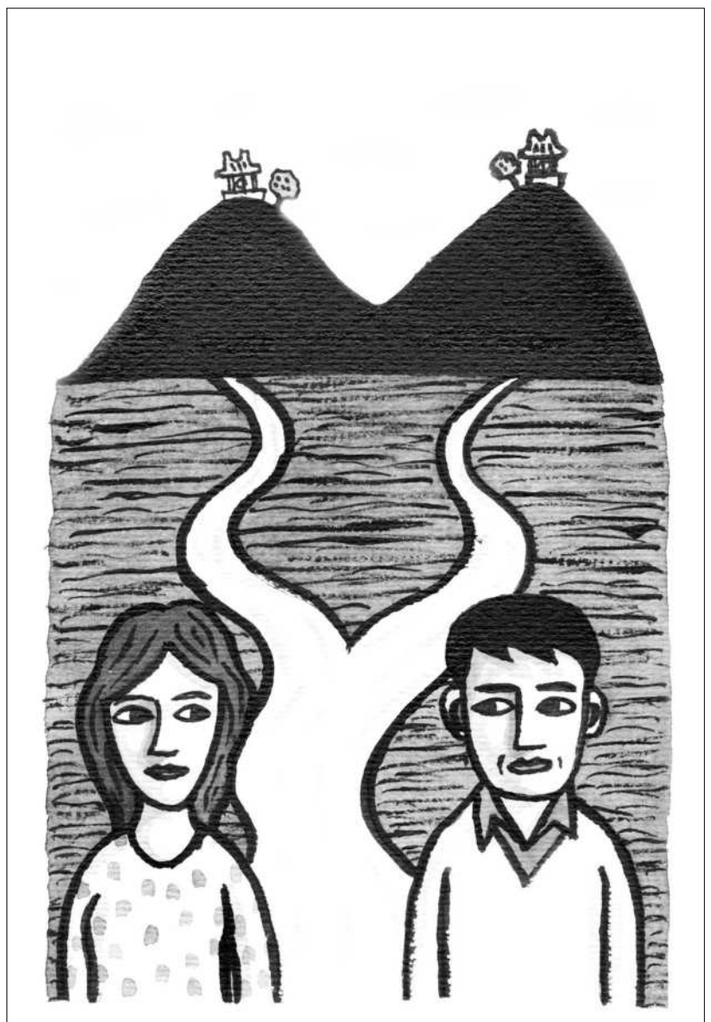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내가 불교를 만난 건 대학교 4학년 무렵이었습니다. 하고 있는 공부가 주로 사회구조와 갈등,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어서 나는 마치 세상의 모든 고민을 '내가 다 해결이라도 해야 하는 듯' 매일 머릿속이 자글거렸습니다. 농촌문제, 노동문제, 여성문제, 환경문제…. 내 온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는 화두는 오로지 '문제, 문제, 문제' 투성이였던 것입니다.

그 즈음 나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게 아닌데도 목뒤가 뻐근하고 어깨와 등까지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파스로 온통 도배를 하고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아무리 한의원을 다녀도 낫질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던 중, 한군데에서 전해 준 한의사의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병이라고." 참 절망적인 이야기였지요.

뚜렷한 병의 원인과 병명도 모른 채 막연히 '간(肝)'이 좋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다른 차도도 없이 한의원에만 의존할 수 없어 주위의 권유로 단전호흡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등록을 위해 갔던 첫 날, 몸의 기 상태를 점검하시던 사범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의 몸이 아픈 것 같으냐"고 묻기에, 나는 "엄마가 장사를 하셔서 간혹 집을 비우시는데, 그럴 때면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아버지 아침상을 차려 드리려고 일어나야 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고 긴장 됐어요. 이후 생활할 때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 분은 나를 가만히 보며 하는 얘기가 "기왕에 할 거면 편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처럼 쉽고 간명한 답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그때의 나로서는 그 말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매사에 불만이 많고, 열심히는 하지만 뭘 해도 문제점 위주로 지적하기 좋아하던 나는, 사실 단 한번도 "기왕에 할 것 기분 좋게 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내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전호흡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통 "우리 사회의 구조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실천 주체로서의 개인"에 몰두해 있던 것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개인"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군복무를 하고 있던 한 선배와 부처님의 법에 관한 얘기를 편지로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선배가 휴가를 나와 만나게 되면 열에 들떠 불교를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맘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뜻과 다른 사람들에 분별심으로 가득 결혼하며 세상에 거는 기대 남편에 집중 실망 쌓여 '이혼과 마음 돌리기' 반복

졸업을 앞둔 가을, 환경문제를 부처님의 연기법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한 불교사회단체 산하의 환경 NGO를 내 인생의 첫 직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어 불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대로 자신 내면의 문제, 개인과 개인의 갈등, 사회의 여러 문제, 민족 갈등 등을 풀어나가면 조금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종교와 아주 무관하고, 특히 그 단체의 다른 대중들처럼 불교대학생 활동을 했던 것도 아니어서 아주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렇게 절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잠시, 나는 일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는 것에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절에서 출가를 했다는 소식을 후에 듣게 된 한 법우는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더군요. "일을 잘 하려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걸 해 봐야 할 것 같다"구요. 이 말은 지금도 부처님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자주 떠오르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첫 인연이 되었던 단체에는 그리 오래 몸담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 책 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처럼, 이제는 부처님의 법에 근거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무기가 되어 나 자신을 겨누고, 못살게 굴고, 함께 일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답답하게 여기는 씨앗을 심기 시작한 것이지요.

자라온 집안 환경과 여러 조건의 영향으로 '바르고 옳은 것'을 좋아하던 나에게 불교는 오히려 병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 군대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불법을 만난 '신기함과 우월함'을 나눴던 그 선배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상일에, 사람들에게 거는 최고의 기대와 확신을 '남편'이라는 한 사람에게 총 집중하며 말입니다.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단체로 향하던 분별심이 '남편'이라는 새로운 대상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법을 등불 삼아 인생의 중심을 잡으면서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부부보다도 멋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으리라는 꽉 찬 기대 속에서 말입니다.

아주 많은 부부들이 그러하듯, 나에게도 결혼 3년여 동안은 '이혼과 마음 돌이키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아보이던 장점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할 무렵, 서로 다른 절과 스승에게 공부한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어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아상에서, 법상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 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히 맞서며 싸웠지요.

농촌이 고향인 나는, 늘 농사일로 바쁜 어른들 밑에서 크느라 아이들이 대부분의 생활을 스스로 챙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남편은 도시에서 전업주부인 엄마로부터 모든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지라, 동등한 가사노동 참여는 고사하고 코 푼 휴지조차도 휴지통이 조금만 멀면 그냥 책상위에 두기 일쑤였습니다.

옷걸이에 옷이 가지런히 걸려있는 날도 없었고, 둘 다 사회활동을 하느라 바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방이라도 닦으며 협조를 구하면, '청결의 개념이 다르다'며 자기 볼일만 보았습니다. 어쩌다 남편 혼자 집에 있고 밖에서 내가 급한 일로 전화를 해도 귀찮거나 자느라 안 받기 일쑤였고, 먼저 나가는 날에 밥과 국을 챙겨 놓았다가 퇴근해서 보면, 밥통문은 열린 채 밥은 다 말라 비틀어 있고, 국 냄비는 냉장고에 두지 않아 음식이 쉬어있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어느 날에는, 보일러가 고장 나서 한 삼일을 냉방에서 자는데도, 낮에 시간을 쓸 수 있던 남편이 A/S를 하지 않아, 내가 밤마다 일어나 임시방편으로 보일러를 손 보다, 급기야는 시아버님께 부탁을 드려 수리한 적도 있었습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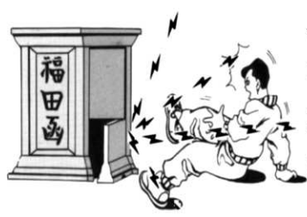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부처님 정통 수행법
Sati 수행 Workshop

올바른 부처님 수행법의 정립이 요청되는 이즈음
열심히 정진하는 스님들과 전문가 (교수 · 대학원생 · 불교단체임원 등)를 위한 수행 workshop을 갖습니다.

- 장 소 : 다보산 반냐라마(부산)
- 대 상 : 스님 및 전문가
- 참가비 : 10만원, 학생4만원
- 준비물 : 가사, 일반인 수행복 지급
-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스님
- 내용 및 상반기 일정

회차	일시(17시~15시)	내 용
2회	5월 16일~18일	· 마음구조와 마음작용 · Sati수행의 이론과 실기 · 간화선 · 묵조선의 이론과 실기 · 의학, 상담학, 심리학, 뇌과학, Sati수행 비교 · 요가와 불교수행 차이점 비교 · 부처님과 프로이드 마음이해비교 · 수행 프로그램 개발 (수련회, 템플스테이, 법회등)
3회	19일~21일	
4회	6월 20일~22일	
5회	23일~25일	
6회	7월 11일~13일	
7회	14일~16일	
8회	8월 16일~19일	

※ 짝수 회는 5년 이상의 출가수행자 · 8회는 학인스님 대상입니다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011-1700-2841, 055)331-2841 Sati School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마음으로 극락세계 이루네

불화 속의 명장면 (8)

日 교토 지은원 소장 '관경16관변상도'

"…안팎이 투명하게 환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된 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강과 칠보로 된 황금의 땅이 유리 대지를 팔방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황금의 땅은 여덟모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하나의 면마다 백 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알알이 달린 보배구슬에서 천 가지의 광명 빛나고, 그 한 줄기의 광명마다 8만 4천의 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그 모든 빛이 유리로 된 대지에 비치면 마치 억 천의 태양처럼 빛나고 눈부시어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관무량수경: 유리로 된 땅을 생각하는 관(觀)〉



관경16관변상도 전도, 고려시대(1323년), 일본 교토 지은원소장.

극락의 땅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천상의 악기에서 저절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평화롭고도 애틋한 금빛 극락조의 지저귐, 금강석이 가득 깔린 개울에서 흘러나오는 황금빛 물줄기, 허공에 흩날리는 꽃송이, 진주 그물 휘장사이로 부는 청정 바람 속의 그윽한 향기, 피어오르는 꽃구름 속의 찬연한 보석 누각…, 비단 극락의 대지뿐만 아니라 극락의 나무 · 물 · 누각 등 경전을 따라 극락의 정경을 관(觀)하다보면(그림2 • 3), 그 상상을 초월한 화려함에 눈이 멀고 귀가 먹을 정도입니다.

정토세계 이르는 열여섯 단계 관상법 그림으로 제시
천공 공간에 어우러진 연출 한국적 관경변상도 정립



그림3 : 극락세계의 물, 땅, 나무를 생각하는 관(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가 묘사되어있는 아미타삼부경(<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처음 접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어로 번역된 경문을 통해서였습니다. 런던대학 유학 시절 동양학도서관에서 우연히 손에 잡힌 범본(梵本)-영문번역판 <관무량수경>을 접하며 그 성스러운 아름다운 문구에 감동 받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한문번역 경전이 주는 문학적 상상력에 전혀 뒤지지 않는, 원문의 울림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왔던, 이 영문본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신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유명한 막스 뮬러(Max Muller, 1823-1900 현대 종교학의 대가)의 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많은 대승경전들은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등의 거짓된 감각의 세계에 전도되지 말라고 역설합니다. 오온(五蘊,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 즉 모든 육체적 감각과 감정 및 지적 인식 작용 등 일체가 모두 공(空)하니, 이 현상계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계하고 또 경계합니다. 그런데 여기 묘사된 극락은 시각 · 청각 · 후각 등 감각의, 그것도 아주 감각의 극치인 천국이 아닌가요?

일본 교토 지은원에는 고려본(1323년, 충숙왕 10년) <관경16관변상도>가 보존되어, 거의 7백년에 달하는 세월을 견디며, 고려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천국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근거가 되는 소의경전인 <관무량수경>이 설해진 연유는, 주지하듯이, 마가다국 왕사성에서 왕위를 놓고 벌어지는 부자 사이의 비극에서 비롯됩니다. 자리에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아들의 횡포에 목숨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 막다른 구도를 보여, 한국적 '관경16관변상도'의 정립이라는 점에서 그 기점을 마련하는 작품입니다. 즉 일몰(日沒)관 · 수상(水想)관 · 지상(地想)관 · 수상(樹想)관 · 총(摠)관을 작품 가장 위의 천공 공간에 같이 어우러지게 연출하여(그림3), 마치 아래에 바야흐로 펼쳐질 장엄한 정토 세계의 막을 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중심에 가장 강조된 것은 아미타불의 모습과 그 광명을 관(觀)한 '신관(身觀)'입니다. 왕생장면은 가장 하단에 세 구획으로 나뉘어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고려 말의 정세는 원의 지나친 간섭으로 자주적 실권을 잃은 상태였고 또 권문세족과 환관이 판을 쳐서, 나라는 토지 잃은 유민들로 넘쳐나는 형세였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말세적 경향 속에 아미타신앙이 불붙듯 일어났으리라 추정됩니다.

작품 화기에는 정업원(淨業院) 주지 등의 이름이 명기되어, 이것이 고려말 개경에 위치했던 정업원에서 발원된 귀중한 작품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작품 속 제단 및 왕생



그림2 : 극락세계의 보배누각 지붕.

그렇다면 즐거움만으로 넘쳐나는 이러한 환상적인 극락세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생(生)과 사(死)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 저 서쪽 어딘가 피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를 찾는 과정에서 앞에서 품었던 감각의 천국이라고만 느꼈던 제 우문(愚問)이 해답을 찾는 듯 듯합니다.

고통 속의 위제희 부인에게 부처님은 말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눈만 감고 마음만 모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경전 속의 많은 암시와 비유가 그 이전에는 왜 보이지 않았는지요.

'수행자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배일 때',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한결같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바로 '주변 만물이 하나같이 미묘한 법문을 설하고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라고 설파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마음으로 극락을 이루고 '모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 즉 서방정토와 유심(唯心)정토는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 제게도 극락의 미풍이 한 줄기 불어오길 일심(一心)으로 기원해 봅니다.

강소연(홍익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말 개경 정업원서 발원 … 왕실 여인 등장
여성 중심 '정토결사' 유행 알 수 있는 자료

연못 등지에는 실제로 당시 이 작품발원과 관련되었을 법한 고려왕실 여인들 및 비구니의 모습(그림4)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작품처럼 금빛 반짝이는 고급안료의 왕실작품은 아니지만, 같은 해(1323년)에 그려진 유사한 형식의 '관경16관변상도'가, 한 점 더 일본 아이치현 인송사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여성 시주자 이름과 '양주여향도(楊洲女香徒)'라는 묵서명의 화기가 작품 하단에 발견되어, 민간층에서도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정토결사'가 고려 말에 유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4 : 아미타불 신관(身觀) 밑 제단의 비구니와 여성신자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